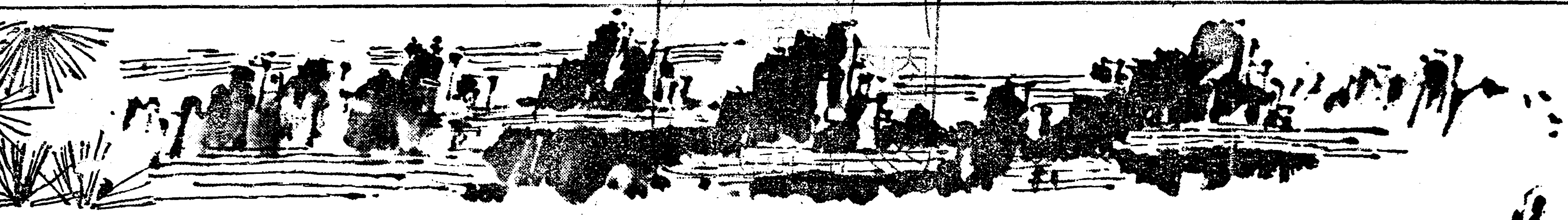


朝鮮日報

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青少年에게 訴하노라

一

새로 한살을 먹어 三十이 넘거드란 이글을 보지말라。그것은 時間의 浪費요、牛耳誦經이다。보라、새로 어떠한 決心을가지지 못할者에게 新年第一日이 무슨 意味가 잇스며、設使、瞬間的으로 가저본다고 할지라도 그決心의 實行을 期치 못할者에게 新年第一日이 무슨 意味가 잇슬것이냐? 洋의 東西를 通하야 古往今來를 詳察細究한 結果에 依하면 社會國家의 發展興隆을 招致한 偉人은 다 立志도 三十前에 始作되고、實行도 三十前에 始作된것이다。釋迦와 더브러 慈悲의 눈물을 흘리는者도 靑年中에 잇섯고、耶穌와 더브러 十字架를 난호려는者도 靑年中에 잇섯다。故로 秦始皇、나폴네온의 史蹟을 드를때에 全身에 熱血이 끄려오를수업스며、무쏘리니、히틀러의 行績을 볼때에 胸底깁히 衝動을 바들수 업스리만치 老衰한 무리들에게는 隔日에 依한 新年은 잇슬지언정 百年大計를 爲한 新年은 斷코 업슬것이다。이것이 우리가 新年第一日을 마슬때마다 二千三百萬을 向하야 訴하다는 習慣으로부터 脫出하야 三十歲以上의 老衰한 무리와 十歲以下의 無分別級을 排除하고、오직 有爲敢能의 靑少年을 向해서만 訴함이 잇스려는 所以다。

二

靑少年 諸君아 諸君은 첫재 生의 意義에 對하야 熟考深究한바 잇는가? 어디로 가는지 方向도 모르고 옴겨놋는 行步는 十年을 두고 걸어도 헛거름이 되드시、무슨때문으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生은 비록 百年을 사려도 그것은 醉生夢死에 不過할것이다。故로 무엇보다도 몬저 靑年은 生의 意義에 對하야 徹底한 考察을 가지지아니할수가업는것이다。그러면 生의 意義는 무엇이냐? 하면勿論、異說이 업다는것은 아니나、生의重大한 意義는 사람은 다만 그個人自身만을 爲해서 사는것이아니요、이에社會及全人類로 더브러 산다는一點이다。여기서 우리는 自己가 屬해 잇는 社會와 延하야는 全人類에 對한 責務를 가지는것이다。故로 靑少年의 胸底에 恒常 잇지 못하고 둘一事는 어떠케하면 이社會와 이人類에 對하야 내가 그構成員의 하나로 이世上에 생겨낫든 보람을할수가 잇슬까? 하는 생각이다。靑少年의 心內에서 이생각이 스러지는 날은 그는 발서 靑少年이아니요 老年이며、따라서 그는 新年第一日을 意義잇게마지할 資格을 喪失하는것이다。

三

둘재로 諸君은 諸君이 當面한 이 二十世紀文明의 本質에 對하야 批判을 가저 보앗는가? 여기 對하야 何等의 批判眼이 업시 지내왓다면 이에 對하야 嚴正한 批判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急先務인것을 알라。二十世紀文明은 物質文明이다。物質文明은 此를 經濟的으로말하면 數盤文明이다。數盤文明의 必然的又는 不可避的弊害는 毫로 朝鮮뿐만이 아니라、全世界의 靑少年을 드려서 數盤的行動을 하는 機械로 만든다는데 잇다。보라、某校를 卒業하면 金融組合見習生이 된다。某大學을 卒業하면 某銀行에 幾圓月給으로 採用이 된다를 目標로하야 工夫하는것은 저 數盤의 움직임과 다를것이 무엇이냐? 數盤은 十錢에 한알이 움직이고、三十錢에 세알이 움직인다。이와가치 區區한 小地位와 月給만을爲하야 움직이는것은 靑少年의 靑少年다운 根本意義로부터 크게 脫線되것이니、이 엇지 民族社會를 爲하야、全人類를 爲하야 크게 貢獻함이 잇스려는者의 取할길이것이냐。

四

셋재로 생각할것은 物質文明의 弊弊가 天下 有爲의 靑少年으로 하여금 『民族社會를 爲하며、全人類를 爲하는데도 몬저 돈을 가저야 된다。』는 重大한 錯覺을 주어다는 一事다。그러나 이것은 錯覺이다。歷史는 悠久하고、人類는 久遠한것이다。最近四五十年만 보다는 近眼的觀察을 버리고 久遠悠久한 人類史를 본다면 적게는 民族社會의 恩人、크게는 全人類의 師表는 그 十中八九가 다 貧寒窮困한 處地로부터 이러낫스며、그의行한 事業도 다 物質의 背景을 要치안코 된것이다。孔子는 어떠한 사람이엇스며、쏘크라테쓰는 어떠한 사람이엇드냐? 自己心內에 湧出하는 確信에 立脚하야 頂天立地하야 何物도 무서워 하지아니하는 誠意와 勇氣를 가지고 不斷한 努力과 끄임업는 前進을 繼續해 가노라면、苟苟한 物質쯤은 오지말라고 해도 利用하고도남음이 잇스리만치 저절로 따라온다는 確乎不動의 眞理는 靑少年諸君의 가장 銘心을 要할바가 아니면 안될다。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滿天下靑少年諸君에게 空中나는 새도 먹울것이 잇고、들에 피는 百合도 입울것이 잇다는 確信下에 오직 社會를 爲하야 무엇을할까? 全人類를 爲하야 무엇을 할까하는 一事만을 胸底깁히 간직하고、新年第一日에 새로운 決心과 實行을期하기를 訴하는바이다。

領土再分割論

徐椿

一、再分割의意義

事實은 어느때든지 理論보다 압서는法이다。世界富源再分割問題에 잇서서도 理論은 뒤요、事實은 몬저다。昨年九月、米國、에드와ー드・하우쓰大佐가 同國雜誌 리버티ー誌를 通하야 發表한 世界植民地再分割論은 植民地爭奪을 目的으로한 列國間의 相互暗鬪의 事實을 捕捉하야 此를 理論化한데 不過한것이다。勿論、事實을 捕捉하야 理論化하는데는 理論化하는 當者에게 어떠한 對策이 잇슴을 要한다。換言하면 對策을 示唆하는것은 理論을 마튼者의 義務요、責任이다。그러면 하우쓰大佐는 그 對策에 잇서서 무엇을 示唆하엿는냐? 하면 世界의 植民地又는 富源을 再分割하되、戰爭이라는 手段에 訴치아니하고 하자는데 잇다。再分割은 말하면 一國의 植民地를 他國所有로 옴기는것이다。말하면 國與國間의 領土權에關한一國의 讓渡에 對한他國의 讓受다。그런데 從來로 말하면 國與國間의 領土의所有權移動은 열이면 아홉까지는、아니 좀더 事實대로 말하면 열이면 열이 다 戰爭의 結果다。勿論 米國이 露西亞國으로부터 『아라스카』를買受한 例가튼것도 잇스나、그것은 十指에 차지 못하고 그餘는 다 戰爭이라는 手段을 通하야 領土權이 移動되것이다。그런데 이제 하우쓰大佐는 世界의富源、그것은主로 植民地를 再分割하되、戰爭업시 平和裏에 하자는데 그特徵이 잇다。그러면 戰爭업시 一國의 植民地를 他國의 所有로 옴기는 妙한 方法이 잇는냐? 하면 富源所有國의 世界平和에 對한 誠心及熱意如何에 依해서는 업지도 아니하다。이미、그러한 實例도 잇다면 잇다고 볼수도 잇다。말하면 年前、英國이 伊太利에 對하야 一九一五年의 倫敦密約을 履行하는 意味에 잇서서 亞弗利加에 잇는 英領소마리란드의 一部 그他를 讓渡한것이라든지、또 去年一月七日의 佛伊로마協定에 잇서서 亦是、一九一五年의 倫敦密約을 履行하는 意味에 잇서서 佛國이 阿弗利加北部及東部에 잇는 相當한 面積의 植民地를 伊太利에 讓與한것이라든지는 다 平和裏에 잇서서의 植民地再分割의 實例로 볼것이다。이제 이 모양으로 富源을 裕足히 가지고 잇는 諸强國이 富源貧乏으로 困難을 當하는 諸强國에 對하야 그一部分을 讓渡한다고하면 世界는 싸우지 안코、平和를 維持할수가 잇다는것이다。이런 意味로 보아 世界富源再分割論은 一種의 戰爭防止策이요、平和維持策이요、又는 植民地再分割論은 戰爭에 依치 아니하는 現狀打破策이다。그러고、이런 理論을 提唱한者는 하우쓰大佐前에도 其數近十人에 達하고、또 그後에도 여러사람이 잇스나 오직 하우쓰大佐를 내 거는것은 그가 現狀維持國(富源所有國)과 現狀打破國과의 植民地爭奪을 中心으로 한 相剋運動이 가장 劇烈햇다고 볼 昨年 即一九三五年中에 잇서서 때마추어 그런 理論을 發表햇기때문이다。

二、하우쓰의所論

하우쓰大佐는 그世界植民地再分割論에 잇서서

『伊太利는 擴張하거나、그러치 안으면 爆發할수밧게 업다。』

라고한 무쏘리니首相의 말을 筆頭에 내 세우고 나서

『三國(日獨伊)은 天惠가 薄하고、生活必需品又는 原料品을 輸入에 依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處地에 잇는데、이 生活必需品及原料品의 貯藏所에 各各自國民의 勢力을 注入하야 交換的으로 此等의 物資를 確保하려는것이다。그러나 英米佛三國及 쏘비에트聯邦과 가튼 尨大한 領域을 保有한 各國은 此等 不幸한 同胞에 對하야 何物도 讓渡치 아니하고、기껏한데야 植民地의『테이블』에서 떠려지는 땅부스러기를 주는데 不過하다。』

하야 富源不足이 列强間에 軋轢을 이르키는 原因이 되는것을 說明한 後에 다시

『所謂 벨사유平和條約後에는 各國間의 憎惡、猜疑、經濟的不幸이 接觸하야 出現햇다。平和條約의 結果、獨逸은 一切의 屬領을 喪失햇다。그러고 伊太利政府와의間의 植民地에 關한 公約은實現을 보지 못햇다。日本은無比의 國民的生活力을 가지고精力을 배칠 곳을 求하지 안호면 안될窮態에 빠젓스나、到處에서 逐出을 當하기에 至햇다。그結果、獨逸은 히틀러總統을 나엇다。히틀러總統이야말로 獨逸國民의 劣等感을 지워버리기爲하야 出現한 極端의 産物이다。他方、무쏘리니 首相은 歐洲의 紛擾를 醸出하고、日本도 또한 가장 通하기 쉽고、效果的인通路를 求하야 自國의 過剩人口와 過剩貿易과를 注入코저 한다。此等三大國民의 死活的要求가 充足되지 못하는 限까지는 世界의 安定을 期待할수가업는것이다。』

라고하야 日獨伊三國民의 過剩人口與分散과 富源充足欲이 世界를 紛擾시키는 推進力이 되는것을 밝히고 나서 다시

『勿論、余는 實力에 依한 領土併合을 勸告하는者가 아니다。乃至는 土着人民을 無慈悲하게 搾取하는것을 承認하는者도 아니다。그러나 植民地에 對하야 某種의 滿足한 解決을 達成하는것이 必要하다고 信하는者이다。』

라하야 自己의 立場의 根本精神이 世界的紛擾를 平和的手段에 依하야 解決하자는데 잇다는것을 强調한後에

『獨逸政府가 大戰의 結果로、敵國政府에 委任된 植民地의 返還을 바들수가 잇다고 하면 國內의 人心이 現在와 가티 들끌는 일은 업슬것이다。勿論、殊히 重要한 理由、乃至는 戰術上 그他의 理由로 因하야 아모리 하여도 獨逸에 返還할수업는 植民地도 잇슬것이다。그러나 獨逸의 合法的希望은 某種의 方法으로 滿足시킬수밧게 업다。一例를 들면 大戰直前、英獨兩國政府間에成立된 協定을 復活시킬수도 잇슬것이다。當時、이미 兩國政府間에는 暫定的 協定이 成立하야 獨逸政府는 葡萄牙領植民地를 買收할 權利를 獲得햇섯다。이제 萬若、獨逸政府가 葡萄牙領의 一部를 回復하고、다시 葡萄牙領植民地及 白耳義領콩고ー를 買收할수가잇다면 獨逸政府는 此植民地의 經營에 [illegible] 하고、伊太利가 滿足하게 되면 國際間의 平和는 有効히 保障될것이다。』

라고하야 植民地再分割의 方法을 例示한것이다。

三、溫情的平和策

前述 하우쓰大佐의 所論은 一見、何等의 奇拔할곳 업는 平凡한理論과 가티 보일것이다。그러나 美文麗句의껍질을 제끼고 그內面을 드려다본다면 實로 우合기 짝이 업는 理論이다。

첫재 하우쓰大佐는 米英佛蘇의 四大富源國이 이것을 가지지못한 日獨伊三大强國에 富源을 난호아주지안키때문에 世界에 紛擾가 이러나며、戰爭이 이러나는것이니까、四國은 三國에對하야 미리 三國이 滿足할만치 떼여주라는 말이다。이것을 해 말하면 工場主가 미리 알어차리고 勞働時間으로 賃銀으로 勞働者에게 相當한 待遇를하 [illegible] 에 對해서는 다시 『勿論、[illegible] 要을 必要로할것이나、何如間 [illegible] 植民地를 獲得하는날이면 獨逸國民은 歐洲에 잇서서의 [illegible] 那의 財產을 [illegible] 안코 無限의 精力을 傾注하야 巨大한 植民帝國의 建設과 商業的進出을 圖하게 될것이다。一八七一年의 普佛戰爭에 잇서서의 敗北後、佛蘭西國民이 不安焦燥에 驅使됨을 防止하기 爲하야 上述한 政策을 極力主張한이는 『비스맑』公이 아니엿느냐? 비스맑公은 國際會議가 잇슬때마다 佛蘭西代表를 支持하야 同國에 植民地를 賦與하도록 百方盡力햇다。佛蘭西人에게 아낌업시 植民地를 附與한것은 獨逸人이엇다。그러면 今日에 잇서서 獨逸人에게 植民地를 拒否하는것은 佛蘭西의 取할態度가 아닌 것이 아니냐? 獨逸人의 滿足 [illegible]

國際間에 잇서서의 溫情主義는 한 社會內 [illegible] 不過한것이다。故로 한 社會內의 個人對個人間에 잇서서 溫情主義만을 가지고는 困難한 解決을 짓지 못하드시 國與國間의 境遇에 잇서서도 亦是、그러할것이다。

그러고 하우쓰大佐는 四國은 여지껏 三國에 對하야 테이블에서 떠려지는 땅부스러기를 주는데 不過햇다고 하지마는 事實에 잇서서는 여지껏은 그런 例가 업섯고、萬若 하우쓰大佐의 所論대로 四國이 三國에 對하야 無用의 植民地쪼각을 주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겨오 테이블에서 떠려지는 餘滴을 주다는 말로 表할마할 狀態에 達할것이다。

그러고 하우쓰大佐의 所論은 아모리 廣大한 本國領土를 가지엇슬지라도 植民地를 讓渡云云에만 言及햇지 本國領土를 讓渡하자는데는 一言의 言及이 업는것은 特히 注意를 要할바다。元來가 西洋人은 남의 바지 입고、씨름을 잘 한다。今番、伊에紛爭의 調停에 잇서서도 英佛은 에디오피아領土를 마치 제物件處分하드시 가로찻고、세로 찌저서 이리저리 부치는案을 案出햇든것이다。이런處置에 잇서서의 英佛의 意圖하는바를 類測한다면 그것은結局、남의 物件을 가지고、하우쓰大佐의 理想을 實現하고저하는데 잇슬것은 大槪此를 推測하기에 困難치아니하다。

[illegible] 佐는 또한 『大戰間에 [illegible] 지나는 狀態가 即、平和時代다。』라는 過程에 [illegible] 한것이다。一方에 過剩人口及 富源貧乏이 잇고、他方에 過少人口及 過度富源이 잇게 되면 비록 國際間의 戰爭은 이러날수가 업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우쓰大佐의 理想으로하는 世界가 아니라는것은 하우쓰大佐더려 무러보아도 是認할수밧게 업슬 것으로 우리는본다。

何如間、비록 四國이 하우쓰大佐의 所論에 따라서 三國에 對하야 그러한 對策으로 臨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三國側으로 본다면 그것은 前述로 이미 究明한바와 가티 結局、테이블에서 떠려지는 餘滴에 不過할것이니까、아마 三國은 그 餘滴만으로 滿足하지는 안흘뜻이 보는것이 將來할 事實과 副合할것으로 생각된다。故로 하우쓰大佐의 所論은 四國側의 代辯者로서 본 餘滴主義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가튼 四國側의 代辯者中에서 요만한 餘滴主義에도 反對하는 者가 만흠을 記憶할 必要가 잇다。그 代表로 [illegible] 사람만 드려보면 英國의自由主義者、『써・노ー만엔젤』이、即、그사람이다。

엔젤氏는 大體로 世界紛擾問題를 富源國과 貧乏國으로 난호아 생각하는것은 根本的으로 잘못된 議論이라고 前提를 세운 後에

『萬若、新西蘭、阿弗利加、亞細亞의 國民을 잘 달내서 此等領域을 獨逸、伊太利、日本의 植民地로 할수가 잇다고 하자、그러케 해 노흐면 現在、獨逸、伊太利、日本과 가티 經濟的으로 窮迫한 나라들이 當面한 經濟的困難을 解決할수가 잇슬뜻하냐?』

라고 反問을 設定하고나서

『그러타면 저 北米合衆國과 가티 廣大한 富源과 領土를 가지고、人口와 原料의 壓迫에 조곰도 困難을 밧지아니하는 나라가 亦是、日獨伊三國과 가튼 程度로 經濟的困難을 當하고 잇는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야 再分割論者의 痛處를 찌른後에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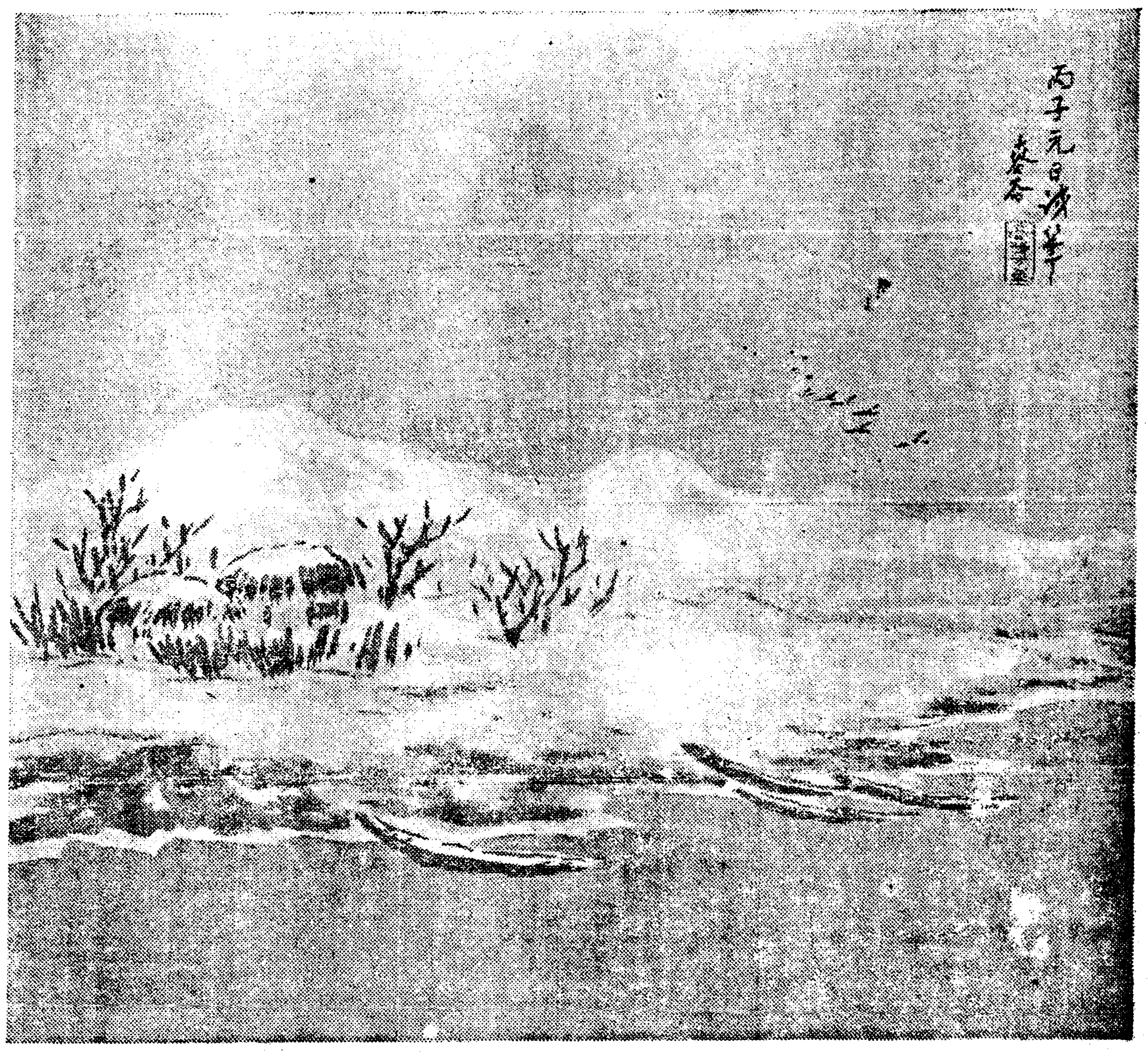
『多數의 論者는 現在、獨逸의 不滿은 벨사유條約의 結果라고 한다。그러타고 假定하자。그러면 벨사유條約으로 奪取한 領土及屬領을 全部、返還하기로 하자。알사쓰、로레인을 佛蘭西로부터 또는 波蘭을獨逸에 返還한다고하자。그러면 平和가 올뜻하냐? 事實은 獨逸이 이全部를 다 가지고잇는때에 戰爭을 始作하지 아니하엿느냐?』

라고하야 諷刺를 석거 가면서 自說의 是함을 實證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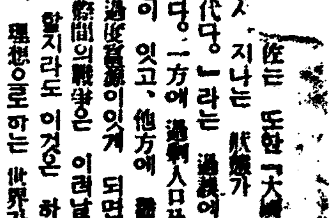
何如間이 엔젤氏의 所論은戰爭이 起하는 原理를 說明하는 同時에 富源國의 귀에너흐면 餘滴主義조차 슬켜 하지 아니할 論據가 되는것이다。

四、戰爭은不可避

그러니까 四國은 四國대로 富源維持、即現狀維持에 努力하고、三國은 三國대로 富源獲得을 目標로하야 軍備擴張、同盟外交 其他의 方式으로 奮鬪努力하고、兩便이 서로 다 所信에 向하야 갈대로 가다가 一旦、衝突하야 雌雄을 決하는날이 即、한번더 富源維持냐? 그러치 아니하면 富源再分割이냐?가 決定될 날이지、諸種[illegible]한 卓上理論만 가지고는 世界平和는 어를도 업다는 것이 아마 結論이 될것이다。(完)



春谷 高羲東氏 試筆



謹賀新年

一月一日

株式會社朝鮮日報社
同社社員一同
同社支分局一同

金

尹致

韓相

金秊洙

柳生繁雄

會社團

朝鮮製藥

朝鮮皮革會

京城府光化門通二百十番地(光化門ビルディング)
朝鮮特許代理局
辨理士 李釆鎬
電話光化門一四六一番

外資의合理的誘導로 日本勢力을牽制
米蘇中事業家로投資會社組織
그推移如何極히注目

【天津三十日發電通】米蘇中事業家에依하야 企圖된 天津投資會社는 去二十八日 創立되야 아직 積極的活動을 開始치안하엿스나 信賴할만한 情報에 依하면 同會社는 從來北中에서 일측이 外國資本의 洗禮를받지안흔 未開發資源에投資할것을 目的으로하고 天津米國總領事館에 登記하야 設立된것이며 株式會社組織임에 不拘하고 그資本金 事業內容一切를 極秘에附하나 一部外人이 株主가되엿것이 漸次判明되얏다 國民政府가 北中에서 日中經濟提携가 擡頭하자 浙江財閥의 操縱하는 華北經濟委員會를 設置하야 牽制를企圖하엿스나 宋哲元政權의 出現에 依하야 挫折되고 一方北中의冀東自治政權이 堅實한 步調를 보이고 冀察政務委員會가 豫想外의 自主的態度를 表示하야 國民政府의 北中政策에 齟齬를내게된結果 玆에 外資의 合理的介在로 日本勢力의 牽制에 나오려는 苦肉策인것은 인제 疑心할餘地가 업고 國民政府의對日態度 好轉을 傳하는 此際에 그推移에는 深甚한 注意를 要한다

永野全權 三十一日歸英

【倫敦卄九日特派員發聯合】크리스마스 休會旅行中이던 日本軍縮全權永野修身大將은 三十一日 끝든아로우號로 倫敦에 到着하기로 決定하야 日本全權은 正月二日로써 活動을 開始하기로되엿다 一月六日 再開後의 軍縮會議는 從來의 情勢에 鑑하야 日本對 英米佛伊 四個國의 全面的對立을 展開할것은 必至의情勢에 잇는바 다만 佛國代表部提出의 短期絶消案으로 겨우會議決裂을 避할수잇슬것이 可能性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佛國政府는伊國과의 關係上一年乃至二年以上에 亘하야 自國의 海軍建造를 中止하지안흘것은 明瞭하

으로 結局 佛國案은 問題가되지안는다 一方 米國代表는 日本代表의 要求에 어떠한 讓步를 示한다하더라도 艦型의 縮少乃至制限만은 不應할 意向이오 容易히 自國案을 내세우지안코 英國에 合流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이에 對하야 日本全權部는 確固不動의 鐵則인 共通最大限方式을 一步도 不讓하고 끗까지 原則先決主義의 强硬態度를 維持할 方針이므로 벌서 會議의 決裂은 單純한 時日問題라고 解釋되다

佛首相演說 獨逸서好評

【伯林二十九日發聯合】去二十七日의 下院外交討議에서 佛國首相라발氏가 行한演說은 當地에는 珍奇하게 好評을 博하야 二十九日各紙가 모다 라발首相演說에 長文의 讚辭를 呈하고 特히 獨逸接近에 言及한 部分은 詳細히 掲載하얏는데 도이체、알게마이네、차이퉁紙는 『라발首相이 下院討議에서 一般的國際情勢를 引用하고 特히 對獨問題에 關하야 條히 正當히 取扱한것 또 라발首相演說中에 獨蘇協約成立을 끗까지 阻止하려는 勢力이 보인다』라고 述하엿다

結局總括的으로 不信任案提出乎
明徵、非明徵의二暗流흐르는
政友會의對議會態度

【東京電話電通】政友會는 對議會態度도 選擧委員設置問題도마친내 今春으로 延期되고 再開會議直前의 二十日까지에 各派의 情勢를 注視하고 徐徐히 黨議를 綜合하야 滿全을 期하기로되엿는데 目下黨內의 情勢는 어데까지 國體明徵問題로써 內閣을 彈劾하려하는 明徵派와 明徵問題를 政爭의 工具로 해서는안된다는 非明徵派와의 對立狀態를 呈하엿고 더욱選擧委員 設置問題에 對하야서는 鈴木總裁의 健康問題로 鈴木總裁의 代行機關設置問題의 難關에 逢着하엿고 나아가서는 部內勢力抗爭의 端緒를 誘發하야 드듸여 決定直前에이르러 無期延期를 不得已하게되여 解決에는 아직도 相當한紛糾를免치못할 情勢에잇다 一方 政府方面에서는 從來부터 除名關係等과 因緣關係가 잇는 非明徵派가 災害豫算及 鐵道豫算에 關係잇는 地方議員에 對하야 자조 魔手를버치여 多少 이에 誘惑되는 形勢도 나타나 目下黨內는 複雜微妙를 加하여 잇는데 運間首腦部로서는 어데까지 在野黨의 威力을 示하야 政府不信任案을 提出하야 決戰할것이라는 强硬意見을 가지고 다만 不信任案의 目標는 選擧對策上으로 보거나 또는 黨議를 統一하는데 서나 國體明徵을 骨子로 이에 政策을 織入한 總括的不信任案으로할것이라는 意向으로써 黨內輿論의 統一에 努力하고잇다 그리고 首腦部의 意見대로 總括的不信任案이 作成된다고해도 如何한時期에 此를 提出할는지 그리고 今後事態의 推移는 容易히 豫斷을 不許하나 最近政府方面에서 國體明徵이 解散의 理由가 되고 이것이 總選擧에 標題가 될것을 避하기爲하야 議會再開前에 一木、金森兩氏의 進退問題를 處置하야 本問題를 解消하려는意向이 擡頭하고잇는模樣인데 萬若 이것이 實現되면 自然 黨內明徵派도 攻擊의目標를잃코 總括的 不信任案에 贊成하게되고 非明徵派도 이에對하여는구태여反對도 하게되지안허 結局 多少의 迂餘曲折은잇드라도 黨議는統一되리라고觀測되다(寫眞은鈴木總裁)

蘇聯과外蒙古間에 軍事的協定을强化
外蒙古共和國의首腦部를莫斯科에招致
極東赤化積極策協議

【東京電話聯合】滿洲國에잇서滿洲、外蒙古共和國會議決裂以來滿洲對外蒙古의國境確立의 積極的工作을 豫期한蘇聯에서는 會議가 決裂되자 即時 外蒙古共和國首腦를 莫斯科에 招致하고 軍事對應策을主題로 積極的赤化工作宣傳에關하야 協議를 繼續하고잇섯는데 最近 某方面에達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外蒙古兩國間에 今回軍事에關한秘密協定이成立되여 政治的思想的提携外에 軍事的으로 緊密한 連繫가完成되는模樣이다 即蘇聯邦은 中國에잇서서 國民黨의反動化以來期待[illegible]結果 中國邊境의赤化에全力을 傾注하야 外蒙古와如히 이미 共産主義色彩로써 물드린事實上 共産主義聯邦의一員이되엿고 以外에 最近新疆省의赤化에도 成功的 飛躍을보혀 英國勢力을 完全히 驅逐하야 赤化東漸에決定的結果를 擧하려하고 잇다그러나 北中自治以來 日本의壓力은 次第로加하야 日中共同赤化防止가 宣傳되는데따라狼狽 急遽對策을 講究할必要에切迫되여 今次의 蘇聯外蒙古會議에서도 그對應策이 主題의하나가되엿든것은 疑心할餘地가업는것이라고 觀測되다 則北中地方의 政治的勢力이 自治政權에 歸一統合되고 日中共同赤化防止의 進出如何에 依하여는 外蒙古로만해도두蒙古의 [illegible] 水泡에歸할뿐아니라 [illegible] 東洋赤化에 挫折을 [illegible]하고 따라서는 外蒙古共和國에 [illegible]의强化가되므로 日中共同赤化防止의擴張에 모든對策을 講究하는 同時에 今次와 如히 積極的으로 蘇聯과 外蒙古와의 軍事的協定을 强化하야 萬一의 場合에 備하리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日本軍當局은 蘇聯 外蒙古의 이軍事同盟의 締結과 滿洲國 邊境에 對한 蘇聯의 反蒙的 態度强化에 關하야 重大關心을 가지고 推移를 注視하고잇는데 蘇聯及 外蒙古의 滿中國境에잇서 積極的 攻擊的 態度는 事態發生의 機會가 만흔 相互關係를 더욱 惡化케하야 紛爭을 招來하고 危險率을 擴大하게되는것이라하야 同地方의 新情勢進展에 關하야 直接重大關係를 가진 日滿蘇各國은 勿論 列國注視의 的이되여잇다

國際石油戰
對伊封鎖의失敗
石油帝國主義의對立
(上) 金炯元

◇對伊石油封鎖◆

伊에紛爭으로 國際聯盟의 對伊經濟封鎖問題까지에 이른 事情은 다ー말할 必要도 업시 讀者의 이미 잘 아는일이다。國際聯盟은 經濟封鎖의 第二段的手段으로 對伊石油禁輸를 하라하엿다 그러나 十二月 十二日의 十八國委員會는 그實施에 對한 討議를 無期延期하엿슬뿐아니라 聯盟의 一員이오 制裁實施發論國인 英國의 自治領 加奈陀는 이에 對하야 異議를 主張하엿다。그뿐아니라 聯盟國은 아닐지라도 中立法案의 通過에 依하야 聯盟과 行動을 가티하리라고 期待되든 米國까지 슬그머니 石油만은 此限에 不在라는 態度를 取하기 시작하야 三十年間 伊太利 石油市場獨占을 目標로 스탠다드會社와 伊政府間에 엇더한默契가 잇는것가치도 偶然다。그러치 안터래도 政治的、經濟的 여러가지 事情으로 列國이 果然 對伊石油封鎖를 斷行할수가 잇슬가 하는 疑問에 關하는일인데 事態가 이에 이르러서는 좃처럼 斷行은 어려우리라고 보인다。

◇石油의重要性◆

이한가지事實만가지고라도 石油가 國際的으로 얼마나 重要한商品임을 짐작할수가잇다。그러나 좀더詳細히 石油의重要性을 알아둠은、적어도 一九三六年에處한 現代人의 不可缺할常識으로생각된다。筆者도 이러한 見地에서 여러가지資料를 蒐集하는中이오 未熟하나마 이短文을 草하야 讀者와함께 石油의 重要性을 삷혀보라하는것이다。石油가 近代的產業으로 確立되기는 十九世紀後半부터의일이라 할것이다。燈火用으로만 使用되든것이 動力用으로 使用範圍가 擴大됨에따라서 產業的으로 發達을 보게되얏다。더욱히 世界大戰後 飛行機 自動車 發動機船의 發達과함께 國防上 產業上 燃料問題가 石炭에서 石油로옴기을따라 世界的 國際的으로 그 重要性이 增大되는同時에 需要도激增하게되얏다。

◇用途의革命化◆

石油發動機가 發明되기前에는 오즉燈火用으로만 利用되야 米國과가티 大生產國에서는 一時 軍隊의힘으로 强制減產까지하얏든일이잇는石油도 世界大戰을 契機로하야 일어난 動力生產과 軍備上革命으로 그用途도 革命的 變化를보게되얏다。兵器의發達、戰鬪方法의複雜化、軍의 機械化는軍事上燃料問題의 重要性을增大케하엿다。그뿐아니라、大戰의 經驗은 石油의優越性을 敎示하엿스니 即艦船用燃料로는 熱力補給、動作、馬力、燃費等모든點으로보아 石炭보다 훨신有利하고、또航空機、탕크、自動車에는 까소린이不可缺할것이란點을 생각할때에 國防上燃料의石油化는 아조必然之勢로 되고말앗다。이에따라서 石油의缺乏은 곳軍을無氣케 하고 軍의勢力을 減殺케 하는것이다。石油의利用은 如上의 軍事上技術的見地로만이아니라 經濟的 產業的으로도 工業用 船舶用等에 업서서는안될重要性을 가지고잇다。

◇石油一滴血一滴◆

이와가티 石油는 一國의 國防과產業을 支配할만치重要性을 가지고잇다。今石油一滴이 血一滴이라함은 이러한事情을 說明하는말이다。그러나 石油는天然產物이다 人造石油가 發明되얏다 할지라도 到底히 天然石油의比가아니오 生產費로보아 甚히不經濟的으로 經營이困難하다。이에各國은 다투어 石油資源을獲得하기에 熱狂하고잇다。그런데 여기에한가지注目할일이잇스니、石油經營은 大資本이必要하다는것과 高度의獨占性에비추어、資本의利益과 國防의必要가 一致되기쉬운點이다。그리하야、石油市場과石油資源을 獲得하라는 猛烈한帝國主義的爭奪戰은 武力戰爭의危險을 誘致할만치重大化한일도 한두번이아니다。石油는 마츰내 一九三五年에 이르러 伊에紛爭을 契機로 戰爭의[illegible] 正面으로 登場하엿고 [illegible]上外交上政策의目標[illegible]에 世界石油問題는 [illegible]問題化하고말앗다。(續)

佛內閣樂觀不許
轉變無雙한佛政界動向

【巴里三十日發電通】一時重大危機에 直面하엿다고 傳하든 佛國內閣은 二十九日 人民投票로 겨우 勝利를 어덧는데 右는 라발首相이 最近下院에서

一、國際聯盟에 對한 留保업는 支持
一、對英協調

를 確言한것으로 一般人民에게는 右演說은 全然豫想外의것이다 따라 何人도 라발首相의現在까지의 政治行動을 論하고 또 演說內容과의 比較檢討를 行하려하는者는업다 그리고 議會는 來月十四日再開되고 二月一日로서 閉會되므로 라발首相이 議會의論戰에 이러설것은 겨우數日에 지나지못하리라고 豫想되다 또라발首相은 來月十九日부터開會될 聯盟理事會에 出席함으로 議會出席期日은 더욱 短縮될는지도 알수업는 情勢이다 그러나 라발內閣의 前途는 決코樂觀은할수업고 現在急進社會黨閣僚의辭任이 잇스면 直時崩壞할 脆弱性을 가지고 잇슴으로 內心 同首相에對하야 强硬한反對意見을 가지고잇는 에리오黨首가 通商問題의 一段落等을 待하야 政府의行動을 取한다고하면 內閣의運命은 全然危殆에瀕하게될것이다 急進社會黨이 來選擧에 잇서서는 與黨側에서서 싸우는것보담 차라리 政府를 敵으로 하는便이 有利하다는等 考慮하는 料도 相當히만흠으로 今日內閣의 危機가 一時消散되엿다고는 하나 따라 總選擧가 잇다고하면 議會關係로 九月初旬에될 模樣인데 現行法대로 實施될터이다

(寫眞은 라발佛首相)

日銀發行高 連日膨脹
大晦日은十八億圓臺豫想

【東京電話電通】歲末切迫에 伴하야 好調를追하고 잇는 日本銀行兌換券은 晦日前의 三十日帳尻에 依하면 貸出이 三千百六十六萬八千圓을 增加하야 八億三千六百八十四萬四千圓의預金은政府支拂及 前段의米穀證券償還의 中地方因係分未濟勘定이 整理로 七千九百七十三萬四千圓을 激減하야 二億二千七百十一萬六千圓으로 되엿슴으로 繼續하야 五千四百四十四萬一千圓의膨脹、十七億六千六百五十六萬二千圓으로되야 十八億圓臺에 肉迫하엿는대 이것을 前年同日附에比하면 實로九千七百七十六萬一千圓의 激增으로되여잇다 그리고三十一日도 繼續하야 政府銀行의貸出이行하여잇고 一方預金은政府支拂에 依한政府預金의 減少에 加하야 一般預金도 減少하엿스므로 晦日에 繰越된 兌換券은 다시四、五千萬圓程度로 膨脹하야 完全히 十八億圓臺에 올을模樣이다

日銀帳尻(二十八日)

發行高	一、七六六、五六二 增五四、四四一
正貨準備	五四四、〇六八 增九九一
預金高	二二七、一一六 減七九、七三四
貸出高	八三六、八四四 增三一、六六八

東京콜ー

翌日拂	〇、九五〇
無條件	一、〇〇〇
普通	一、〇〇〇

鮮銀帳尻(三十日)

發行高	一三六、二〇、四三[illegible]
正貨準備	一七、七六、四四、[illegible]
保證準備	一〇八、三三一、八六七

八面鋒

讀者諸君、먼저 謹賀新年을 드립니다、形式이아니라 眞心으로 今年은 정말 賀禮할一年이되기를 바랍니다。

◇

새해、나히하나더먹는날、兒童에게는成長의깃붐、老人에게는 衰退의悲哀。

◇

希望이만흔 民族에게는 躍進이 잇슬것이오 努力이잇는國民에게는 新鬪가잇슬 이날。

◇

새해 새날 새아츰이、우리는 무엇을생각하고 무엇을 計劃하고 무슨決心을해야할가。

◇

무엇보다도 살어갈일을 생각하고 살어갈方法을세우고 남과가티번듯이 살을 決心을할 必要가잇습니다。

◇

사는데는 衣食住도잇고 敎育도잇고 衛生도잇고 娛樂도잇고 여러가지方法이잇습니다。

◇

그中에도 精神的사는것 方向업시사는것 義를모르고사는것이 가장섯그러운노릇。

◇

讀者諸君、願컨대 잘사는點에서 所願成就하소서。

今日重要論文記事

本紙	第一面	領土再分割의吟味	徐椿
同	第二面	國際石油戰	金炯元
附錄其二	第一面	世界危機의焦點	洪陽明
同	同	平和機構의危機	金餘容
同	第二面	軍縮會議의幻影	洪駿卿
同	同	伊에戰爭과그波紋	咸尙勳
同	第三面	轉換期中國政情	李元坤
同	同	比島共和國의將來	韓晳容
附錄其三	第一面	世界經濟의現情勢	申泰翊
同	同	幣制改革後의中國	徐椿
同	第二面	統制經濟의全貌	咸尙勳
同	第三面	土改事業의中止와實績	洪鍾仁
附錄其四	第一面	銅像巡禮	
同	第二、三面	勞動市場을차저서	
附錄其五	第一面	春光을찻는무리들	
同	第二、三面	名人藝談大會	
附錄其六	第一面	文化特殊過程論	安在鴻
同	同	東京政局의趨移	金晧伊
同	第二、三面	한地方하問題	
附錄其八	第一面	朝鮮文學建議案	諸氏
同	第二面	國際作家大會吟味	諸氏
附錄其九	第二面	十長生	金晟鎭
附錄其十	第一面	鄕歌解讀	梁柱東
同	第二、三面	突擊!을目띠으로	

日中國交調整會 今春南京서開催

【北平三十日發電通】中國側情報에依하면 明春二月南京에서 開催될 日中國交調整會議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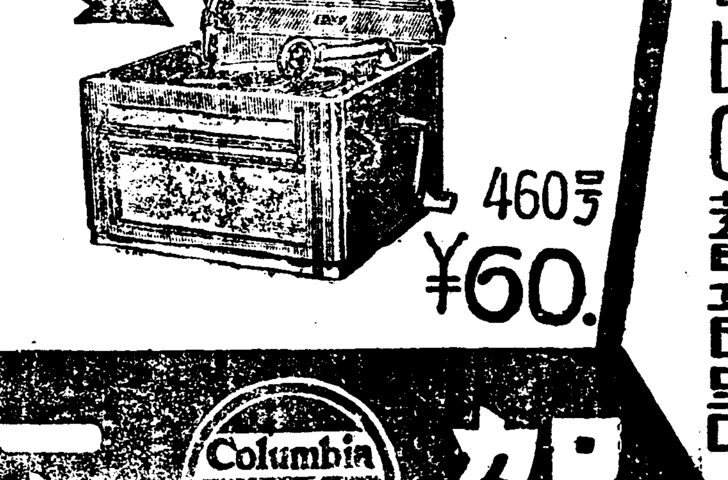
(一)日中國交調整
(二)日中條約의改訂
(三)[illegible]問題의再檢討
(四)[illegible]合作

[illegible] 一廣汎한 討議가 遂行될터인데 中國側은 于先多年의 懸案인 日中通商條約의改訂交涉에서 着手할 意向을가지고잇다한다

今日本紙그라비아版合 四十八面附錄日曆添付

間然する所なき
何時・如何なる
各位の御期待に
あらゆる印刷

銀 行

新春三大傑作盤
新民謠 落花岩의千年夢 姜弘植
流行歌 希望의鐘이운다 蔡奎燁
째즈송 술주정뱅이 버튼·크레인
世界第一 콜럼비아蓄音器
針音絶無 콜럼비아레코ー드

460號 ¥60.
Columbia
賀

米國景氣回復으로 敎會學校補助漸增

太平洋을 건너오는 新春의 喜消息

恐慌時보다 二割增加

안과밧그로 다사다단하든 일천구백삼십오년은 드되여막을닷고 우리에게 행복과 명랑한『뉴스』를 가저올 일천구백삼십륙년의 첫 해발은바야흐로 떠오르랴한다 그중 에도반가운『뉴스』하나는 일즉부터 우리사회와 관계가깁고 공헌이만흔 조선의 긔독교 선교관계의 각긔관이죽저간 미국의 불경긔로, 경비 축소를 당하는등 곤란이만튼바 작년부터 미국의 경긔가 나날이 조와짐에 딸아 사업긔금도 다소 유력하여저 서새해부터는 전보다 얼마만큼 더적극적활동을 하게된다는것이다

일천구백이십구년 미국에서 쪽발된 경제적대공황(大恐慌)은 드듸어 전세계적으로 퍼지어 마츰내 태평양을 건너 극동의 한구석에잇는 조선에까지간접직접으로 막대한 영향이 잇는데 그여파로 직접 영향된것은 미국기타 여러곳의 선교단체로부터 만흔 경제적보조를 밧는 조선에서의 긔독교선교사업도 자연재정상 타격을 아니바들수업섯다 그래서 조선내의 선교사업은 미국서 오는 선교비보조가 대삭감되여오든 교육사업과 사회사업까지 축소하게 되야 전조선각지방에 호터저잇는 긔독교계통의 남녀중등 초등학교는 다른 적당한 경영자가입스면 문을닷치는수밧게업다고까지 하게되여 일시 어떤학교의운명은 글ㅅ자그대로 풍전등화와가티되여 잇든바이다 그런든터에 일천구백삼십삼년 지금미국대통령『루즈벨트』씨가 대통령의지위에 취임하야 신정책을 강력적으로 시행한이래 극도의공황에 빠젓든 미국의경긔는 점점 회복되기시작하야 요사이는 어느정도까지 공황을 극복하여감에딸아 조선선교계에서는 공황시대보다 약이할가량 선교사업비를 더보조박게되여 새해부터는 종래 경영하여오든 교육, 선교사업은물론 사회사업에더인층적극적활동을하기로되엿다한다

반가운일입니다

監理敎總理師 梁柱三氏 談

선교사업비보조가 다소 전보다 풍부하여진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긔가 조와진것도 물론이지마는 조선선교업에 대한이식이 더두터워진 까닭이겟지요 교회에딸아 일률로말할수는업스나 남자사업비는 그다지 늘지안헛스나 녀자사업비는 약이할가량는 교회도잇습니다 새해에는 종래경영하든사업을 충실히함은물론 사회사업에 더힘을써보랴고합니다 운운

土兵뻐쓰被襲 九名이死傷

【安東三十日發聯合】이십구일오전아홉시반경에 안봉선봉황성(安奉線鳳凰城)을떠난 대고산행(大孤山行) 철도총국(鐵路總局)의뻐스뜨대가 그지방 서쪽십륙킬로『되는 봉성현제일구손가보자(鳳城縣第一區孫家堡子)에서 두목조동(趙同)이하의 토병칠십명에게습격되야 일본인경승원 삼전후(森田厚)과 소빈정(小濱正)의마의충(金滿益忠)의삼씨와 로서아인한명과 만주국인 승객오명은 즉사하고 일본훈전수한명과 만주국인 승객세명은 중상햇스며 거긔잇엇든 경긔관총하나와 탄약일천이백발과『모─젤』권총세나 탄약륙십발과 삼백발을 약탈당햇다 이급보를天고봉황성에서와대고산두곳에서 일반관헌이 현지에급행하얏스나 그들은 이미도주햇다

小兒兄弟가 慘死

今曉樂園洞의 慘事

이해도 마지막으로 너머가는 삼십일일 새벽세시부터 부내 락원동(樂園洞)일백이십일번지 원순학(元順學)의순잇아들 동복(東福)(七)과 둘재아들 동운(東雲)(이)은 자긔 방에서 풍로에 숫

氷上代表獨逸로

"끗까지싸우고오리다" 多數餞送裡奉天驛發

【奉天支局三十日發電】獨逸에서 열리는 第四回冬季 올림픽大會에出戰하는 金正淵 李聖德 張祐植三君은 男女피규어·하키選手들과함께 三十日 午後四時二十八分 奉天驛列車로 一路西伯利亞經由 壯途에 올랏다 驛頭에는 在留朝鮮人들의 盛大한餞送이잇서國際驛에로보내는三勇士로하여금마음것激勵하엿다感激에넘친三選手는 奉天驛을떠나며 記者에게 다음과가티말한다

同胞들이 처음부터 끗까지 우리를聲援과 激勵를 하여주시니 우리들은 士氣를 더욱振作하야 여러분의 期待에 저버림이 업기를 期約하고 敢鬪하겟습니다 激勵의電報와그 物質的後援을 하여주신 여러분에게 感謝하여마지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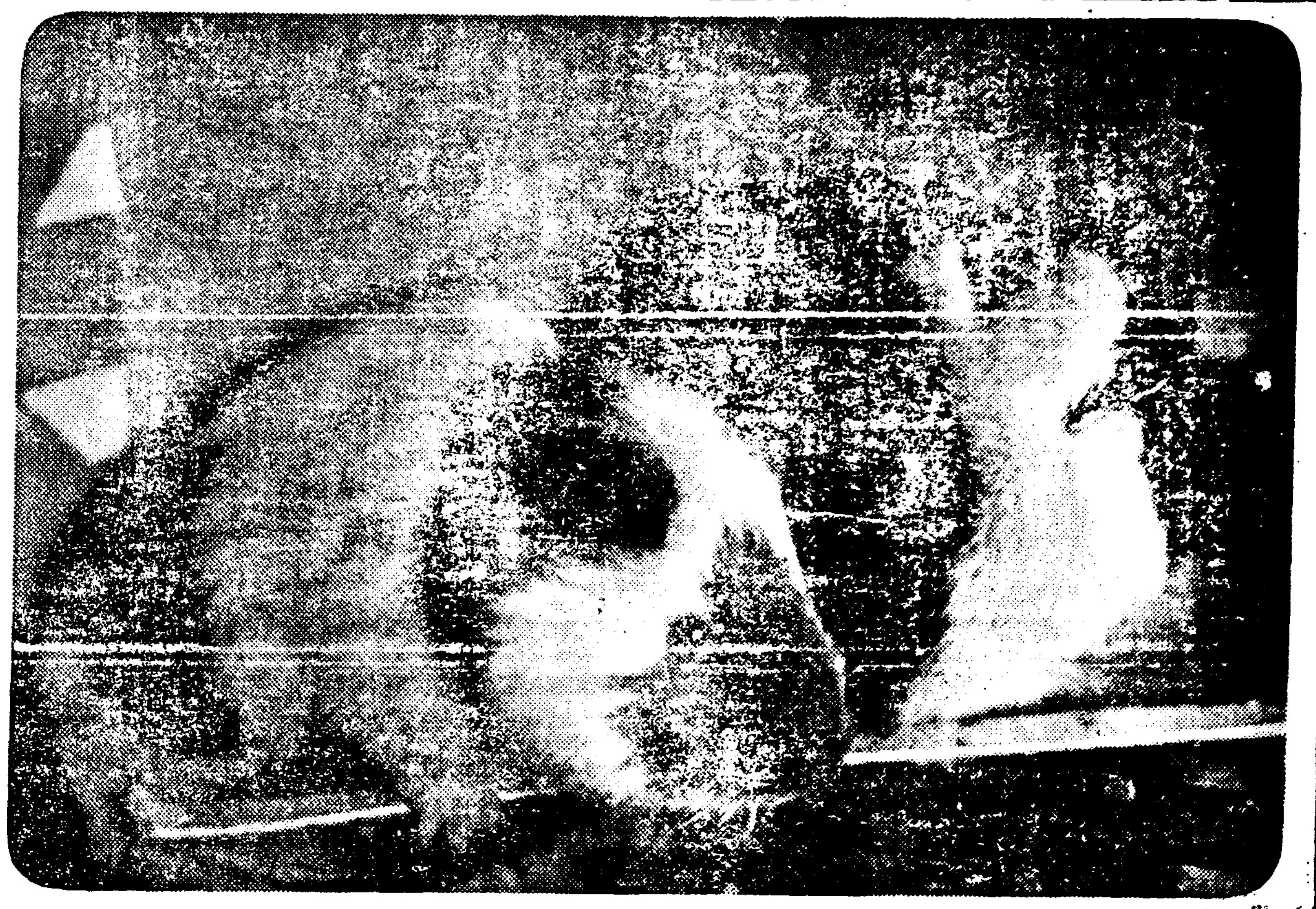
三務와新商은二位

▲第一位‖奉天中學三八點▲第二位‖新義州三務校一七點 同新義州商業一七點▲第四位‖八戶商業 一一點▲第五位‖諏訪蠶絲 五點▲第六位‖新義州□習四點(以上日光中禪寺氷上經過)

天氣豫報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맑앗다 호리다 하며 치위는 조금풀해진다 京畿道全區도 맑앗다 흐리다하며 치위는 틀해진다 明日도 今夜와갓다

昨日 最高 零下九、四 最低 同一六、九 今朝 最低 同一五、三 今日 正午 同六、一九



子年의使者·鼠公!

異次頓의死 【71】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이차돈은 멈춧 서서 뒤를돌아보앗다. 강ㅅ가 하야케 덮힌 눈 우에 거므스름한 뭉텅이가 하나가 꿈지럭거리는양이 보고 『사람 살리우』 하는 다 죽어가는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옴이 분명함을 알앗다.

『무엇일까?』

하고 잠깐 주저하엿스나 또 한번

『사람 살리우』

하는 소리에 이차돈은 오든것을 다 잇고 소리 나는 편으로 뛰어갓다. 어떤 누더기 입은 늙은 중이 몸을 반이나 눈속에 뭇고 손만 허우적거리고 잇다. 이차돈은 그 늙은 중을 눈속에서끌어내엇다. 그 늙은 중은 몸을 떨떨 떨며,

『어떤 서방님이지 모르거니와 구렁소 뒤 용천암(龍泉庵)까지 저긔 저다려다 주오. 늙은것이 시장하고 추어서 촌보를 옴길수가 업소. 어, 어, 어 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이차돈의 등에 매어달린다.

이차돈은 어께에 매어달리는 늙은 중을 뿌리치지는 못하고,

『내가 길이 밧븐 사람이니 갓가운 인가까지 업어다 드리리다』

하고 늙은 중을 업고 것기를 시작하엿다. 벌판이오 움욱어리가 만흔 곳이라 눈보래 싸힌 데가 만아서 다리가 쑥쑥 빠저 걸음을 것기가 어려웟다.

게다가 보기에는 빼다귀 주머니와 가튼 늙은 중이 무겁기가 천근이나 되는듯하여서 이차돈의 등ㅅ골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하엿다.

아침 해발이 올려쏘아 멀리 흥복사(興福寺)의 웅장한 가람이 보엿다. 아침 긔도하는 북 소리와 쇠ㅅ소리와 목탁소리가 은은히 들려왓다.

『저 흥복사로 갑시다』

하고 이차돈은 등에 업힌 중을 어깨우로 돌아보며 말하엿다.

『아니, 아니。 흥복사 중놈들이 나를 미워해서 어제ㅅ밤에도밤ㅅ중에 쫏차냇는데, 어서 어서 용천암으로 가요。 인제 십리만 가면 될걸 자 어서 가요』

하고 늙은 중은 무릅으로 이 차돈의 엽구리를 푹푹찌르는다。

이차돈은 이 염치업는 늙은 중에게 대하야 괘씸하게 생각하여서,

『여보, 내가 길이밥븐 사람이야』

하고 사정도 해보고,

『눈ㅅ구덩이에 내어버리고 갈테야』

하고 욱박질러도 보앗스나 그 늙은 중은 유들유들하게도 조곰만더, 한 고개만 더하고 떨어지지를 아니하엿다.

그러저럭 가는 동안에 인제는 홍복사고 지나도 인가 잇는데도 다 지나고 어듸를 보든지 눈ㅅ빗만 아침 해에 빗나는 등성이들이 물ㅅ결가티 꿈틀거리는 벌판이엇다.

이차돈은 화를 내어 고개ㅅ마르태기에다가 늙은 중을 동댕이를 치고,

『어듸를 더 가잔말이야. 인가 잇는 데를 다 지나왓스니 어듸까지 가잔말야?』

하고 늙은 중을 노려보앗다.

『사람을 살리랴거든 끗까지 살려야 아니하오? 저긔 저 고개를 넘어서면 이몸이 잇는 용천암이니 어서 업어다 주오』

하고 또 이차돈의 어깨에 매어달렷다.

이차돈은 또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 늙은중을 업고 눈ㅅ길을 걸엇다.

아마, 고구려 군사들이 벌서 자긔를 잡으려 떠낫슬는지도 모른다. 거믄보고와 거칠마로가 반드시 고구려 마을(관청)에 아뢰엇슬것이다. 그러나 등에 힌 늙은 중은 사정도 모르고 코를골앗다.

『여보, 자기는 웨자?』 어깨를 짝붓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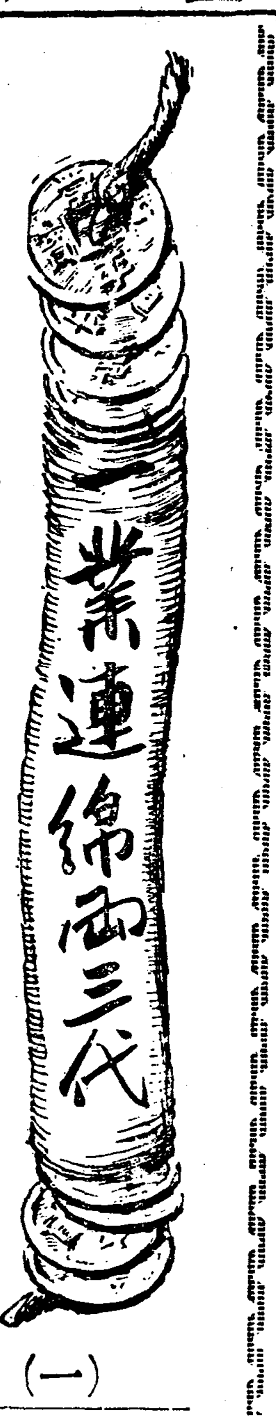
하고 몸을 흔들면,

『어, 허, 잠이 들엇군』

하다가는 또 잠이 들엇다.

이차돈의 전신이 땀에 젓고 다리가 허둥지둥할 때쯤 되어서야 겨오 룡천당에다달앗다.

구렁소리는 개천을 건너서 수풀 깁흔 산ㅅ골작이로 꼬불꼬불 들어가서 잇는 조고마한 암자엿다.



勤勤孜孜百五十年 藥業界王座 "趙膏藥"

□□先代는 漢方醫로 外科에 權威者!□□

天一藥房이될때까지

業連綿而三代 (一)

장안에서뿐만아니라 전조선에서 한가지업을 대(代)로 나려오며 계속경영하야 큰성공을 한집을 세이라고하면 누구던지 먼저 조고약(趙膏藥)본포 천일약방(天一藥房)을 엄지손가락 꼽지안을수업슬것이다 천일약방 이라는 상호(商號)는 지금부터 이십사년전에 지금주인 조인섭(趙寅燮)씨가 그의부친 근창(根昶)씨로부터 영업을 인게마터 매약업을 시작할때에 부친것으로 그전에는 지금 례지동(禮智洞)일백 삼십칠번지 자리에 잇는 이십여간 박게안되는 작으마한 한약국(漢藥局)이엇섯다 조근창씨는 구한국시대 한방의(漢方醫)로서 약일백오십년전부터 그의집에전하여오는 가전약(家傳藥)조고약을 리용하야 날마다 몰려드는 만흔환자의 헌듸와 부스럼을 다사리어 당대외과의(外科醫)로서의 명성이자자하야 그집문압헤는 밤낫으로 외과환자가 장을일우엇섯다 고한다 이와가티 외과의료품으로 써오든 조고약을 지금주인조인섭씨가 새교육을바든결과 장래 약업이 유망하여질것을 선견하고 그가 스물두살때에 그의부친에게서 약국을인게마터 비로소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내걸고 이상호미테 조고약을 매약(賣藥)으로 제조하야 전조선각처에 선전판매하는한편 약종상(藥種商)과 건재국(乾材局)영업을 시작하야 일본내지를 위시로 대만(臺灣)、상해(上海) 향항(香港)등지、중국방면 각곳의 상인과 거래하야 조선약재는 중국방면으로 수출하고중국약재 즉당재(唐材)와 기타외국약재는 조선으로 수입하야전조선각지방에 허터저잇는동업자에게 도매를하여왓섯다 그러든 중 시세의변천됨을딸아 한약보다 양약의수요가 점점만허짐으로 이약방에서는 삼년전에 한약부외에 새로양약부(洋藥部)까지 두어 경성시내의 조선인측각병원을 비롯하야 지방 각병원의주문에 응하고잇는터로지금한약과 양약매매에 잇서다른두각(頭角)을 나타내어 조선약업계의 왕좌(王座)를 점령하고잇다 현재 이약방에는 제조매약부(製造賣藥部)한약건재부(漢藥乾材部)수출입부(輸出入部)양약도매부(洋藥都賣部)의 네부가잇고 각부에는 부장이 잇서 각부가 각각 독립적 활동을 하게되엿는데 자본금은 수십만원 이나되며 일년동안판매고는 일백오십만원을 초과하고잇는 상태이다 본점외에 시내황금정(黃金町)과 대구(大邱)평양(平壤)광주(光州)에는 지점이 잇스며 이외에 대리점(代理店)이 사십곳 특약점(特約店)이 일천여곳이나되며 조고약을 소매하는 점은 전조선에 약일만여곳이나 되야 산첩동자까지도 조고약을 몰르는사람이 업슬만큼 선전되고잇스니 이것이 엇지 일조일석에 일우어진업적이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우리상업계에 잇서서 일백오십년간이라는 장구한 시일을두고 근근자자오로지한업에 정근해오든결과 오늘의번영을 보게된것이다 이십여년전만하드라도 이십여간에서조한개약포가 지금에 이르러는 삼층양옥으로 된 굉장한 점포우에는 상점긔빨이 기운차게 날리며 본지점을 통하야 일백팔십여명의 점원이 밤낫을 가리지안코 분주히 일을하고잇스니 이약방의 전도야말로 양양하다고할것이다 백오십년간의 유장(悠長)한적공(積功)! 이는 오늘의 천일약방을 가저온 업적이며 그념일 것이다.

◇사진이층은 조인섭씨와 건물은 천일약방

오리오리

一月一日(水曜)

◇午前八時三〇分 唱歌 一、君が代 二、勅語奉答 三、一月一日
◇同九時 學校公會堂兒童 韓相龍 一、朝鮮神宮(?)
◇同一〇時五〇分 京城日祭典實况 吹打外 三唱 吹樂團
◇同一一時四〇分 ─ 古談 庚秋岡 레코드音樂
◇同一時二〇分 새해를맞고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新年辭 沈宜麟(朝鮮總督(?))
◇同七時三〇分 歌曲 謠講 田中德太郎 一、羽調 二、羽調 三、編樂 四、編樂 五、太平歌 男唱 河圭一 女唱 金蕉紅 洋琴 金雨專 玄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二、唱劇調 박타령 大笒 金海仙 鼓手 朴鍾基 (大) 池龍九 混聲合唱─
◇八時三〇分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皇國精神에도라가라 二、昭和業代 三、日章旗 四、東天紅 五、昭和의黎明 大阪放送合唱團
◇同八時五〇分 野談
◇午後六時 滑稽劇 누구것이조흐냐…南共熙作 全一景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詩歌에나타난歲夜 李秉岐
◇同七時三〇分 忘年演藝大會 名作流行歌 伴奏DK管絃團
◇同八時 라듸오넌센스 休生員 新民謠 京城放送 姜(?)
◇同八時二五分 新民謠 新派團
◇同八時四五分 網笛 라듸오風景
案偵鬼防禦 全二景…金雲汀作 第二放送課員一同 演出 金雲汀

一月二日(曜水)

◇同八時五〇分 野談 申鼎言
◇同八時五〇分 大阪라듸오─케스트라 指揮 福富多鎭雄
◇同一時二〇分 映畵이야기 悲戀의노래 李命吉 卓福萬 金泰運 李命山
◇同一時四〇分 (東) 피아노獨奏 成東鎬
◇午後〇時五分 (東)놀양外一、앞산打鈴二、뒷산打鈴三
奏 一、夜想曲F샤─프長調作品十五ノ二…쇼팡作曲 二、타란테라 作品四三…쇼팡作曲 三、생불가에서…리스트作曲 四、포로네─즈E長調二番─리스트作曲
◇同六時 하─모니가二重奏와獨奏 一、二重奏 椿姬中에서 甲斐美和子
(宋) 三、二重奏『혀거리춤』 第五番…브람─스作曲 四、獨奏 빠르듸作曲 二、獨奏 푸른하날 五、二重奏 旅笠道中』(金)
觀兵式行進曲…吉本光藏作曲 金坡園 宋一九
◇同六時二五分 新年辭 (政務總監 今井田淸德)
◇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그들의새로운』 朴珍案 라듸오、푸레이─링 演出 朴珍 效果 劇研
◇同八時一〇分 一、關山戌馬 二、平秋心歌 三、역금愁心歌 四、賞遊歌 五、孔明歌 關山戌馬外
◇同八時四〇分 流行歌 一、握手 二、피눈물 三、말못하는心思 四、藥山東臺 五、꽃피는江南 六、月光恨 崔貞子 吳飛燕 姜石燕
◇同九時一〇分 黃材景 伴奏 DK管絃團 猪鼠의大戰

明二日附本紙休刊

今一日은 休日로 定하얏기로 明二日附本紙는 休刊함

曆

一月一日(水) 十二月建己丑(小)初七日 壬午·木·參·破 祭祀에宜함 大寒八日(舊月十三日) 冬至二十三日(舊月廿八日)

朝鮮劇場 第一劇場

ボルーゲルピアノ クロスタインピアノ 鮮滿總販元 三共ピアノ商會 主 鄭禹燮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2)三六二六番

活版石版 和洋帳簿 各種印刷 製本一式 東亞社印刷所 電本(2)三五〇一番 振替京城一〇九六番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

高麗映畵株式會社配給 李創用 京城鍾路二ノ七 電話光化門四四六

韓靑빌딩 京城鍾路

和洋雜貨 東亞婦人商會

多忙中一一히年賀의 禮를못드리어삼가敢히紙上으로 新年을祝賀하나이다 京城府體府洞三四 白松藥局 電光二二七五 朝鮮日報社員 諸氏

京城府體府洞三四 處方調劑 有名賣藥 化粧品等 白松藥局 電光二二七五番

成樂賀! 十二月三十一日부터大封切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大名篇! 全發聲化 아리랑고개 原作 洪吐無 撮影 李明雨 錄音 中川堯史 作曲 嚴載模 脚色 文藝峰 主演 文秀一·李春(?)特別出演 古今朝鮮映畵史上에最高最大의純情悲劇詩篇 明朗한情緖에얽키여아름다운愛戀의情調와古代風中에얽키인時代秘密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랄푸·마─후이氏監督作品! 가도로─드 마이케루氏 빠─루가나─비─氏 主演 血과惡魔 共外 漫畵 全卷 無軌道의 西部の卷

團成社 電光 三九五

十二月三十日부터二日間短期特別興行 忘年特別週間 每日三回興行 午前十一時半 午後三時半 同七時半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 席十五錢 階下 新興키네마社超特作 時代劇 黃金騎士 白井戰太郎 監督 嵐寬壽郞、荒木忍、澤村國太郎、歌川八重子 主演

콜럼비아社超特作品 추랑크가푸라監督 크로드코─르벨 主演 클라크게─불 어던밤에생긴일

新築落成! 開館!! 三十一日부터 一月三日까지特別公開 最上의設備와番組 觀覽料金 大衆席二十錢均一 晝夜三回 一、二回連續映寫一回十二時始 二回二時三十分始 夜七時始 上映順
一、化石人間 ユニバーサル超特作大怪奇映畵 ロウエル・シャーマン…監督 アラン・モウブレイ…主演
二、劒雲龍虎黨 大都映畵超特作大亂鬪時代劇 白井戰太郎…監督作品 海江田讓二·月宮乙女主演
三、ジャジャ馬と坊や 大都映畵特作現代劇大映笑篇 吉村操…監督作品 佐久間妙子·作間三郎主演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安く面白い 正月一日낮부터三回始映 最大尺으로今週만午前十一時부터 新年祝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東西三大外─모아大傑作篇! 방글방글웃음의새新年膳物로드리겟읍니다 餞物은世界的爆笑篇二大巨篇活劇 爆彈投下 메트로골드윈메─야社全發聲日本版 映畵原作 하와─드·─데이에스及아─사─·고─바─ 하리웃드바─레이 二人의征服的人氣競爭大冒險活劇 極樂寮展俱樂部 메트로골드윈메야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위리암에─사이다 松竹키네마社滿日超特作現代青春 學生街의花形 安監督作品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三六

東洋劇場 竹添町一ノ 電光三二四番 一月八日부터舞踊映畵週間 十二月卅日부터志年朝鮮映畵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지·멘(G MEN) 全十卷 젬쓰·캐그니 까이리 윌리암 監督 후라·후라拳鬪家 二卷 라일 탑 殺人鬼와光線 全七卷 아리랑고개 全九卷 十二月三十一日부터一月七日까지 晝夜二回興行 料金 階上大80 小60 階下大60 小30 守一과順愛 全八卷 바다와싸우는사람들 結婚商賣 全六卷 一月一日낮부터

桃花劇場 敦義洞桃花劇場 電龍一三三番 卅一日大公開(新春第一週) 春風 美人生活 主演 李慶善 文藝峰 全十四卷

去年は映畵界の常勝中央となりました記念すべき二週年であります 所かるが故本年度の中央が皆樣に捧げる雄大超特作品何卒首に倍し永却不變の御聲援の程、伏して願する次第であり 寬プロ超特作時代劇 松竹下加茂撮影所特別應援 新興キネマ京都太秦大合同製作 原作佐佐木味津三 監督二川文太郎 オール・トーキー版 古川捕物帖 花婦地獄變 嵐寬壽郞=主演 新興キネマ、高田プロ合同作 高田プロ獨立記念超特作 原作村上德三郎 監督牛原虛彦 オール、トーキー 急行列車 高田稔大熱演 毎日晝夜三回興行

中央館 永樂町 電本二三五五

躍動한元氣! 松竹昭和十一年의正月映畵의第一陣! 新春의松竹映畵에서! 卅一日부터四日까지 晝夜三回上映午前十一時開演 東日、大每連載小說의映畵化 長谷川伸=原作 井上金太郎監督作品 蹴手繰り音頭 坂東好太郎、月形龍之介、飯塚敏子 新春人事로 迎春譜 林長二郎外下加茂幹部スター의人事 蒲田オール、トーキー 講談俱樂部連載『サブ─公の戀』의映畵化 せめて今宵を 原作=北村小松 監督=島津保次郎 田中絹代、佐分利信、河村黎吉、小林十九二、小櫻葉子、上原謙

浪花館

謹賀新年

大阪

大阪市東成區東小橋之町二丁目一二〇
關西眼鏡組合、大地眼鏡組合指定
山本クローム鍍金工業所
李龍德

大阪市東成中道元町一丁目一六五
金屬拔物 洋傘タブ 拔物專門 其他一般
高本製作所
電話(84)八三二〇番
高仁奇
李鳳權

大阪市浪速區蘆原町一一七一
滿洲各市 毛織物及 朝鮮物產 大阪物產
金澄祺商店
電話櫻川四五六五番
振替大阪八六〇七三番
支店 神戶市林田區庄田町二ノ一四

毛織 人絹 ワイシャツ 製造販賣
三勝商會
營業所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ノ二八 電話天王寺(77)三四一八番
工場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ノ二九

大阪市此花區西島正岡町二
貴金屬 美術象牙 徽章 メダル 金バッヂ 銀カップ 優勝カップ 賞牌 帽章 ネーム プレート 社章 各種マーク 門標
專門製作所
精工堂徽章製作所
主 松本繁雄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五七
在日佛教聯合宗務院
院長 朴松坡　總務 金琦石
評議 金白堂　理事 金德祐
理事 鄭永達　財務 申慈月
書記 吳漢日　外一同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七丁目六八
營業科目 各種自轉車 全部自轉車 附屬品 其他各種部分品
山口自轉車製作所
主 李丁九

大阪市西成區上本町二丁目二八番地
ペイント刷毛製造販賣
ミシン用刷毛 スキ刷毛 用刷毛 各種ブラシ
高山孝吉商店
電話(東)二四七二呼出
主 高鴻植

大阪市浪速區榮町六丁目一五
松原內鮮質屋
營業主 閔敏植

大阪市西成區南開町七丁目九
宋命鉉

大阪市東淀川區三國本町五〇ノ一
三國親睦會
會長 成子鎬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ノ八
新聞書籍雜誌 物產內外雜貨 新舊各種
高鳳龍

大阪市東淀川區下新庄町八七八
具注書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三丁目五六
金山商店
主 金壽龍

大阪市西成區中開町三ノ六
酒醬油 味噌商
宋秉九

東屋クリーニング店
大和田町淀川病院前
朴龍碩

大阪市浪速區榮町四丁目十三番地
黑スムス エナメル下地 各色クローム
趙獻均製革所
工場 浪速區四丁目九十六番地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ノ一
朝鮮各新聞 朝鮮書籍 都散賣業
時昌商會
主任 李時漢
支店 李時爀
專務 河昌東
支店 東淀川區天神橋筋七丁目九

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五十七番地
朝鮮佛教布教所
布教師 金琦石

大同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南鮮堂藥局
申洪鍾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三丁目六番地

大阪市浪速區榮町四ノ二
各種製靴 都散賣業
上田製靴所
經理者 盧漢哲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丁目五三
但北大阪線大仁本町北二丁
店舖擴張 面目一新
大衆理髮館
主 林鍾律
責任者 金正鐸
責任者 李鶴成
店員一同

大阪市大正區小林町一一二
大阪廣信會
會長 金德秀
副會長 孔敏
同 韓順八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七一九
各種鍍金 工場主
李点尙

大阪市東成區林寺町二八四
輸出向、水ピース、百連發、各種玩具製作所
石川製作所
電話五九九三番
主 金熙福

大阪市東淀川區本庄中通一ノ一九
北鮮雲丹一手販賣元、海陸物產委托問屋
和洋雜貨、毛絲メリヤス仕入專門
丸京大阪支店
電話北六一五二番
振替大阪二八八九八番
本店 咸北城津旭町

大阪市浪速區稻荷町二丁目一〇九
公認
大阪朝鮮藥業組合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ノ二
自轉車用 サドル用 皮革小物及 金物類
朝倉製作所
電話櫻川一八六九番

大阪市西成區津守町一ノ七三
東亞紙袋合資會社
李日新

高麗人蔘の內地普及販賣機關
開城人蔘內地宣傳配給所
大阪市北區南揚町五
電話北六〇九一番
振替大阪八〇〇六番
（月給進呈）

大阪市西成區鶴見橋通七ノ四（朝鮮人市場內）
綢緞綿布 セル通信 都散賣業
朝鮮商會
主 趙明三

大阪府布施町服部
日鮮寺
布教師 鄭永達

大阪市西成區長橋通七ノ四
共成造花製作所
主任 梁寬杓

大阪市西成區北開町四丁目五
理髮
民衆館
主 張三釆

大阪市浪速區立葉町一三一五
人蔘鹿茸 漢藥材 其他補材
濟衆堂漢藥房
夫應文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四丁目七一
東華堂漢藥房
金惟玘

大阪市浪速區櫻川四丁目
米穀 問屋
張在寬

大阪市西成區南開町五丁目七
晝間寫眞 電氣寫眞 宇內寫眞
大同寫眞館
主任 吳明涉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東五丁目九
但市バス今里ロリ萬歲橋停留所前
朝鮮佛教布教所
布教師 申慈月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六丁目一
製靴手製 用品 製造元
吉村商店
主 文乃洪

大阪市東成區中道本通一丁目一三
和漢藥種貿易 卸小賣商
普生堂藥房
金丙龍
電話東四五二九番
振替口座大阪二三六七番

大阪市港區四條通四丁目四七
李時炯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四丁目一六
高橋護謨工業所
高斗吉
電話天王寺三一五二番

大阪市東成區中濱本通二丁目六二
綢緞 綿布 商
康斗完

大阪市大正區北恩加島町五六番地
雜穀商
金禎喜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三丁目一二
仁壽診療院
院長 吳仁哲

大阪市東淀川區本庄川崎町一丁目二七（天六下車）
濟南堂藥房鍼療院
金昌鎰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一丁目八番地
綿布 綢緞
光成商會
主 金光秋

大阪市東成區鶴橋北之町一丁目一五二
バンド各種、自轉車シヤタイ、及金屬物
松下製作所
主 朴聖祚

西淀川區大和町五一二番地
靑年會會計 同愛會會員
李默甲

大阪市大和田郵便局東一丁入
センマイ
池田牛肉店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四ノ四
官許藥種商 漢方漢藥 天命特製藥
普明堂藥房
元益守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八
眞宗寺院主
金且奎

大阪市東淀川區長柄中通一ノ一四
各種印材製造 學生帽子原料 絹紗セル 洋服 人形 ハキレ 各種
秋山商店
主 秋山政雄
本籍 全南求禮郡艮文面三山里
現住 大阪市東淀川區本川西之町九五
有隣生命保險株式會社本川代理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公設市場前
米商 北田惣太郎

酒醬油 乾物商主
鄭鳳早

大阪市東成區腹見本通五〇八
朝鮮佛教布教所
布教師 吳漢日

大阪市東區淸堀町三番地
朝鮮佛教禪宗大阪布敎所
布教師 劉南俊

大阪市北區池田町十一番地
高麗醫院
職員一同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丁目三二
北大阪朝鮮佛教所
布教師 金仁培

大阪市西成區津守町四四八
布教師 金德祐

大阪市浪速區榮町四丁目三八
東亞製革社
林正業

大阪市淀川區本庄中通三丁目九
製紙原料商 谷山彦一 康成玉
電話北八一九三番

大阪市西成區長己通三丁目八
金鍾業

大阪市西成區玉出町田端通五丁目一四
崔鳳基

大阪市浪速區榮町二ノ五三
自動自轉車 ゴム糊塗皮 革塗用消皮 販賣商
中村商店
主 吳斗洽

大阪市浪速區立葉町一二九二
和漢藥 醫藥品 賣藥 化粧品
平和堂藥房
主 夫基善

大阪市西成區旭南通四丁目一〇
旭南理髮館
劉萬石
金長淵

大阪市東淀川區本庄川崎町三ノ二四
愛善協會役員一同

大阪市西成區南開町四丁目九
特殊ナット專門 製作販賣
福本製作所
電話櫻川六二三二

大阪市北區北同心町二丁目五五
詔羅親友會大阪總本部
會長 朴春基

大阪市北區與力町二丁目一五番地
日鮮料理 慶興館
主 李慶元

大阪市浪速區榮町四丁目一四
紳士用 婦人用 子供用 各種雜貨
房本商店
主 房熙彥

大阪市東淀川區中津南通四丁目四一
酒醬油小賣 海陸物產 食料品各種
大山商店
主 鄭祿生

大阪市東淀川區豐崎西通二丁目一番地
製紙原料商 中山伊三郎商店
主 全漢龍

大阪市北區北同心町二丁目五五
詔羅親友會大阪總本部
副會長 蔣聖柄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丁目八四
中央スプリング製作所
電話福島(45)四三八二

本籍全南務安郡雲巖面牧東里
大阪市東淀川區三國町九五二
山田理髮館
主 申三烈

大阪市東成區東小橋北之町
槿花幼稚園長 槿花女子學院長
鄭一燾

大阪市東成區猪飼野西三丁目八四
漢藥種 公設市場 南大神倶樂部西
春軒堂藥房
李壬善
李明相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五丁目三一
眼鏡 セルロイド 製造 卸賣
永陽商店
主 高重煥

大阪市港區抱月町三丁目二
蓄音器製造 販賣及修繕 各社レコード 付屬品
金仕烜商會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町四二七
朝日洋服店

西淀川區大和田町四四九 本町通り
新古道具 建具ふとん商 主 林源次郎

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五
大生堂漢藥房 金宗漢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三
金正業

日用食用商 青物
主 嚴明達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三
和洋家具 室內裝飾 製造販賣
是永洋家具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九〇
晋陽館 主 李文一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八
愛光社西大阪營業所
金笑天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三
土木業 金正郁

大阪市西區阿波座上通一ノ十
合名會社 友田商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八八
土木業 朴次岩

土木業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一六
土木業 曺仁九

大阪市西淀川區加島町
土木業 裴喆伊

西淀川區大和田町四四一クラブ市場內
ゑびす屋履物店

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八
梅月館主 金點伊

西淀川區福島町二四
阪神鍍金工業主 林登志雄
電話福島三七七五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三丁目五九番地
漢藥房主 柳昌宜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一六
朝鮮絹布 海陸物產 ゴム靴一式
鄭得模

西淀川區大和田町五二九
酒小賣業主 辛泰元

西淀川區大和田町六一八
朝鮮食料品店 姜鍾碩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內鮮同愛會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八八
鄭應章

本籍慶南固城郡下二面月興里
現住大阪市東淀川區山口町一三三
古物一切 各種原料
進興商店
主 崔龍漢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五丁目五三
各種製罐拔物抑物
金海鉞力製罐所
主 金顯水 金顯哲

大阪市東淀川區三國町九四二
商工大臣認可
朝日クリーニング工場
主 蔡大龍
電話三三三

慶北達城郡論城面黃青洞
大阪市北區國分寺町四十五
朝鮮料理 達聖館
主 徐世贊

朝鮮絹布 海陸物產 運搬業
李泰換商店
電堀一四八三番

大阪市東成區南中道町二丁目八一
朝鮮文印刷各種
精文社印刷所

大阪市東成區猪飼野中三丁目八
朝鮮人向 綢緞綿布 小賣
康錫範商店

大阪市東淀川區長柄中通二丁目三
漢方醫藥 皇城鍼灸
朴祺植

大阪市東淀川區長柄中通一丁目二十番地
詔羅親友會大阪總本部
金鍾大

大阪市北區與力町一ノ一六
申鳳三

大阪市西成區鶴見橋北通五ノ八
弘濟藥院主 尹倧赫

大阪市西成區南開町五ノ八
酒醬油 味噌 各種商
木村商店
主 崔奎祥

大阪市東淀川區十三木川西之町二丁目九十五番地
古鐵、古道具 古錫其他各種商
全斗基

本籍慶北義城郡春山面氷溪洞
現住大阪市東淀川區長柄東通二丁目二九
孫晋先

大阪市西成區北開町三丁目四
中華料理 金濟館
主 南榮熙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二〇
板ガラス商 森田萬次郎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一五〇九
權泰熙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二葉屋洋服店 韓性燮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新友組主 鄭熊不

大阪市西淀川區川上町五
鳴瀧ミシン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イセヤ酒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一七
崔小俊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一一
代書 金柄甲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一五
金明善

大阪市大正區北恩加島町七九
權寧弼

古鐵賣買 鄭大根
電話堀川二〇四七番

ハトヤ子供服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千舟大橋通り

大阪市大和田町五七六
金圓綸

大阪市東淀川區飛島町一九七
內鮮食料品商 白賢植

大阪市北區堀上江町九丁目五三
鷄林協會 權五信

大阪市西淀川區浦江北二丁目五六
製紙原料商 高五福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七六
裵奉集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一六
日鮮青物商店 金基容

大阪市北區入上江町九ノ五三
權五信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一一
布木商 尹基萬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一六
萬城酒場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古賀織物工場內 許碧九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麻田商店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上二丁目
三木繁治商店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咸昌藥局 尹柱洙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五二九
孔石連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六三二
土木業 李孟春

大阪市大和田第一小學校前
會我商店

大阪市大和田町五八八
巴山堂漢藥房 趙性璣

大阪市東淀川區國次町四四九
大塚惠

大阪市東淀川區天神橋筋八丁目三番地
綿布商 金濟培商店

大阪市北區善源寺町八丁目二九
下宿業 金奇守

大阪市西淀川區大和田町
朝鮮青年會一同

新市

平北新市
龜城酒造合名會社

龜城新市金融組合
監事 李義燮

龜城新市金融組合
評議員 金元柱

龜城沙器面新市
面長 朴致梧

龜城新市金融組合
監事 朴東赫

龜城新市金融組合
監事 許善行

龜城天摩面新音洞
新市金融組合
評議員 元致祿

龜城新市金融組合
評議員 李正煒

平北新市新市金融組合
理事 李約翰

龜城新市
白日現

龜城新市
中華料理 黃鶴樓
安應贊
妓生 金秋月

龜城郡天摩面塔洞
面長 朴成浩

龜城郡館西面昭湖洞
面長 李弘組

龜城司法書士
聯合新市支所
司法書士 李仲則

平北新市
沙器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平北新市
天保堂醫院

平北新市
淸水仲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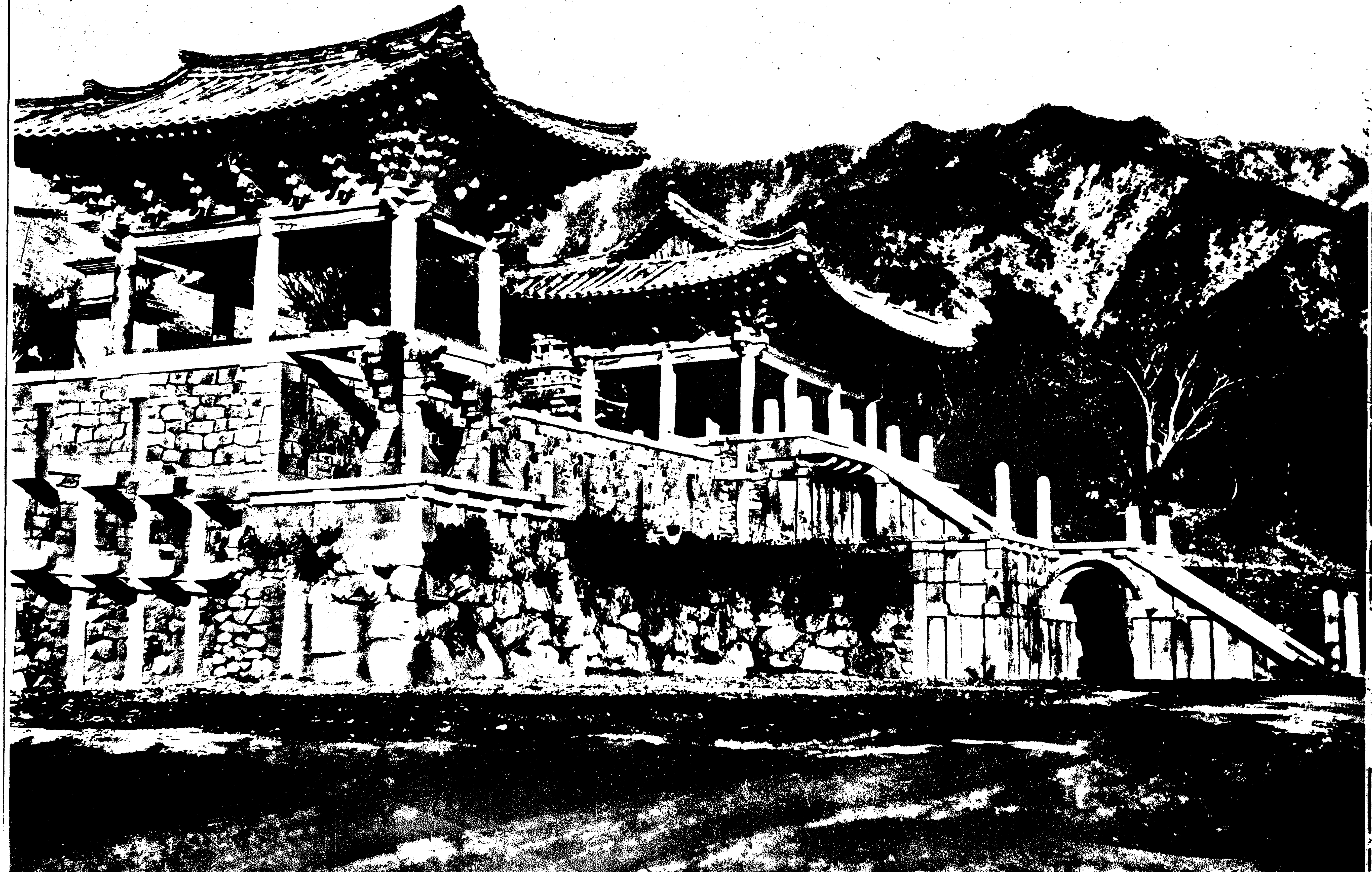
平北新市
濱田勇市

龜城新市
日新自轉車店 金仁杜

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白頭靈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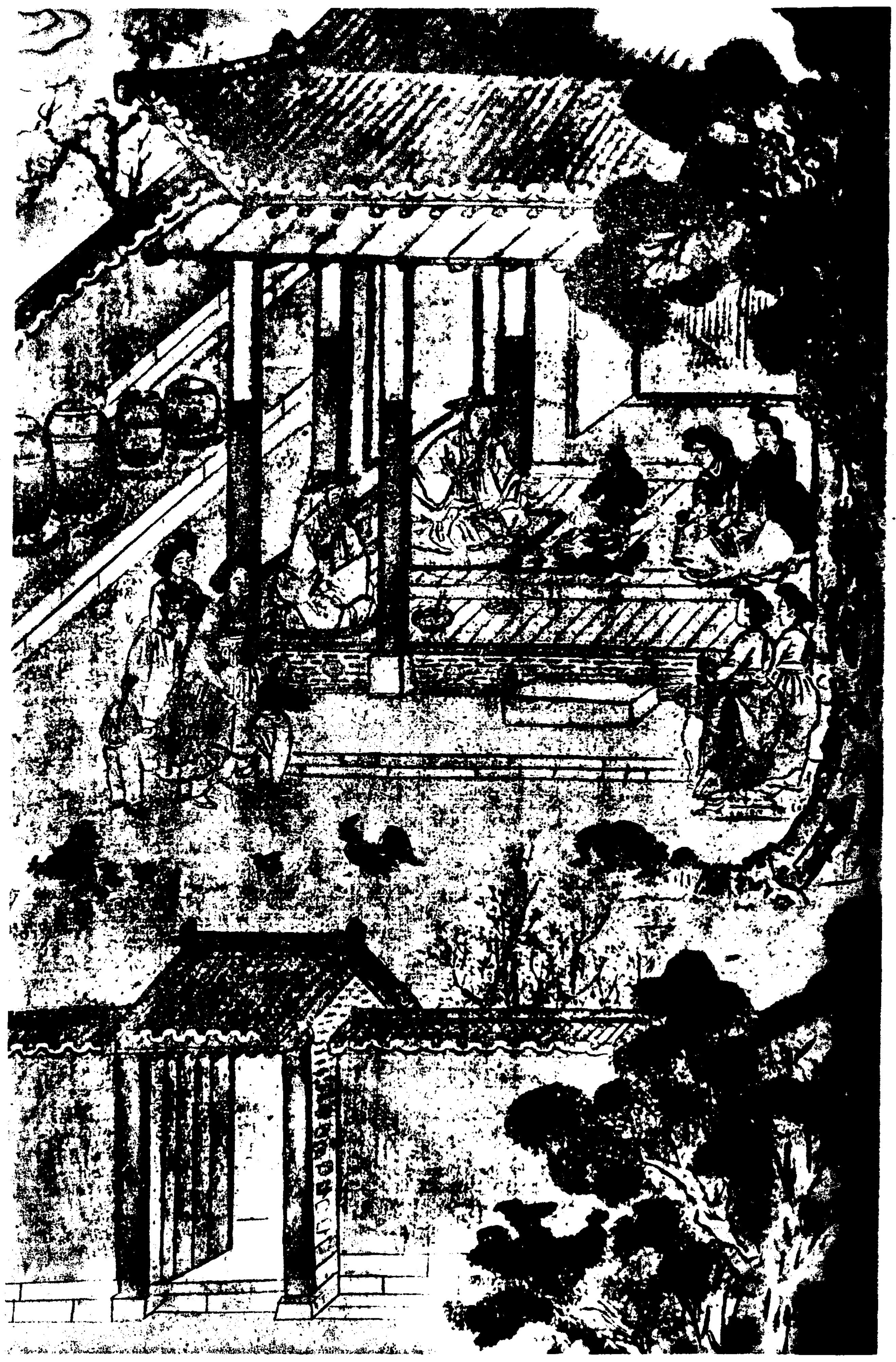
慶州佛國寺



朝鮮古 榮達

登科 御賜花가 노피 꼬치엇다。三絃六角이 響亮하다。새로 出世한 저사람、意氣가 果然 軒昻코나。

돌잡이 실을 먼저잡을까 돈을 먼저잡을까 첫돌의 기꺼운 날에는 다시 그아히의 一平生을 占치는 盛大한 式이 擧行되다。



翰閣 待敎(閣臣)아니면 翰林。位는비록 나즈나그보담 더한 淸宦이 어데잇스리。銀牌 金牌가 뜨는곳에 大臣行次도 무섭지안타。

結婚 紗帽角帶에 白馬탄 新郞은 方今 新婦ㅅ집으로 向하고 잇다。

李王職專

一生의 風俗圖

□ **道伯** 司令官도 嚴嚴스럽다만 쌍가마가 더부럽다。 平安監司나? 統制使나? 六判書三政丞도 다 고마두고 監司나 한번되야지고。

□ **大拜**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 무슨議政。 란것은 宰輔子요 벼슬 것은 邑宰號。 저분은 一人之下요 萬人之上이란다。

□ **宰列** 높다란 軺軒우에 저大監 어느大監?

□ **回婚** 內外분 다함께 七八十享壽하야 百福之源이라는 兩姓之合을 다시 한번 되푸리한다。

…館所藏

OKE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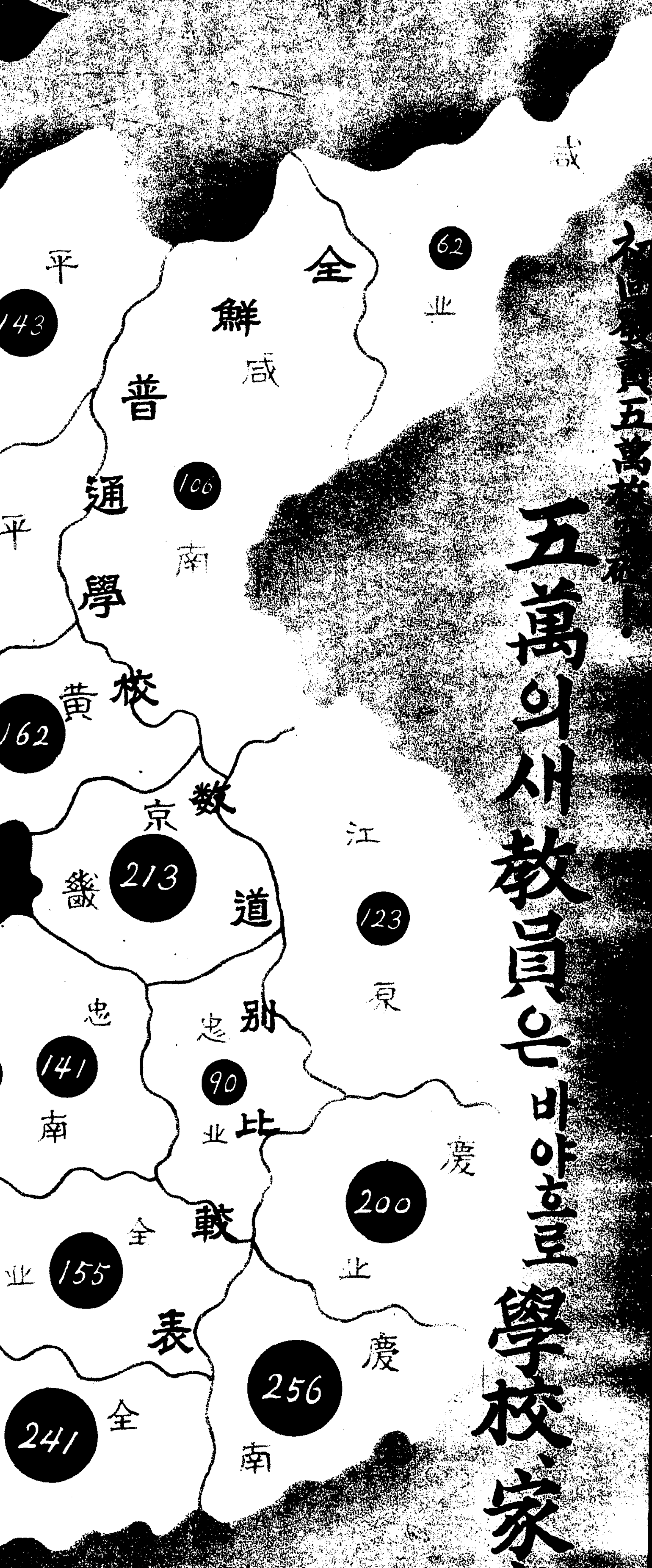
壯!! 오케ー

朝鮮語敎育레코ー드

朝鮮語文敎育界의太陽

全鮮普通學校狀況

學校數 百校
敎員數 一萬二百二十二人
兒童數 五十六萬二千九百二十人



朝鮮總督府編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自一卷至六卷吹込
(全十二枚一組美麗앨범付)

讀法指導 京城女子師範學校 沈宜麟先生
作曲及音樂指導 中央佛敎專門學校 朝鮮音樂敎育協會 李鍾泰先生
音聲指導 延禧專門學校 朝鮮音声学会 鄭寅燮先生
吹込 京城師範附屬普通學校兒童 京城女子師範附屬普通學校兒童 京城女子師範學校補習生徒 中撰抜

五万朝鮮語敎員大動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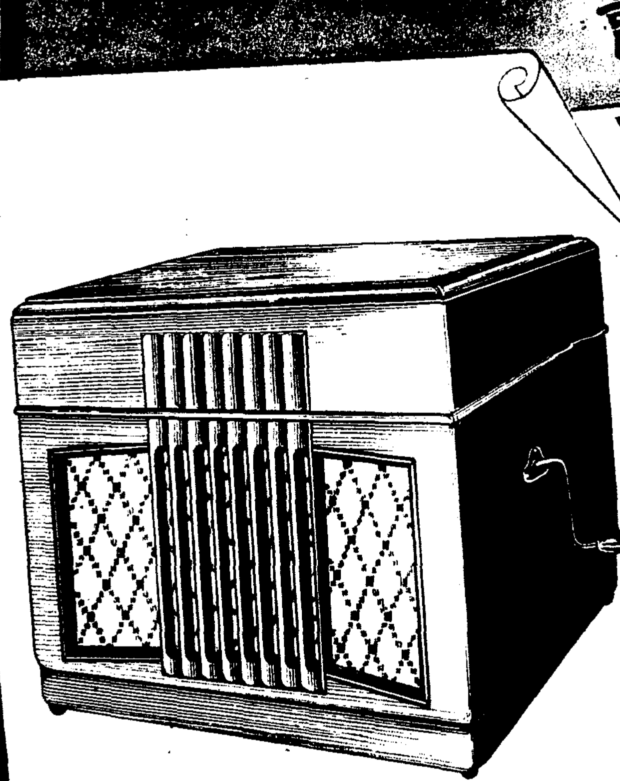
初等敎員五萬餘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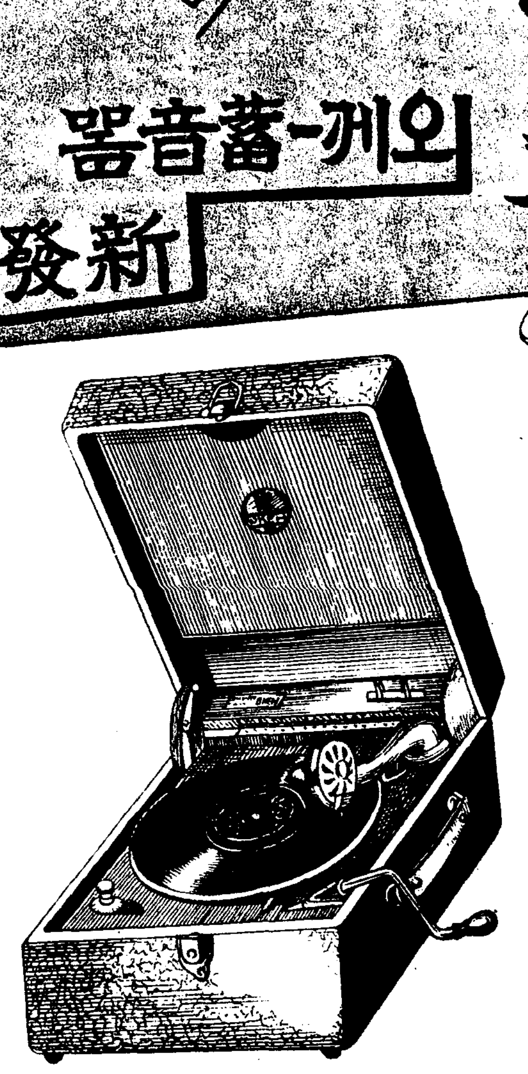
五萬의새敎員은바야흐로學校、家庭、街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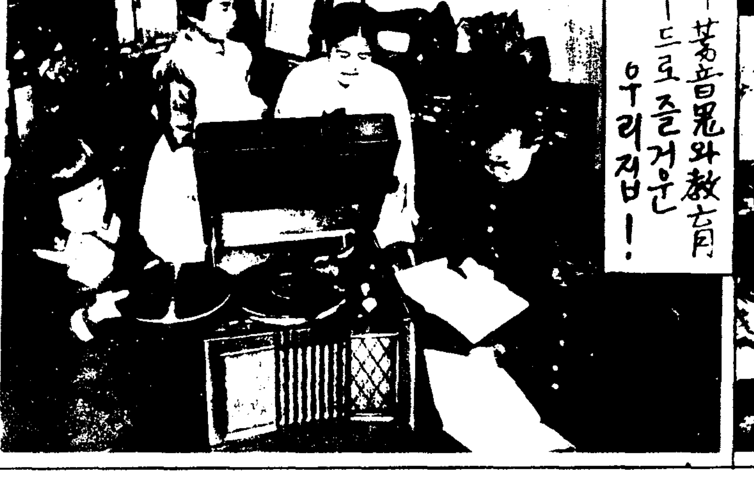
언파레ー드

全鮮오케ー特約店 發賣中

오케ー蓄音器 新發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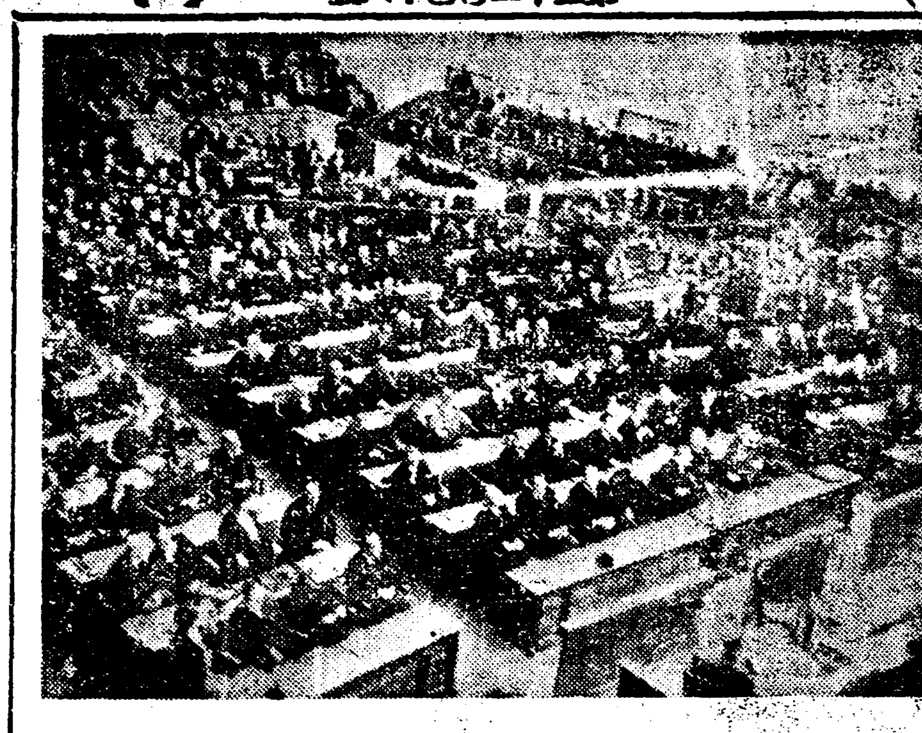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世界危機의黑點

國民主義的激流와 戰爭脅威의增大

☆ 洪陽明

恐怖와 疑懼의 一九三五年은 큰일업시 危機의 大黑點을 通過하고 人類는 또다시 陰鬱한 一九三六年을 맛는다. 東에서 西에서 政治的經濟的으로 危機의 警鐘이 亂打된지 이미二年! 不安과焦燥는 現實以上으로 各國國民의 平和에對한 希望을 稀薄하게 하고, 戰爭에對한 것잡을수업는 幻想은 主要國의 爲政者로하여곰 死의舞踏曲——軍備競爭의『챔피온』되기를 조곰도 躊躇하지안케하고잇다。

戰爭이냐? 平和냐? 이課題는 戰神『마ー스』가 新年에잇서서 人類에게 提議하게 내대는質問이다 이에對하야 明確히 解答할者는 하나도업슬것이다。一九三六年에는 戰爭이잇다。또는 戰爭이업다는等의 斷言은 그어느것이나 無意味한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 確實히 斷言할수잇는 解答이잇스니 그것은『戰爭의可能性은 一九三六年에잇서 그前年보담도 倍加되엿다』는것이다。왜 그러냐?

國際的連鎖의 斷切

첫재 一九三五年에잇서, 國際平和維持機構는 破局의假防뿐만아니라 그善後處置에잇서서도 全然無用의 長物이라는것이 證明되엿다。顯著한 例로서는『에디오피아』問題와 獨逸의 再軍備問題를들수가잇다

伊 太利가 誤算으로되엿든 어떠든間에, 에國을攻擊하야 困難한事態를 맨들기前에 國際聯盟에代表된 列强의 紳士들은『戰爭은必至라』고 異口同聲으로共認하면서도 聯盟은 이形勢에對應한 制動機로서의 役割을하게함에잇서 全然 束手無策하엿다 그뿐만아니라 伊軍의 大規模의 殺戮行爲가 開始된後에도 그들이 講究하려는 對策은『엇더케聯盟의 體面과 威信을 維持할가』하는以外에는 아모런 方策도 熱意도 업섯든것은 오늘까지 識者의 周知하는바이다。極東問題에 限하야는 그地理的關係其他로보아 西歐中心의 聯盟의힘이 미칠바못되다는것이 認定될點이겟지마는 적어도 數十의聯盟國인 文明國家가 마조비비대고잇는 歐洲에잇서서 歐洲平和機構維持의 大本營인 聯盟이 自己公約違反한 領土侵略行動의 來襲을 防止케못되다는데 니르러서는 國際的平和維持機關乃至 그러한 目的의 몃낫의條約도 戰爭防衛에對하야는 아모런 保障이못된다는것을 完全히 證明한것이라 할것이다 戰爭은 理論보담 先驗的인 絶對의것이된 셈이다。

獨 逸의再軍備에 對하야는 筆者는 그國家的生長力의 自然的衝動의 發露로써 보는見解에 追從하는者이다 그러나 그것은 國際平和機構의 正常한過程에서 評價한다면은 確實히 巨大한 破壞作用이엿든것임을 認否할수가 잇는것이다。獨逸의再軍備가 一方的으로 自主的으로 宣言됨에니르러 歐洲現狀維持契約書의 重要部分인『베르사이유』條約第五編을 完全히 空文化하엿다。力에依한 國際關係의 變革斷行과 破壞는 식그러운 外交交涉을 全然無視하고도 可能하다는것이 確認된셈이다。英獨海軍協定에依하야 英國이 獨逸의 再軍備를 旣成事實로 맨드는 保證人이된것은 錦上添花엿다 獨逸再軍備問題의 重要性은 그것이 歐洲現狀維持機構에 對한 脅威的인 火藥庫가되다는 現實的인點도 勿論重大하지마는 그보담도 歐洲現狀改訂에잇서 獨佛兩國은 全然和協的으로 折衝할 餘地가업다는것이 暴露된點이다。周知하는바와가치 獨逸의 對佛平等에依한 再軍備要求는 一九三二年以來 一般軍縮會議 五個國幹部會議에 反覆主張되여오다가 그것이 容認되지못함으로써 一九三三年에 聯盟을脫退함에이르럿든것으로 그後에도 英國을 通하야

佛 國側과 屢次折衝하얏지마는 一致點을 發見치못한結果 一方的으로 斷行하게되엿든것이다。그럼으로 英國이 로카르노條約에 依한 佛國의對獨安全保障에 구든言約을 다시하고 佛國을說伏하야 獨逸에어느程度까지의 均勢를 미리 認定하도록 斡旋하엿든들 이러한 違反的 事態는 니러나지 아니하엿슬것이다。그런데 英國은 그老獪한 大陸勢力均衡政策上佛國에 튼튼한 保障을 주지안코 獨逸에 秋波를건네는 態度를 取한 結果佛國은 獨逸의 均勢를容認치 안키로固執하다가 結局獨佛에 限하야, 今日과가티 軍事에 關한 無條約狀態를 나타내고잇는것이다。聯盟으로써보다면 獨逸의 再軍備를 合法的으로 追認하야 버리든지 그러치안흐면 條約違反으로 이른바『豫防戰爭』이라도하야서 그一方的인 行動을 制止하여야할 順序이다 그러나 聯盟은 그어느쪽일도못하고잇다。聯盟의 中心인 英佛兩國의 獨逸에對한 一致行動은 難事中의 難事이기때문이다。이러한 獨佛間의 依然한 無條約狀態가 再現된것은 歐洲는殘局 獨逸과佛國이 그武力을에떠하 左右할것이라는 未來의 戰爭을約束하는것이다。一方의 伊太利的으로 歐洲의어떤 나라하고도 그制限에잇서 無條約狀態로잇는 蘇聯赤軍의 巨大한脅威가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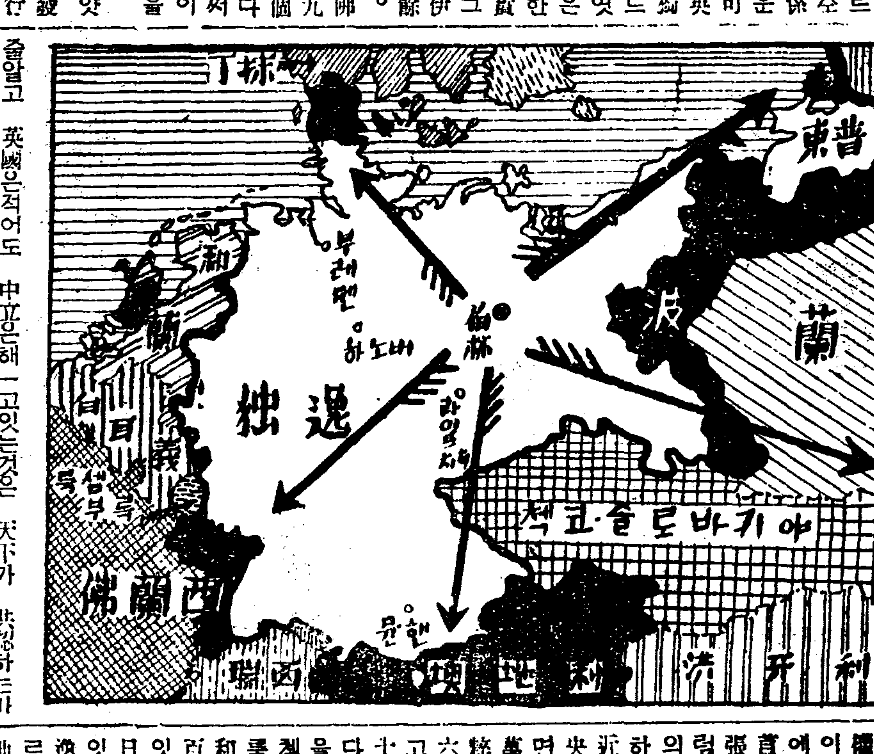
이리하야 오늘날 歐洲에는 六百萬의武裝兵士가 街上에서、國境에서 實戰狀態의猛烈한 演習에 沒頭하고잇는 狀態에잇스니 이러한平和에對한 保障이完全히 消滅되고、國際的平和의 連鎖가 完全히 切斷된狀勢下에서 戰爭의 可能性이 充分하다는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一九三五年末의 倫敦海軍軍縮會議가 決裂의 危機를包藏한재로 핑게조켓『크리스마쓰』休戰로 드러간것은 一層 이 危機의成熟에 拍車를 加하는者이라할것이다 그러면 戰爭의 危機에對하야 먼저 點火될可能性잇는火藥庫는 世界의 어데에노혀잇는가。

危殆한 況局上의 興奮狀態

歐洲의 火藥庫獨逸

歐洲에잇서戰爭의 脅威가잇다고볼수잇는 가장可能한 黑點은 獨逸과 伊太利를 中心으로하야 그릴수잇다 伊太利의 獨裁首相은 獨逸이 一九一四年 佛露와의 써ー비아』에對하야 開戰할때에伊太利는 同盟國의 義理를 직혀줄

피아』侵略을 開始는하여노코只今갈팡질팡하고잇고 獨逸의『히틀러』氏는 아즉實力이 不足하기때문에 隱忍自重하야『平和外交』의 假面을쓰고잇지마는 後者히틀러氏의 汎獨主義가 오늘날歐洲平和의 致命的脅威가 되



不足한『專制的』國家이 그가운이다、恒產이 잇는사람은 구태여남과 是非를 이르키기를 願하지마는 恒產이업는 사람은 冒險的이기쉬운것과 한가지로 獨逸과 伊太利의 두國家는 그國民的膨脹力을 領土擴張으로써伸長하려는 强烈한 意欲을 統一된力의 政治인 獨裁主義의 政治樣式으로써 表現한셈이다、伊太利는 이미東阿에서 事端을 이르키고잇지마는 獨逸이早晩間그 失地를 恢復키爲하야 突進할것은 그政治體制上宿命的인 事實로 보는것이 普通이다。『달려랑』氏의 指摘한바와가티 民主主義國家에 잇서서는 그爲政者가하고 안다는바를 人民에게무르면 고만이지마는 旣成政權을 奪取하는 形式으로써 成立되는 專制政府=獨裁者의 政府를 말함=는、人民에게、競爭의일을 할수잇다는것을 表示하지안흐면 人民으로하여금 그政權의 存立에 疑義를 품게할念慮가잇기때문에 獨裁者는 그性質上 政治的冒險을 할運命에 노혀잇는것이다。

氏니리솔뭇

第 三帝國建設을 내거는 獨逸의 獨裁者히틀러氏가 汎獨主義로써 歐洲의 覇權을 確立하려는데 戰爭의 危險이 노혀잇는것은 獨墺合併運動에 『메멜』과『나치스』의『돌프스』墺首相暗殺『잘』人民投票 當時의緊張을 想起하면 足할것이다。그렁으로 歐洲의 大黑點은 伯林의『뷜헬름』슈트라세』를 中心으로하야 그리는것이 當然하다 最近 나치스政府에서 製作한 中央歐羅巴의 言語地圖라는것을보면 全歐洲에는 八千五百二十六萬三千名의 獨逸語를 말하는 純粹獨逸民族이 사는데 그中 約六千五百萬人이 獨逸本土에 살고 나머지 二千餘萬名은 約二十餘國의 他國領土內에 살고잇다는것이다。그리고 그中 獨逸을 除한 十個國 即 墺太利、瑞西、佛國、波蘭、단치히、룩셈부륵、白耳義、리트와니아、和蘭、丁抹의諸國은 合計一千六百七十四萬餘名의 地理的 連結잇는 獨逸語國民에 依하야 今日의 獨逸本土와 國境을 接하고잇다는것을 表示하고잇다 이獨逸本土外에잇는 初獨逸領土(베르사이유條約에依하야 割讓된諸地方)住民과 또他國內에 居住하는 獨逸人 第三帝國의臣民이 되고십허하고잇는지 실혀하고잇든지는 斷言할수가 업지마는 一九三五年에 行한『잘』人民投票結果外와도、단치히와『메멜』地方의 選擧結果를 볼때 前者는 絶對多數가 [illegible]에 投票者는 絶對多數는 아니지마는 亦是 多數로써 獨逸本土에 復歸되는데 興味를가지고 잇는것은 否認할수가 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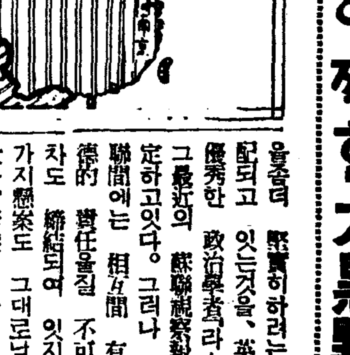
獨 墺合倂은 英佛伊의 阻止로 失敗하엿지마는『잘』을回收하고『단지히』自由市와『메멜』選擧鬪爭에 絶對多數는 占有치못하얏다고할지라도 第一位의 投票를 獲得한히틀러氏는、現在東部國境의 擴張에 注力하고잇는모양이다。그러나 그것은 墺國에對한 墺獨合倂策을 放棄하는것은아니다。나치스獨逸의 그리는 적은黑點은 먼저베르사이유條約에 依하야 일허버린메멜(리트와니아所屬) 단치히(聯盟委任統治)西푸로이센 及 上部실레시아(波蘭에所屬)알사스、로렌(佛國所屬) 말메듸(白耳義에割讓)슐레스비히(丁抹에所屬)로向하는것은勿論이지마는、이보담도 나치스獨逸의 大黑點은 波蘭을뛰여너머 蘇聯의 豊饒한領土우크라이나로 向하고잇다。『H・G・웰스』氏는 世界大戰의 戰端은 一九四○年『단치히』自由市에서 猶太系波蘭人과 나치스黨員間의 衝突로써 開始된다고 豫言하엿지마는 이것은 그가 大著作『將來할事物의 樣相』을쓴것은 一九三三年의일이기때문인듯하다。一九三四年末에 波蘭과 獨逸은 十年間東部國境의 現狀을 維持할『不可侵條約』을 締結하야 獨波의 協力으로 蘇聯의우크라이나를 侵入하야 [illegible] 大黑點인 [illegible]과『단지히』[illegible] 收回國爭을 蘇聯으로 防禦하자는 이른바『로젠베륵』氏案은 決定하얏다。따라서『웰스』氏의 豫言은 [illegible]일것이라할것이다。

蘇 聯과 獨逸은 東部國境의 領土對立을 업시하자는로젠베륵氏案은『볼쇠비즘』에 對한 狂信的 敵愾心을가지고잇는 히틀러氏의 政權이 存續하는限、歐洲에잇서서 가장큰 黑點이될可能性이잇다할것이다。

◇

나치스獨逸에 關聯된 黑點推移에 發火될 可能性은 나치스獨逸의 再軍備의 進行에따라漸次濃厚하야온다、이러한 冒險에對한 唯一한制動機가될것은 佛國을 中心으로한 現狀維持派의 軍備의 强化以外에는 아모것도업다。聯盟도條約도 다事後에도 無効하다는것이 證明된오늘 이結論은不正當하다고할수업슬것이다 軍備에對한軍備의競爭! 死의舞踏曲이 開始될때에 어떠한 黑點에서나 偶然히 發火만된다며는 그것이全歐洲를 砲煙彈雨下에 모라너코 말것이다 一九一四年의『써ー비아』의 一靑年『푸린집』이點火한『사라에보』의 一發銃聲을想起하면 今日과가튼 歐洲의情勢에잇서 나치스의 突進的國民主義가 條約따위로 阻止되지못할것이 明白한以上 戰爭의 可能性은 否定할수가업다할것이다。

極東에찌힌大黑點



도리켜 極東을 살펴보면 이곳의 黑點은 歐洲의 그것보담도 一層 그規模가크고 그範圍가넓다 黑點의한重心은 國民的膨脹力이 世界의 엇던한國家보담도 强烈한 日本에서 滿洲國을거처 北으로버친 北中外蒙古를 包含하고 달은한重心은 赤都莫斯科에서 軍備의鐵鋸를 이른極東 蘇聯特히 沿海州에直하야 그려진다。

滿 洲國을 接觸點으로한 日本과蘇聯의 對立은 그國體의 根本的相異、그莫上莫下한 精銳한 軍備에依하야 그것이 發火되는날은、人類가일즉經驗치못한 猛烈한 禍端을 이룰것이다。그러나、蘇聯의指導者들은 口號뿐만이 아니라 事實에잇서서도 戰爭을廻避하고 國內建設을좀더 堅實히하려는 熱望에支配되고 잇는것을、英國의 가장優秀한 政治學者라스키敎授도 그最近의 蘇聯視察報告에서 認定하고잇다。그러나 日本과 蘇聯間에는 相互間 有事時에 道德的 責任을질 不可侵條約 조차도 締結되여 잇지안코、여러가지懸案도 그대로남어잇는것이 만타。衝突되지안흐리라는 如何한保障도 아즉發見치못한다고할수밧게업다。그러나 日本은 滿洲國의指導、北中經濟發達等의일이 만흔오늘 반다시 蘇聯과 事端을 이르킬 特別한理由가 發生되지안는限 이에攻擊을加할必要는업는것도 現在狀態에서 내릴수잇는 結論이다。그러나 相互理解가 不足한 兩個國家가 一定한地域에 蟠居하는限은、『不測의事態』에依하야 不幸한事態가 惹起되기는至極히 容易한일이다。日中關係에 對하야 또한中國을 中心으로한 列强의 日本에對한 對立的關係는 倫敦會議의 今日까지의 無爲無策과 明確한 決裂豫想으로써 나타낫다。그러나 極東事態의 將來에對하야는、아즉 무엇이라고 筆者는結論을 내리기는 爲先그만두기로한다。

平和機構의危機

正義의相反性과 安全保障의破滅 ①

金翰容

最近 一二三年間의 國際政局의 推移는 實로 複雜多端한 局面을展開하야 國際紛爭의 數도 一二에 끈치지안코 또 그것이 包含한 重大性 乃至 危險性에 잇서서도 甚히 憂慮할바가 적지아니하야 이것이 언제에 어떤 局面에 부듸처서 國際平和를 根底로부터 뒤집어 노흘는지도 알수업는 不吉한 徵候를 보이고잇다。墺太利獨立保障을 中心으로한 다音諸問題、獨逸의 再軍備宣言、메멜問題、伊埃問題를圍繞한 列强의動向、極東事態의推移等等은 이것을 證明하고 잇지안느냐? 이제 우리가 이러한 個個의 紛爭이나 事件에 對한 具體的事實을 論議할餘暇가 업거니와、이러한 一聯의 問題가 不絶히 發生하는데따라 國際秩序維持를 困難케하고 國際平和를 破壞할 危險이 加重되고잇다는것은 否認치못할 事實일것이다。아니 一步 進하야 생각한다면 事實로는 國際平和는이곳저곳에서 벌서 破壞되어이른바平和機構는 根底로부터動搖하기 始作되엿다고 보는편이 妥當할것이다。列强이 全非常力을 傾倒하고 잇는것은무엇이엿가? 如何히 하여야 이破壞되려는 平和機構를 危機에서 救할수가 잇슬가、또한 그러케함으로써 이現狀을 維持할수 잇슬가 하는것이 그들의 注意의 焦點이오 努力의 中心이다。果然 列强은바야흐로 平和機構의 頹廢에汲汲한 現狀이다。

그러나 平和機構가 重大危機에 瀕하엿다는 事實은 이미 全世界가 共認하는 바이자면 旣知의 事實이다。이제 구타여 이것을 뒤푸리할 必要를 認定치 안는다。우리는 이機會에 오히려 平和機構의 意義를 다시한번 考察하는同時에 現存한 平和機構의 어느곳에 缺陷과 矛盾이 잇서서 그缺陷과 矛盾의 發露로서 現在의 諸紛爭事態를 現出케 되엇는지를 究明하는 同時에、終乃 現存한 平和機構는 破壞되고야말것인지 그將來에 對한 豫測을 내려보는것이 意義잇는일일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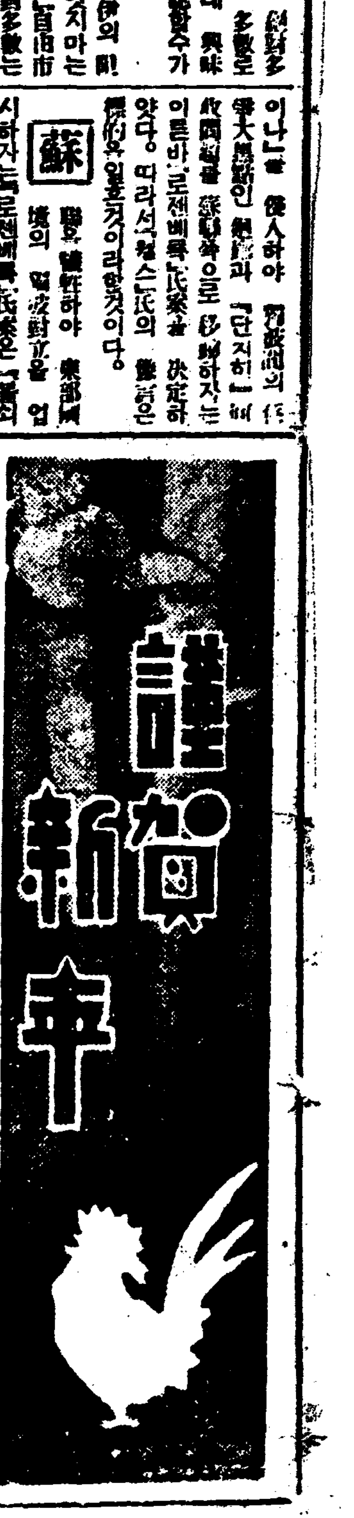
◇

平和機構란 무엇을 意味하는것이냐? 簡單한 一語로 答한다면 國際平和를 維持하기爲하야 關係잇게 組織된 한機構、即 國際法團體의 秩序를 維持하기爲한 機構를 이름이니、흔히말하는 國際安全保障機構는 곳 이것을말함이다 이러케 본다면 現存한國際平和機構는 곳 베르사이유講和條約을 基礎로 組織되된國際聯盟을 中心으로한 國際法團體의 組織과 및 그延長을指稱한다고 할수잇슬것이다。이國際聯盟이 現在에 잇서서 그內在的缺陷과 最近 國際政局의 急激한 變動으로 그無力을 如實히 暴露하고 그威信이 餘地업시 墜落되엇스나 國際平和와秩序를 目的으로 組織된 集團的國際機構로서 이와가티 規模가 크고 組織이 廣汎하고 또實質的이오 積極的인 組織이라는點으로보아 史上에 그類例를 들수업는바이니『人類의奇蹟』이라고 禮讚할만도하며 또 조호나인잔호나 爾來十有餘年 동안 世界 아니 적어도 歐洲政局의 根幹이되어 그것을支配해온것으로보아 그歷史的意義는 到底히 忘却할수업는 바이다。

이와가티 聯盟은 國際平和의促進에 一大飛躍을 試하려고 組織되엿것이나 그것이 平和諸條約을 不可分의一로 그規約속에 編入한 結果 平和條約으로 制定된 政治的現狀을 維持하려는 機關으로 化하야、獨墺等 戰敗國에 對한 戰勝國一群의 制綱權을 確保하는 手段에 專혀 提供되게 되엇다。

이리하야 佛國及小協商諸國은 大戰後의 政治的現狀을維持하기爲하야 講和條約을 金科玉條로 이것을 遵守할것을 强調하는反面에 不合理한 條約으로 政治的不平等待遇를强壓的으로 밧게된 獨墺等 戰敗國은 이에 抗議하야 不合理한 條約廢棄와、國家平等權을 確保하기爲하야 抗爭을 繼續하는가운대 歐洲의 不安은 增大되고잇는터이다。軍備平等諸問題、墺太利擾亂、甚至於 伊埃紛爭으로말미암은 伊太利의 不平도 이로써 說明할수 잇슬것이 아니냐? 그러나 聯盟이 大戰後 人類가戰禍로부터 永遠히 벗어나려는 世界의 輿論과 윌손大統領의 遠大한 理想에 指導되어 組織되엇이데 米上院의 拒否로 米國이 不參加하야 그根本精神을 喪失하고 그後 蘇聯이 參加되엿스나 부라질、日本、獨逸、파라과이等諸國의 脫退로 그組織이 極히 微弱해진것은 勿論이어니와 國際聯盟機構가 國際關係에 民主的法的制度의原則을 確立하엿다고는하나 그統制的機能에 絶對的權力이 決코 잇는것이아니오 協力과『同意』로써 그成功을 期待하는데 不過한 組織이므로 그組織의 主眼인國際紛爭의 處理와 平和組織과軍備縮少의 達成이란 三大目的도 착가튼 成功을 期待할수업는것은 過去의 幾多의事實이 證明하는바이다。(續)

(漫畫는伊國의違反行爲를 諷刺한것)



商業銀行 朴榮喆

漢城銀行代表取締役 堤永市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會長 矢鍋永三郞

◉朝鮮運送株式會社 京城府古市町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朝鮮放送協會

株式會社 朝鮮取引所 證券取引員組合

株式會社 大澤商會 京城支店 京城本町一丁目三十九

シエロン蓄音器會社 京城府本町二丁目

若草映畵劇場 岡本淸次郞

軍縮會議의幻影

洪駿卿

(카트는 倫敦海軍軍縮會議가 開催된 英國外務省內클라렌스·하우스

클라우세빗츠의 名言과 가티 外交는 平時의 戰略이다. 그中에도 軍縮外交는 더 한層 그러하다. 孫武子의 敎訓을 듯건댄 干戈를 빌지 안코 이기는 것이 戰爭의 最上乘이라고 한다. 왜 列强各國이 軍縮을 에워싸고서 口舌의 다툼을 일삼느냐하면 거기는 砲烟彈雨의 白兵戰아래 雌雄을 決하려는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업는 勝敗의 利害를 가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서 大戰以後 오늘날까지 列强各國이 가지고 外交의 中心題目을 삼아서 苦心費精 그對策을 講究하기에 이른 것도 한갓 無理가 아니다. 그뿐이 아니라 一九三三年 녀름 世界經濟會議가 失敗되엿以來 金本位問題니 戰債問題니 모든 重大한 問題를 未解決 그대로 放棄하는데 不拘코 오즉 軍縮問題만은 아즉것 會議에 會議를 거듭하야 그 最終의 解決을 達成코자 서두르고 덤비는것도 실상 不得已한 노릇이다. 勿論 그러타고 해서 軍縮이 成功되리라고 보는 것은 넘어나 早計의 말이니 위선 軍縮會議가 열닐때마다 그 當局者들로서까지 樂觀보담은 悲觀의 結論을 더 만히 듯고 잇지 안한가? 아니 애當初에 金本位나 戰債가 틀린데도 列强의 協調가 不可能하얏거니 軍縮에 限해서만 엇지 그 協調의 達成을 企待할 수잇는가? 지금에 잇서 軍縮은 一個의 幻影이다. 魔術師가 아닌以上 이 幻影으로부터는 아모러한 結實도 生産시키지 못할 것이 儼然한 事實이다.

◇

그런데 大戰以後 우리는 맷번이나 軍縮의 成功을 經驗한일도 업지안타. 첫재는 벨사이유條 平和條約으로써 獨逸에 對한 一方的軍縮을 制定한것이요 둘재는 華府 倫敦의 두 海軍條約으로써 列强各國이 互相의 軍縮을 制定한것이다. 獨、墺의 軍縮은 一方的軍縮은 戰敗者로서 戰勝者에 對한 屈服을 意味하는 强制軍縮 이러니와 列强 互相의 軍縮은 그와 全然 性質을 달리하는 協調軍縮이다. 오늘날의 軍縮 問題는 協調 軍縮으로부터 一步도 더 나아가지 안한 것으로서 決코 强制軍縮의 類가 아니다. 그러타면 華府 倫敦의 兩條約과 가치 今後에도 協調軍縮이 또다시 成功되지 안하리라고 그 누가 斷定的으로 斷言하는가? 적어도 軍縮을 그대의 말과가티 單純한 幻影이라고 一筆에 抹殺하야 버리기는 어렵지 안한가? 이것은 當然한 質問이다. 나는이 質問을 爲하야 몬저 華府 倫敦의 兩條約이 成立된 그當時의 世界情勢를 究明하고 그다음 오늘의 世界情勢를 期間 對比研究키로 한다.

大戰後世界情勢

(一) 世界再分割이 이미 끗난뒤 伊太利와가티 거긔對하야 極度의 不滿을 품은 나라도 업지는 안하얏스나 그以外의 各國이 大槪 그 程度로서 自重한것。

(二) 大戰의 犧牲를 回復하기 爲하야는 財政的 安定을 切實히 늣기게 된 것。

(三) 大戰直後 各國內 人心騷亂을 防止키 爲하야는 列强各國의 協調를 不得已케 한 것。

(四) 그래서 多少 自國에 不利한 點이 잇다손 치더라도 財政上 國內의 人心收拾上 再次戰端을 열기에 大膽히 못하얏든 것。

勿論 그아무리 協調軍縮이라고 하더라도 다각각 損得이 다르고 그 損得의 差가 생기지 안할수업스니 强制軍縮보다는 程度가 弱하나마 그역시 언(?)한편에 對한 다른 한편의 屈服이 업시는 成立되기 어렵다。華府 倫敦條約에 잇서서는 英國에 對한 佛伊의 屈服 米國에 對한 日本의 屈服 乃至 多年 世界海上의 覇主이든 英國이 米國과의 同率을 承認한 點에 잇서 米國에 英國의 屈服을 意味하건만 大勢의 所致로 다各各 그 屈服을 참고 그條約을 承認키에 이른 것이다 그래도 그當時의 軍縮은 오즉 海軍一元에 限함뿐으로서 獨墺에 對한 强制軍縮과가티 陸海空軍三元에 亘치 못하얏다。그것은 海軍이 陸軍과 달러서 縮少의 範圍를 定하고 또 그 縮少의 實蹟을 互相監視하기에 조타는 것도 한 理由를 이루겟지만은 그보담 軍縮의協議가 甚히 힘든다는 것이 더 큰 理由를 이루리라고 생각한다.

現下의世界情勢

(一) 世界恐慌으로 因하야 팟쇼政治와 블럭經濟가 强行軍縮을 하는 同時 各國에서는 世界分割의 野望이 또다시 불타고 잇는것。

(二) 나치스獨逸이 벨사이유條約을 無視하고 再軍備를 斷行한것。

(三) 列强各國의 勢力關係의 變動으로 일즉이 承認한바 屈服的條件의 校正을 强硬히 主張하는것。

(四) 世界恐慌으로 因하야 民衆의生活이 不安定한것을 他國에 對한 敵意로 轉換시키고자 戰爭意識을 高調하고 잇는것。

勿論 一方 蘇聯의 存在가 漸漸 뚜렷하야 지는 것과 世界恐慌으로 因한赤字財政의 膨大가 列强各國의 다가튼 脅威를 이루는 것은 事實이나 尖銳 그互相의 對立이 그 脅威로서만은 緩和되지 안는 모냥이다。그래서 米國의 對蘇聯承認 佛國의 蘇聯親善도 나오고 그래서 東亞의急한 風雲과 伊에兩國의 殺伐도 나오고 또 그래서 華府倫敦兩條約의 破棄도 나온것이다。이러한 情勢아래 잇서 새로운 海軍縮少를 어떠케 成功시킬 수 잇겟는가? 한個의 幻影이 아니라면 果然 그 무어일까?

×

그러나 列强各國의 政治家들도 저마로 다 聰明한 사람들이어니 軍縮이 幻影되는 그眞의 理由를 모르고서 捕風捉影의 헛수고로만은 會議를 흘리고 예를들리가 업다。그뿐이 아니라 昨年六月 英獨海軍協定이 成立됨에 따라 一時軍縮前途의 光明을 誘導한듯이 觀察된 일도 업지 안타。그로 보아서, 그래도 軍縮에는 一縷의 希望조차 全然 업슬수업다고는 斷言하기 어렵지 안할까? 軍縮이라는 幻影으로부터도 혹시 實質的 結果가 생길는지 누가 안는가? 이역시 잇슬법한 疑問이다。나는 이疑問을 풀어주기 爲하야 좀더 軍縮國들의 複雜한 關係속으로 들어 가게 되얏다。

各國主張과決意

(一)日本。比率의 差等을 撤廢하고 兵力의 限度는 縮少하야 조타는것。

(二)米國。比率를 조금도 修正하는 데까지는 首肯하나 全廢는 不肯하고 現有兵力의 二割을 削減하자는것。

(三)英國。比率主義를 撤廢하는同時 建艦宣言의 形式으로서그比率과비슷한 程度의 差等을 세우고 艦型備砲를 縮少하자는것。

이것은 再昨年 겨울의 豫備會商과 昨年겨울의會議를 通하야 본 三國의 意見對立이다。比率에 對한 日米의 根本的對立에 對하야 英國은 形式上 日本에 加擔하고 內容上 米國에 가차움을 알 수 잇다。그러나 表面에 들어난 各國의 對立 그것은 그다지 重大한 것이 아니다。그보담은 軍縮에 對한 各國의 決意가 더 重大하지 안할까한다。

軍縮會議에對한各國의決意

(一)日本。對米의差等比率은 形式上이던 아니라 內容上으로도 絶對 願치 안는다。再昨年겨울에는 風說이라고 하지만은 英國의 優位를 甘受하야서 對米同率을 提議하얏다고까지 傳하얏다。

(二)米國。現在比率을 絶對固執한다。昨年겨울 上院外交委員長 피트만氏는 東洋의 問題를 이끌어 英國을 恐動시키는同時 英米의共同工作을 主張하얏다。

(三)英國。自國의 有利한 立場을 利用하야 日米의 折衝으로서 漁父의 利를 取하나 그 折衝이 困難한것은 勿論이다。

이와가치 强硬한 各國의 決意는 다各各 그나라自體로 하야금 軍縮의 達成을 거의 絶望에 떨어트리고 잇다。비록한동안 伊에事件으로서 다른 겨를이 업섯다고는 하겟지만은 그러치안하얏든들 全然 問題삼지 안하얏다 以後 再昨年겨울 豫備會商가 華府倫敦兩條約에 依한 會議再開의 規定을 직히느라고 昨年겨울에 와서 겨오 會議를 열도록은 되지 안하얏슬 것이라고본다。그러타면 軍縮會議는 왜 開催하는가? 그 秘密을 公開하야 주어야 할것이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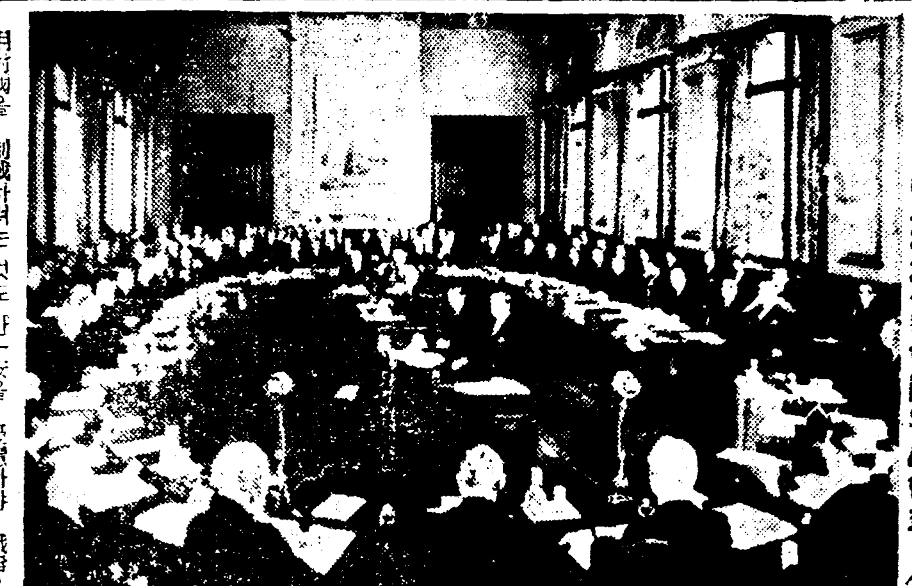
會議開催의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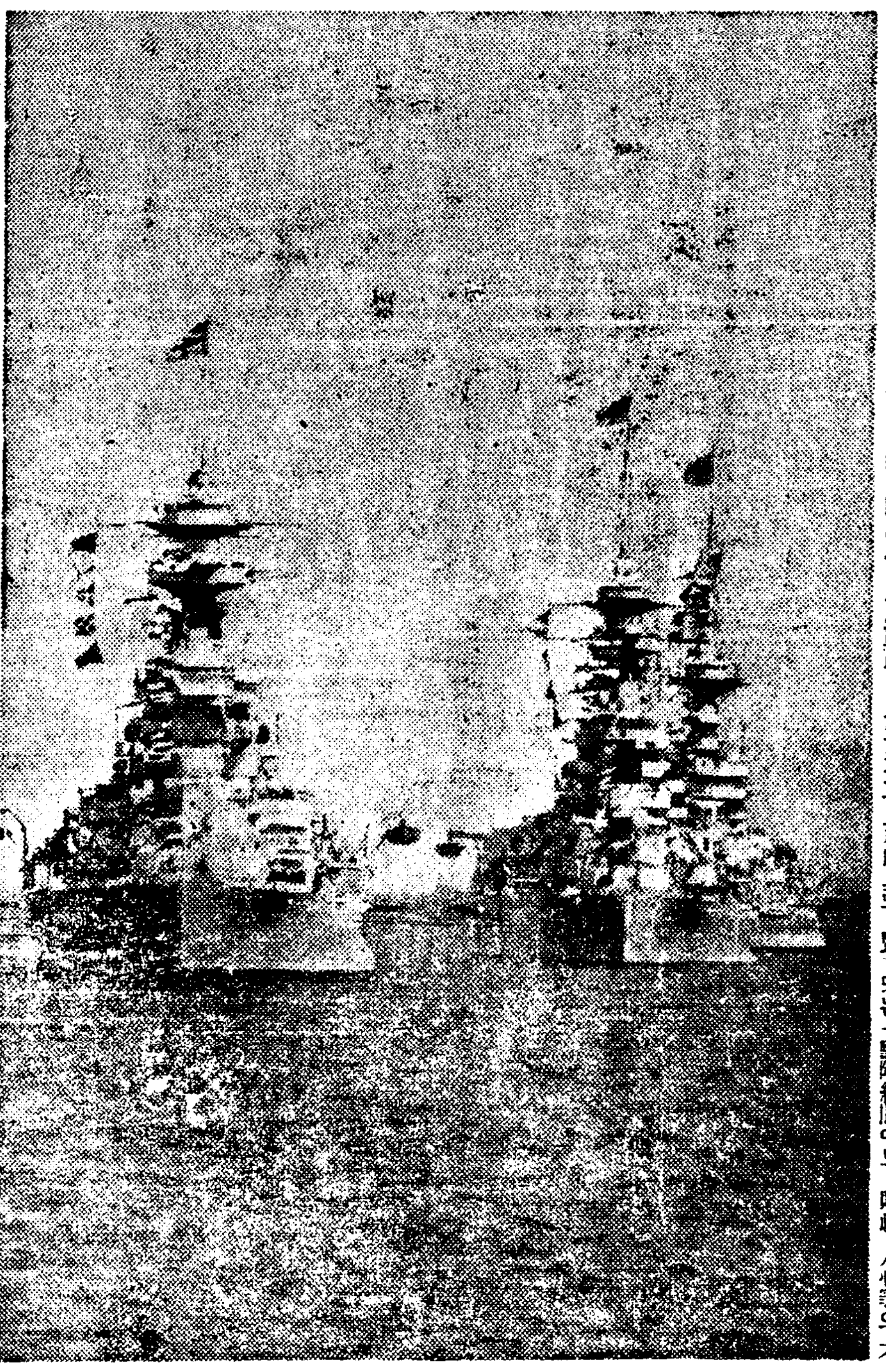
(一) 軍縮에 對한 無誠意를 自國이 지지 안코 딴나라에로 轉嫁시키려는 것도 한 條件

(二) 軍縮會議席上 遺漏實質의 外交로서 딴나라의成算을 엿보려는 것도 한 條件

(三) 軍縮會議를 機會로 第三國과의 緊密한 關係를 매저가지고 正面으로 對立되는 相對國을 制裁하려는 것도 한 條件

이 세 가지 條件以外에 또한가지 條件이 잇다。그것은 各國內支配階級間에도 財政 人心等의 不安을 考慮하야 戰爭을 廻避코자하는 一部가 잇슴으로써 그들은 隱然히 自國의 多少不利를 무릅쓰고도 軍縮의 達成을 願한다는 그것이다。그러나 팟쇼의 滔滔한 濁流아래 그들의意見을 正面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그들의 存在가 軍縮會議再開에 對하야 決코 重要한 條件이 된다고는 치지 못 한다。所定의 頁數가 다 차게 되얏다。이頁數의 制限아래 軍縮의 幻影을 證証한다는것은 좀 無理한 注文이겟지만 모르는것과 쓰지 못할것을 다 빼노코 더길게쓸 것도 별로 업다。끄트로 臨하야 다시 한마듸 더하고자 하는바는 軍縮의 決裂과 그以後의 世界的情勢다。지금 부터도 軍擴競爭이 업는것은 아니지만은 지금보담 좀더 그競爭이 熾盛치 안할까? 그結果는 勿論最後의 風雲으로까지 展開되지 안할까? 本來 軍備란 싸홈을 爲한것이니 決코 軍縮、軍縮、또 軍縮으로 繼續되야 갈것은 아니다。그러한 點으로 보아서도 조터 深刻한 意味에 잇서 軍縮이란 結局 幻影이 아닌가? 華府 倫敦의 兩條約의 그것도 오늘날에 와서 불때幻影으로돌아간것이 아니고무어인가?


◇…倫敦海軍軍縮會議의開會式…◇



大英帝國의戰鬪艦隊의威容

英國의 生命은 海軍이다 「그러기로 英國의 運命은 海軍의 運命이다」 라고하엿다 華府會議以來 英海軍의 世界制覇的地位가 破壞된것은 事實이나 아즉도 世界一의 海軍國임엔 다름업다

伊에戰爭과그波紋

一步를잘못하면 第二次世界大戰 (上)

咸尙勳

世界大戰以後 伊에戰爭처럼 波紋을 크게그리고 世界言論家、評論家의 注意를 끈 일은 드물다。滿洲事變이라 할지라도 日本의 聯盟脫退로써 一段落을 지엇고 獨逸의 베르사이유條約 第五編軍事條項의 破棄도 英國과의 그後의 海軍協定에 依하야 平和化하얏다。海軍軍縮會議가 日米英等 世界最大 海軍國으로 成立된다 할지라도 世人의 注意를 끌고 잇스나 이것은 將來할 世界의 戰爭을 想起하여서 비로서 興味와 注意를 끌뿐이오、現在 目睫間에 展開되고잇는 戰爭이 어떠케 擴大 또는 縮少될지 모르는 伊에戰爭가티 興味와 注意를 끌지는 안는다。實로 伊에戰爭은 將次 第二世界大戰이 이러날가 말가하는 一大危機에 섯는만큼 世界의 注意와 興味는 이곳에 集中되어잇다。

◇

伊에戰爭은 平凡한 속에 始作되어 本意아닌 結果를 짓고、이 本意아닌 結果는 다시 原因이되어 딴意外의 結果를 매자 繼續한 一路를 밟고 다라날 따름이다。當初 伊太利가 에디오피아에 **武力行動**을開始하랴할에 누가 英國이 그가티 强硬한 態度를 示할줄 알엇스며 聯盟理事會가 열려서 對伊制裁를 協議할제 佛國조차 이에 贊成하야 伊太利가 孤立無援의 地에 빠진줄 미뎟스랴 世人이 모다 聯盟의 無力을 痛嘆하야 伊에紛爭을 解決할 能力이 업스리라 豫言하얏든것과 가티 伊太利首相 뭇소리니의 聰明으로도 聯盟의 集團的 行動이 그가티 結束하야 나갈것으로는 想像조차 못하얏슬 것이다。아니 그것을 認識하기에 이르는때에는 이미 때 느젓든칼날을 다시 칼집에 감추지 못하리만한 形勢에 이르럿섯다。

◇

伊太利가 昨年 에디오피아를 討伐할 決意를 가지기는 昨年一月 羅馬에서 成立된 **佛伊協定**의 後다。로마協定은 佛領 쏘말릴랜드의 唯一한 海港 지브티로부터 에디스·아베바에 이르는 佛國鐵道의 株券 二千株를 伊太利에 讓與하고 佛領쏘말릴랜드의 一部分을 伊太利에 割讓하는 대신 佛國의 獨逸에 對한 脅威에 備하야 달라는 默契이나 되것이엇섯다。그러므로 伊太利는 旣往 一九二六年 英伊協定에 잇서서 伊太利가 에디오피아南北을 貫通하는 鐵道敷設權을 가질것을 認定받은지라 英佛의 默認을 固信하고 討에行動을 決心한것이엇다。그러나 英國은 에이 伊太利에 領土로 化할때 英領 수단을 흐르는 나일河의 支流 나일의 根源 타나湖를 막아 水路를 에國으로 돌릴때는 埃及棉花의 飢餓를 맛날지오、에디오피아와 伊領 쏘말리랜드와 伊領 에리트리아를 接續식혀

一個臨海 國으로 맨들어 海岸에 軍港을 만들어 軍備를 充實하면 英國의 印度、濠洲에의 通路——이것은 本國서 七日間의 糧食밧게 안나고 棉花羊毛의 原料를 하나도 못가진 英國의 生命線이다——가 危險에 瀕한다。그뿐아니라 萬一 對에軍事行動을 伊太利가 公公然히 敢行함에 聯盟의 何等 措置가 업다할진대 聯盟——現狀維持者를 主要構成分子로한 會合——의 威信은 地에 墮하야 將來 現狀打破運動이 어느곳에서 勃起할지 모른다。그러므로 英國은 領土的生命線을 確保하는 意味에서와 國際的安全을 維持하라는 意味에서 伊太利에 積極的 强硬態度를 取한것이엇다。

◇

英國이 伊太利에 對하야 積極的 態度를 取하얏스나 鐵血宰相 뭇솔리니는 이미 國內에 對한 行動을 命令하고 **萬般準備**가 完成한 때라 아무리 世界에 覇權을 자랑하는 英國일지라도 伊太利의 主張을 굽히기에는 뭇솔리니首相의 自尊心이 不許 한다。그뿐아니라 設使 英國이 威脅的言動을 한다 할지라도 敢히 軍事行動을 할수는 업슬것이오、外交的으로 列國을 聯引한다할지라도 聯盟에는 佛國가튼 同盟者가 잇스니、設使 聯盟諸國에 끌리어 佛國이 이에 加擔한다하드래도 實際 制裁에까지는 이르지 못할것이 滿洲事變時 對日行動에 잇서서와 마찬가지리라 誤信하얏다。그리하야 武力行動을 繼續하는 同時에 埃及國境 에리트리아에 軍隊를 集中하야 英國을 威脅하얏다。그러나 英國이 이에 躊躇할리는 업고 도리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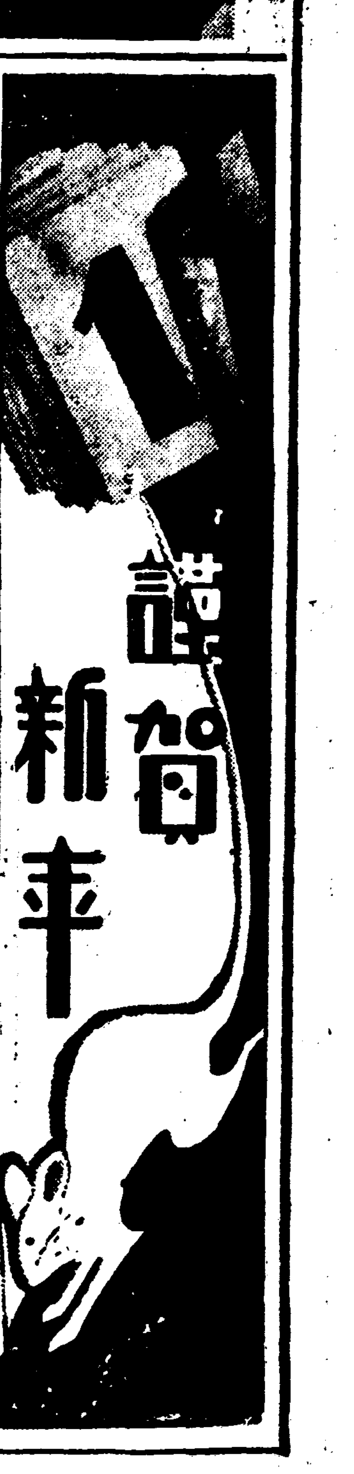
地中海上 에 主力艦을 總集中하야 伊太利를 一擧之下에 粉碎할듯이 示威하얏다。佛國은 이 緊張을 緩和코저 英國에 地中海上 艦隊의 撤退를 慫慂하고 伊太利에도 에리트리아 軍隊의 撤回를 勸告하야 一時 英伊關係는 緩和하얏스나 伊國이 對에軍事行動을 中止치안는限 地中海艦隊의 撤退는 不能하다는 英國의 强硬意見때문에 伊太利의 强硬한 態度로 化하고 英國의 聯盟을 몰아 伊太利를 壓迫하는 態度는 날로 强硬하야저서 對伊經濟制裁可決로 되고 十一月十八日로서 制裁實施를 보게되엇다。

◇

일이 이에 이르면 佛國도 如何히 할수가 업다。聯盟은 伊太利에 制裁를 加하는것으로서 最高最善의 義務로 생각하얏고 伊太利는 이에 抗拒하야 最後까지 그素志를 貫徹하야 聯盟으로하야금 制裁를 斷念케하는 수밧게 업다。그러나 制裁에 參加한 國家는 加盟六十六個國中 墺太利 匈牙利 파라궈、알바니아等 四個國을 除한

五十一國 이오、制裁當하는 나라는 伊太利 一國이다 게다가 伊太利가 가장 經濟上 信賴하고잇든 獨逸、米國等의 中立國도 聯盟에 對하야 加擔的 態度를 取하야 그制裁의 重點은 날로 加하야 간다。이러하야 伊太利는 날로 物質的 精神的 焦燥를 加하야 에디오피아 討伐總指揮 데·보노將軍을 更迭하며 對內經濟統制를 嚴重히하야 討에工作을 하루라도 速히 完了하야 聯盟의 制裁로부터 避하라 하얏다。그러나 에國의 天險과 에國民의 焦土的 愛國心과 聯盟에 信賴를 가진 士氣는 아울 伊太利의 討에工作을 더욱 困難케하얏다 이리하야 洪水에 떠나려가는 伊太利는 어떤 救濟의집푸래기라도 쥐라하얏다。그러나 쥐일라는 짚푸래기도 보이지 안코 一層 伊太利를 陷沒하라는

石油制裁 가 十八個國制裁委員會에서 制裁品目에 너차고 議題에 오르랴하얏다。窮鼠는 噬猫라하얏다 伊太利의 境遇를 말한다。伊太利는 파씨스트黨大評議會를열고 萬一 聯盟이 石油制裁를 決定하면 伊太利는 三百餘航空將卒로 組織된 決死隊로서 地中海上에 遊弋하는 英國의 艦船을 一時에 擊破하겟다는 決議를하고 英國에 最後的通牒을 發하얏다。



京城電氣株式會社
取締役 武者鍊三
見目德太

新田留次郎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九二
瀨戶商店

丁子屋
京城南大門通二ノ一二三

京城府若草町二四
楠本吉太郎

池田清

新貝肇

三中井
京城本町一ノ四五

安井誠一郎

上內彦策

三越
京城本町一ノ五二

京城府本町一丁目
北內商店

鹽田正洪

京城府古市町四三
寫眞製版用藥品、化學工業藥品、製版機械一式
宮崎圓平
電本(2)〇七一七番

西龜三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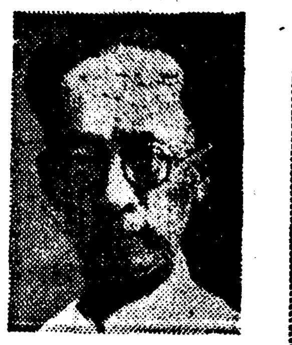
京城公立中等學校長會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二十五番地
朝鮮製鍊株式會社

轉換期中國政情

李元坤

最近數年間 中國의 經濟恐慌과 政情不安은 相互交互作用을하여서 急速한템포로 深刻化하야 南京政權을 重大危局으로 誘導하고말엇다 水災、旱災等 自然的災害로 가득가나 衰退된 農村은 地方軍閥의 苛斂誅求와 꿋치여서 이러나는 兵火로 餘地업시 破壞되고 따라 農民의 購買力減退와 中國經濟機構自體에 內在하여잇는 諸矛盾은 都市商工業의 不振과 全幅經濟의 混亂을 誘致하야 重大危局을 示現하엿다 이러한 農民經濟의 破綻과 都市商工業의 衰退는 直接 間接으로 政情不安을 助長하야 反政府運動과 府內各派의 對立抗爭을 激化케하엿다 特히 北中事變을 契機로 이危機는 急角度로 激成되여 西南派가 中央政府에 對하야 反對通電을 發하면 北中失業政客等은 自治通電을 發하는等 實로 亂麻와가튼 現狀을 呈하엿다 더욱이 江西本據를 放棄하고 中國共産軍이 湖南、湖北、貴州、雲南、四川으로 移動을開始함에따라 中央政府의 討共戰線은 以上五省으로 擴大延長되고 國民政府自體는 各派의 對立亂舞로 混亂한 狀勢를 示現하야 國難은 一九三五年에까지 實로 그絶頂에 到達한 感을 가지게하엿다 이러한 難關에 逢着한 國民政府는 對外的으로 對日親善政策을 標榜하야 對日關係를 緩和하는 反面에 討共工作과 國內統一工作에 不眠不休의 努力을 傾倒하여왓다 그리하야 共軍의 主力을 陝西、甘肅邊境으로 驅逐하는同時에 從來 中央政府에對하야 不卽不離의 態度를取하여 오든 湖南、貴州、雲南、四川諸省을 南京政府의 統治權內로 誘導하고 北中將領과 西南派의 巨頭를 懷柔하야 反中央的態度를 緩和하기에 成功한것이라든지 또는 中國의 經濟的發展에 重大障碍가 되여잇는 幣制를 統一한것과 五全大會를(汪精衛의遭難과가튼 不祥事는 잇서스나) 大體로中央의 意圖대로 打開한것等은 모도 一九三五年에잇서 南京政府가 收得한 巨大한 業績이라할것이다。



再建된國府新陣容

第一次中央全體會議에서 決定된 南京政府의 新陣容은 憲政實施를 約束한 一九三六年度에잇서 南京政局의 歸趨를 示唆하는標幟다 從來에는 軍事委員長으로 直面政界意向에 나서기를 忌避하든 蔣介石氏가 直接國民政府의 總理와가튼 行政院長을 兼任하게된것은 汪氏의再起가 不可能한此際 蔣氏以外에는 適任者가 업는至然的結果라고 볼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國內統一工作上極히 意味잇는 事實인同時에 軍政兩權을 蔣介石氏가掌握하게되것은 그의獨裁를 强化할것이라고 볼것이다 더욱이中央常務委員會主席에 胡漢民氏、宣傳部長에 劉蘆隱氏、監察院副院長에 許崇智氏 民政訓練部長에 周係酒氏等 西南派의 人物을 選任한것은 中央과 西南의 合作을 말하는 證左이다

中

央執監委員 全體大會 休會時에 잇서 國民黨의 最高權力機關인 中央常務委員會에 비록 西南派의 理論的 指導者 胡漢民氏를 主席에 앉치엿스나 그러나 胡氏의 南京入은 何時에 實現될는지 알수업고 副主席에 蔣氏自身이 안즌것이나 또는 秘書長에 葉楚傖氏를 任命한것을보면 胡氏의 入京이 設使 實現된다고 하드라도 蔣氏와 葉氏의 結合으로 中央常務委員會는 蔣氏의 方針대로 運轉될것이다 이것은 中央政治委員會에 잇서서도 亦是 同樣이다 비록 主席에 汪氏가 任命되여 잇스나 그도 身病으로 이미 南京을 떠나 잇는以上 何時에 復職될는지가 疑問이므로 中央政治會議도 또한 蔣氏의 全權下에 잇게되엿다 汪氏直系인 顧孟餘를 秘書長에 안친것은 汪氏에對한 敬意를 表하기 爲한것으로 顧氏의 存在는 汪氏가 잇슨然後의 存在이지 蔣氏手下에서는 自派獨特한 智謀와 手腕을 發揮치 못할것이다 그리고 馮玉祥 閻錫山兩氏를 軍事委員會副主席에 任命한것等은 일호로 冀察政務委員會에 對한 南京政府의 政策을示唆하는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蔣介石氏의勢力은 軍事委員會는 勿論 中央常務委員會 中央政治會議를 [illegible]하야 [illegible]이며 따라 그의獨裁를 [illegible]化한것이라고 할것이다 特히 今回의 人事異動에 [illegible]하야 [illegible]할수업는것은 蔣氏自身이 中心이되여 그의直系인 張群氏를 外交部長에 [illegible]氏를 內政部長에 任命하야 直接政界表面에 나서는同時에 兩廣派와北中將領을 [illegible]한것은 南京政府 統一工作의 劃期的收穫을 [illegible]實이며 今後蔣氏政權의 活動을 約束하는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解決難의北中問題

一九三六年에잇서 南京政府가 當面하여온 最大困難은 北中政務收拾問題이엿슬것이다 北中은 對外關係로 特殊地帶인데다가 國民黨勢力의總退却後에는 各派政客과 大小軍閥의 策動이 甚하야 國民政府로하여금 그收拾策에 彷徨하드니 마침내冀察政務委員會를 組織케하야 政務를 收拾케한것은 實로 巨大한 業績의 하나라할것이다

그러나 冀察政務委員會는形式的이나마 中央의主權을 認定하야 國民政府의 體面을세웟다고할것이나 그委員會의構成人物로보든가 또는 新委員會의 權限을볼때 모도가 北方本位인것만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右委員會는 現在에잇서서는 비록安定勢力이라고 볼것이나 압흐로 對日關係와 對中央關係에잇서 容易치안흔 難關이 豫想된다 첫재로 右新政權의 施政區域은 日本의勢力을 無視할수업는 特殊地帶인만큼 右政務機關이 對日折衝에잇서 自主的權限을 完全發揮치못하고 一一히 南京政府의 指示를 밧게된다고하면 日本側에서 此를 默過치안흘것이며 둘재로 地方政權으로서의 特權的行動을 할時에는 國民黨또는 一般國民의 輿論이 沸騰할것이다 新政權樹立을 前後하야 日本側의 監視가 嚴重한것이라든지 또는 全國的으로 이러나고잇는 學生團의反自治的示威運動은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것이다

北中新政權은 압흐로 對日折衝과 國民政府에對한 關係에잇서 이러한難關이 豫想되는 反面에 그內部에잇서도 相當한曲折이 잇스리라고 推測된다 冀察政務委員會는 同委員長宋哲元系만으로 中樞勢力으로한 單一政權이아니고 舊安福派 舊馮玉祥派其他 東北各派를 網羅한 複合體인만큼 압흐로政權을 運用하는데잇서 步調의一致를 期할수잇슬는지 注目되는 要點이다 北中新政權은 如何한方法으로 日滿兩國과 中央政府와의中間에서 兩方이서로 滿足할만한 政務를遂行하고 또南京政府는 如何한方法으로써 將次北中政權에對하야 그傳統的地位를 損傷치안흘는지가 一九三六年의 問題로 世人의注目을끈다

共産軍의西北移動

一九三五年에잇서 南京政府가 遂行한巨大業績은 江西共軍을 甘肅、陝西等 西北邊境으로 驅逐한事實이다 中國에잇서 共産軍의 存在가 南京政府에對하야 어떠케큰 威脅이엿다는것은 過去에잇서 南京政府가 그討伐에 어떠한 犧牲을하여왓는가를보아도 넉넉히 알수잇다 우리는 中國의共軍이 如何한樣度의 勢力을 가지고잇는지 到底히 알길이업다 그러나 一九三〇年以前 六個年에亘하야 끈치업는 討共工作과 前後六七回에亘한 大規模의 總攻擊이 잇섯슴에도不拘하고 이를 完全克服치못하엿든것으로만 보드라도 그勢力이 如何하엿든가를 알수잇다 그러나 再昨年末부터 昨年初까지 遂行한 討伐은 意外로好成績을 擧하야 共軍의 本據瑞金 一帶는 마츰내 中央軍의手中에 回收되게되엿다 더욱이

蔣氏는 赤軍의 移動을 追跡하면서 從來 南京政府에 對하야 不卽不離의 曖昧한 態度를 取하여오든 湖南 貴州 雲南 四川 諸省의 支配權을 掌握하게되고 말하자면 一石二鳥의 效果를 擧하야 共軍도 邊境으로 驅逐하고 地方諸省의 政制도 改革하야 中央의 支配權을 確立한것은 實로 中國統一史上에잇서서도 特記할만한 事實이다 萬一 이 討共問題를 解決치 못하엿든들 蔣介石氏의 政界進出은 아즉도 宿望으로 남어잇섯슬는지도 알수 업섯스며 저번 五全大會를 無事通過하야 今日의 南京政府의 新陣容을 建設하엿슬는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中國의 共軍問題는 그리 單純한것이 아니다 비록 今日에는 勢不得已 邊境으로 驅逐되엿스나 그러나 아즉도 四川西北部에는 朱德 徐向前 共軍의 想定兵力 四萬에 甘肅東部에는 毛澤東 徐海東 共軍의 想定兵力 二萬、陝西北中部에는 劉丹子、黃子文共軍의 想定兵力一萬 合計七萬의共軍이 西北赤化를 目指하고 活躍하고 잇다한다 萬一에 右共軍七萬이 一致의行動을 取하야 陝西北部에서 集結을完了하게되면 西北中國은 非常치안흔 危險에 直面하게될것이다 이것이 一九三六年에잇서 國民政府와 北中政權이 解決할 重大問題의 하나이안인가思維된다

[illegible] 蔣介石氏

經濟的更生의必要

今日中國의危機는 여러가지로 說明할수잇다 그러나 그根本的 危機의本質은 經濟的破産으로부터오는 一般國民의 窮乏化에잇슬것이다 그러므로 目下中國의 唯一한 重大問題는 무엇보담도 崩潰의 危局에瀕하여잇는 國民經濟를 常途로 挽救하야 國民의 經濟的發展을 圖하는데잇다는것은 識者의共通된見解일것이다

最近中國에 나타난 注目할만한 現實은 農村狀態의惡化 銀의海外流出 金融財政危機의 進行等이다 此等諸現象은 相互交互作用이되어서 中國의國民經濟를새로危機로誘導하고 따라 國民政府權力에基礎的動搖를惹起케하엿다 여기서國民政府의 實權者蔣介石氏는 中國의經濟危機를 救하기爲하야는 國民의經濟的修養을 圖할必要가잇다는것을 痛感하고 一九三六年六月 江西討共工作이 一段落을지게되엿슬 지음에 第一步事業을發表한것이곳『國民經濟建設實施에關한 具體的要項』이라는것이다 지난十月十日 雙十節을期하야 그는또다시『本運動의意義及實施方案』이라는것을 發表하야 玆에그全貌를 明確히하는同時에 于先 江西省에 此를實施하엿다 蔣介石氏의『國民經濟建設案』은實로

國民族次下의 고스폴란(計畫經濟)이며 N、R、A、의中國版이다 中國의國民經濟建設運動은 蔣介石氏가主唱하는 所謂新生活運動과 倂行하는것으로 新生活運動이 中國民族의 精神的乃至 道德的修練을 目標하는것이라고하면『國民經濟建設運動』은 中國民族의生活基礎를 充實케하는『民生運動』일것이다 그러므로 前者는精神運動일것이며 後者는 物質運動일것이다 이運動의 總目標는人力을充하야 地利를開發하고 供要(供給需要)를平均히하고流通을잘하야써國民의 經濟的發展을圖하는데잇다 여기서 政府는 모든힘을다하야 그目的遂行을 妨害하는 諸般障碍를 除去하고 各種 生産、消費及 流通機構를 改革하고 公共事業에는 强制勞動을 徵發하고 또軍隊의 勞動服務 即兵工政策을 提唱하고 綜合的 專門的 有機的聯絡의 必要를 强調하고잇다

一九三五年 掉尾에잇서 各派徒流를 國民政府旗幟下로 統一하야 新陣容을 結成하기에 成功한 南京政府가 右國民經濟建設計畫에잇서 如何한 成果를 擧할는지 北中問題及 對共問題와 아울러 이것이 一九三六年에잇서 吾人의 注目의 焦點이 되여잇다

(上段人物寫眞은 上으로부터 胡漢民氏、馮玉祥、閻錫山、張群氏)

(五全大會開會前의 國民黨首腦部의 山中陵參拜)

比島共和國의將來

獨立第一年맞고 內外問題多難

對米依存關係와微妙한對日問題

① 韓普容

客年十一月十五日 比律賓共和國聯邦의 初代大統領 마뉴엘·케손氏의 就任과 아울러 東洋一隅에 獨立新國이 또하나 誕生하엿다。

東洋은 地廣으로는 大端히 넓으면서도 獨立國은 比較的 적은 곳이다。그러나 時運이 조흔탓이라할가! 最近 約四五個年 以來 우리東洋에는 이모저모에서 新獨立國이 雨後竹筍格으로 簇生하고잇다。一九二一年에는 中國쏘베트共和國이 獨立을 宣言하엿고、一九三二年에는 滿洲國의 誕生을 보게되엿다。그리고 어느사이에 外蒙쏘베트共和國이 壽考한 獨立國으로되엿고、新疆의獨立도 거진 成熟되여간다。以外에 內蒙自治 또는 北中自治問題도 進展如何로는 各各『國家』的 衣裳을 쓰게되지 안으리라고도 確保하기 어려운 點이잇다。

그러나 이番誕生한 比律賓共和國은 여러가지 意味에 잇서 前揭諸國의 獨立 그것과는 判異한點이 잇다。卽의 하나로 有史以來 아즉 그例가업는 宗主國의 自發的獨立賦與의 事實하나만보드라도 이點은 明瞭하여지는줄 안다。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國際風雲이 甚히 險惡하엿던 一九三五年中에 平和스러히 享實한 獨立主權을 享有하게되엿다는것이 더욱이 注目되는 點이다。

그러나 平和裡에 獨立된 比島共和國의 將來도 亦是 平和롭으로 繼續될것인가? 萬若 問題가잇다면 그것은 어떠한問題일까? 記者는 여기서 比律賓이 獨立後 第一年에 直面할 두가지 重要問題를 考察하여보려한다。

自主經濟의必要

米國이 왜? 自發的으로 比律賓獨立을 許與하는가 하는 獨立承認의 根據에對하야 左翼的傾向을 띄고잇는 여러評論家는 勿論、日本朝野의 學者 政治家는 거이 그全部가 米國資本主義의 必然的 結果로 解釋한다。卽 比島를 獨立식히지안는限 米國資本家 特히 砂糖、椰子油、大麻等産業에 關係잇는 資本家들의 損失은 免할수업슴으로 그들 資本家의 利益을 擁護하기爲하야 또는 低賃金을 甘受하는 比律賓勞動者의 米國本土大入國防止로 國內失業者를 救濟하기 爲하야 比島獨立賦與는 絶對的으로 必要하엿다는것이다。

勿論 이말에 理由가 업는 것은 아니나 吾人은 이말을全的으로 是認하려하는者는 아니오 여게다 반드시 한가지條件을 부처서 是認하려는者이다。이것은 反動的解釋도 아니오 양키崇拜의 結果도 아닌가한다。왜그러냐하면 米國이 比島獨立을 許與하게된 根本原因은 米國은 領土가 廣闊하고 天産物이 豐富하야 他國처럼 新領土를 必要치안는다는것과 比島自體가 米國이 바라가는 國策上 重要地點으로의 役割을 하지못한다는點에잇다。勿論 우에引用한『米國資本主義의 必然的結果』라는點도 重大한 役割을 한것은 事實이나 資本主義의 發展上 比島獨立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게되는 양키國民에게 文化人的(良心잇는) 크레디트는주어야할것이다。왜그러냐하면 萬若 그들에게 良心이업고 資本主義的 發展그것만 眼中에잇섯다하면 比島를 永遠히 自己의 屬領으로 두고도 比律賓産物輸入에 關稅를 課할것이오 比律賓人勞動者의 入國을 禁止하려면 禁止할수 잇다。이러한것은 現在 他國에 例잇는事實로 特別히 양키만 恩德하다고 指摘할수업는 까닭이다。그러나 양키國民은 적어도 同一版圖內에 所屬식혀 노코는 差別的待遇는 할수업다는데 그들의 良心이 表現되엿스며 이良心이 具存하는 資本主義發展의 必然的結果로 比律賓獨立의 出現을 보게되엿다고 할수잇다。

◇

以上은 米國사람의 實情으로 말할것이오 比律賓人側으로 본다면 獨立法案에 包含된 經濟的條件은 比島發展上 實로 重大한犧牲이라안할수업다。獨立되기前 比島獨立黨에 말에依하면『獨立은 따라(弗)의 問題가아니라 魂(精神)의 問題다』라고하엿다。먹기만爲하야 사는人間이아니라면 이것은 當然한말이다。그러나 인제 意義잇게살수잇게된 比島人으로서는 第一먼저 問題될것이 經濟問題일것이다。

三百年間 西班牙統治下에서 아모發展을 보지못하고 한個의 未開한 土人國으로 남어잇던 比律賓이 西米戰爭의結果 直時 獨立國이되지못한것은 遺憾이지마는 結局 外人治下에 잇게된다면 西班牙植民地로 그대로 잇기보다 米國統治下에 드러가게된것이 어떠한 意味로는 도로혀幸福이엿다는것은 過去三十餘年間 米國의 同島治領으로 比島人이 今日 世界文明人의 水準에까지 올나서게된點으로보와서뿐만아니라 米比貿易關係에잇서 比島人은 經濟的으로적지안흔 恩澤을 밧게되엿다는點을 看過할수업는가한다。

一九三三年統計에 依하면比島製糖 約百萬噸中 十萬噸內外는 比島內에서 消費되고 남어지 九十萬噸은 米國으로 輸出하엿다。그런데 比島砂糖이 이가티 多量으로 米國에 輸出되는 理由는 米國에서 큐바糖에 對하야는 每封度에 二仙이나 輸入關稅를 課함에不拘하고 比島糖에 對하야는 同一版圖內라는 理由下에 無稅로 輸入하게되는 까닭이다。

比島共和國建國式大盛典當日의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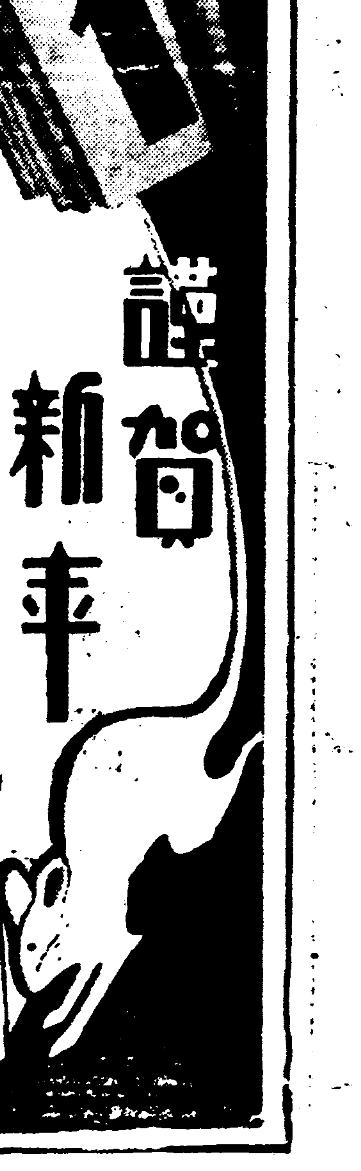
따라서 約百萬噸의 比島糖은 큐바의 그것에比하야 約八十萬메소(一메소는 現在 日貨로 一圓七十五錢假量)더만히 收得하게되엿다。

『米比貿易은 無特惠時代、特惠時代、制限付自由貿易時代를 經由하야 一九一三年부터 自由貿易時代에 드러왓는대 그사이 比律賓産業은 長足進步를 그대로의 發展을보게되엿다。一九〇九年 制限付自由貿易採用以來 一九三一年에 至하기까지에 關稅免除額은 米國側에約十一億弗、比島側에 約五億弗 合計十六億弗에 達한다한다』이것이 歲出입 八千萬메소에 不過한 比島經濟生活에 얼마나 好影響을 주엇슬가함은 推測키 困難치안타。이와가티 米國統治下에 比律賓은 經濟的으로는 더할데업는 惠澤을 밧고잇섯다。그러나 獨立賦與의 主原要因이 經濟그것에 잇스니만치 獨立後의 比島에는 이러한特典이 全部 업서지게되엿다。即 獨立法에 明文으로써 精糖、砂糖、椰子油、大麻等에 對하야 今後十年間 輸入을 制限하는同時에 獨立後에는 六年만에 五分、그後漸次增加하야 十年後에는 二割五分의 輸出稅를 課하기로約束되여잇다。

米比貿易關係가 이러케되다면 比律賓은 商品輸出市場을 他國에 發見하여야 할터인데 그亦是 容易한일이아니다。一例로 砂糖市場을 살펴볼때에 日本은 現在 臺灣糖에 依하야 自作自給以上의 狀態에잇고 唯一의市場 中國도 日本及蘭領印度等地의 砂糖이 進出하고 잇스므로 이것을 驅逐하기는 容易한일이 아니다。砂糖뿐아니라 다른 農産物도 程度의 差는잇다 하드래도 大槪同一한 境遇에 處하여잇다。

溫室속에서 자라난 比律賓産業은 獨立과함께 인제 暴風雪의 世上風情에 直面케되엿다。이와가튼 險惡한 環境에서 國民生活上 第一基本이되는 國民經濟의 自主的確立이야말로 新獨立國 比律賓共和國이 直面하고잇는 가장 重大한 問題가 되지안흘수업는 同時에 이問題解決이 케손政府의 重大使命이라 할것이다。(續)

上段人物은歷史的 比島獨立運動의巨頭아니날도氏



大邱府

大興電氣株式會社

朝陽無盡株式會社

大邱米穀取引所

大邱三製糸會社

慶尙北道農會

慶尙北道山林課員一同

大邱金曜會

大邱府西千代田町三九番地 金台原

李、相岳

大邱 金玉培

大邱中央通三丁目 金相台

株式會社 國際ネオン 大邱支店 (大邱東城町シラギヤビル 電話四五〇・四七二番)

大邱府上西町 合資會社 達城券番 電話(九六九 三七九)

道會議員 坂本俊資

大邱朝鮮酒造組合

大邱雜貨商同友會

大邱府上西町 三千旅館 電話三八四番

謹賀新年

大邱

明治町 徐丙朝

道立大邱醫院

大邱府京町一丁目七九番地 辯護士 尹轍均 長電話一五一三番

大邱官公立中等學校長會

大邱府西城町二丁目 福來號綢緞布木部 電話九九四番

上西町 李銀紅

解顔水利組合

德山町 桐華寺本末布教堂

株式會社 南鮮釀造社

西洋料理 朝鮮料理 琴湖館

伊藤泰吉

慶尙北道食堂員一同

慶北知事 岡崎哲郎

大邱西部金融組合長 鄭海鵬

大邱本町二丁目 綿絹布商 貿易商 金聖在 電話長二八九九

大邱府本町二丁目 池二洪 電八八八番

大邱理髮組合

東雲町三一七ノ二 孫致殷

大邱府京町二丁目 佐川金庫製作所大邱出張所 特約店募集 電話三七三番 振替京城二〇二四二番

壽町一一四ノ二 金敎式

慶北道土木課

大邱京城二六 辯護士 金宜均

達城郡廳

慶尙北道農務課內 農友會

東城町 朱秉煥

張稷相

大邱府元町二丁目九八番地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南鮮支社 支社長 鄭世顯 支部長 金旭奎 支部長 吳遠達 支部長 尹泰一

大邱商友會加盟店一同

大邱達城町 東然釀造場 電九一七番

大邱稅務監督局職員一同

大邱府橫町 秋秉和

大邱府 古谷治輔商店 電話四八番

朝鐵自動車株式會社大邱出張所

大邱府幸町一 共榮自動車株式會社

大邱府內 金融組合理事一同

大邱堅町 府議員 秋秉涉

大邱府京町二丁目二九 秦喜墩

大邱府西千代田町四一 具哲書

大邱京町二丁目 長生小兒科醫院 院長 金翔坤

道會議員 秦喜泰

大邱稅務署

大邱朝鮮人宿屋組合

大邱中央通 三十番タクシー 電話三〇番

慶尙北道大邱驛構內 朝鮮製錬株式會社大邱買鑛所

胃腸病의特效藥 大邱府達城公園入口 神秘丹 製造本舖 昇春堂藥房 電話九四 振替釜山五一六七

朝鮮金融組合聯合會慶北支部

慶尙北道各官衙御用 印刷 洋帳 電報社印刷部 大邱府元町二丁目 電話長一〇九五番

大邱府南町 金在煥

大邱府大和町六四 大邱米穀取引所會員 會員組織 ㊀丸一商會 店主 韓東 電話一〇〇二番 電略（〇）又八（〇一）

南城町八九 金弘祖藥房

南城町 楊來震

朝鮮鐵道株式會社 大邱自動車販賣所

大和町 農具諸機 農用諸工具 改良諸具 養蠶器具 製絲機械 濱田農蠶機店 電話七四六番

大邱府西城町二丁目五十五番地 土木建築 請負業 李永實 電話一三〇四番

李鍾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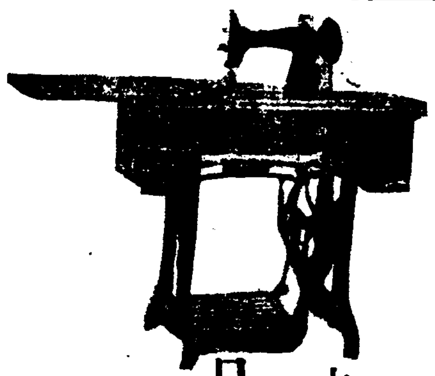
金元龍

徐昌圭

尹相泰

大邱郵便局職員一同

大邱海陸產委託業組合
共榮商會 田在瑢　啓星社 裵相啓
三一商會 黃潤瑢　永敏商會 金永敏
大東商會 秋大有　命鎭商會 朴命鎭
正實商店 李正實　第一商會 鄭鎭國
義和商會 李英伯　元山商會 徐錫代
治東商店 洪聖欽　復坤商店 秋復坤
富潤商店 金潤執



大邱府本町一丁目 ブラザーミシン 日米ミシン商會 電話一五〇六番 振替釜山六二五九番

西內町二七 鄭春姬

大邱府前町 浦野印刷所 電話一〇二二番

啓聖學校長 玄居善

大邱 金昌錄

大邱府東千代田町二三 文華印刷所 電話一六二〇番 振替釜山七九六八

大邱德山町一三三 李長春

大邱府醫師會

大邱府內立普公通學校職員 大邱府內公立補習學校職員 一同

杉原合資會社長 杉原長太郎 大邱府元町

大邱專賣支局職員一同

大邱朝鮮酒釀造株式會社 電話九六八番

大邱府南城町一二〇 酒類食料問屋 安東屋 主 金啖東 電話九九六番

大邱府市場町 姜致雲

大邱商工會議所

西千代田町 西洋洗濯 日洋舍 電話一三四八番

南城町 金弄春

李在榮

上西町 金月香

壽町一九 明星館

朝鮮大邱府南城町百二番地 貿易商 綿絲 崔晋澤 電話三八五番 振替釜山七二七一

大邱府協議員 蘇鎭武

明治町 金榮台

大邱府京町二丁目 東亞綢物商會 禹昌亨 電話八八二番

中央齒科醫院 京齒醫學士 崔海雲

南城町 復陽堂醫院 電話八六

大邱大鳳町 直指寺大邱布敎所

大邱市場町 金元卓

大邱府本町二丁目 株式會社 南方商店 電話長一六一番 振替釜山一六二番

大邱府京町一丁目 映畫常設 萬鏡館 電話長九八二番

大邱府元町二丁目二番地의一 南鮮運輸株式會社

東城町三丁目三五 天濟堂藥房

橫町九八 李炳學

下西町一 金邱顯

橫町一三三 金蔚山

慶尙北道漁業組合聯合

大邱府新町一丁目一八의一 朝鮮運送株式會社大邱支店 支店長 守屋柳治

大邱府本町二丁目 朝鮮料理 大邱館 電話七七一番

大邱府東城町三丁目 半島洋靴店

大邱府市場町一〇五 大邱ゴム商會 主任 朴英秀

府議員 小野元太

大邱府東城町三丁目五〇 青邱洋靴店 尹炳斗

京町一丁目六八 莊緞製造 都散賣 李再達（小名福さ）

元町一ノ二九 福本傘店

大邱驛機關區保線區

大邱府院垈洞 合名會社 永進精米所 吳宗煥

慶尙北道蠶種業組合

大邱府元町 大邱穀物株式會社

府會議員 田中弘眞

鳳山町 裵鼎基

大邱醫學專門學校

大邱府南城町 白十字藥局 電二一八七

南城町一二三 興國洋裝社 主任 鄭禎守

大和町 慶北商會 電長一八七番

慶尙北道蠶製造所

大邱市場町 紙物雜貨 鄭德鉉商店

南城町一一六 吳善一

大邱布木商組合

大邱料理屋組合

京町一丁目 德潤家具店 振替京城一九三九〇

大邱米油組合 電話一四一 八五六

大邱府南城町 城南釀造場 電一〇四三番

西內町六六 日光旅館

京町 海東園

福壽軒

錦町一ノ一二〇 梅根菊平

南山町 吉原釀造場 電一三四五番

南山町一九〇 雙興號

大邱府外院垈洞 大成精米所

京町二丁目八五 朴海克

達城砂防七星會

京町一丁目一八番 大安堂藥局 主 徐 電話一四二番 振替京城一六一九〇番

大邱府新町一〇三番地 大邱オイル商會 朴在寬

市場町一五 綿布商 陸致雲 長電話七三三

新町 朝鮮釀造場

明治町二丁目 上帝敎大源敎堂

德山町 銀光布敎堂 朴雪隱

西城町二丁目 現代洋服店

南山町 定慧敎堂

南城町八二 鷄林醫院 金容錫

本町二丁目二 大昌皮革店

棟居釀造場

朝鮮大邱府本町二丁目 元順盛 長電話三二八番

大邱府德山町二二六番地 白米 白麥 肥料 其他雜穀貿易 德山精米所 申崔和

活版 石版 文房具 朝鮮カレンダ 朝陽印刷所 主 崔鎭燮

明治町二丁目一 秋信鎬

大邱浴屋組合

南城町八八 申泰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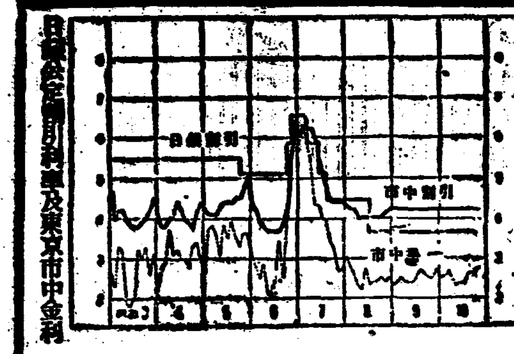
慶尙北道原蠶製造所

金玉陶各種入齒 入齒師 金洪達 大邱府本町二丁目七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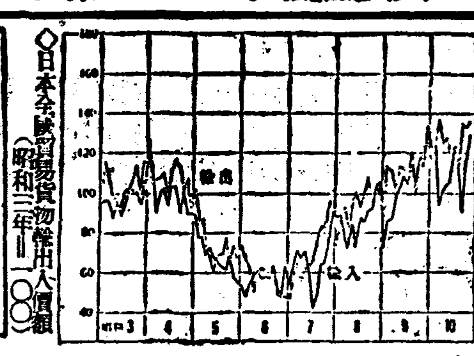
三國商會

洪瑨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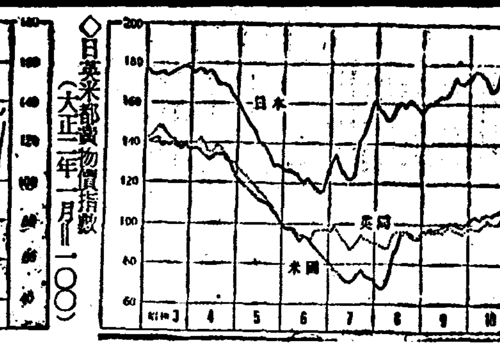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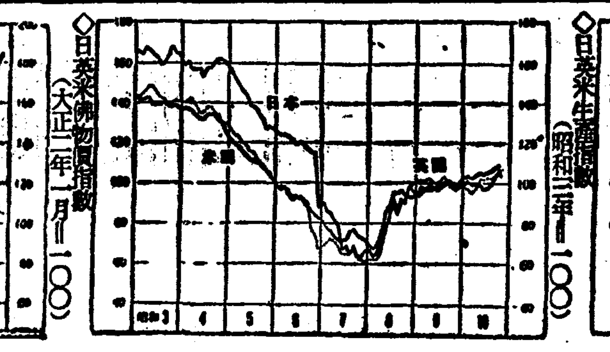
日本銀行公定利率及東京市中金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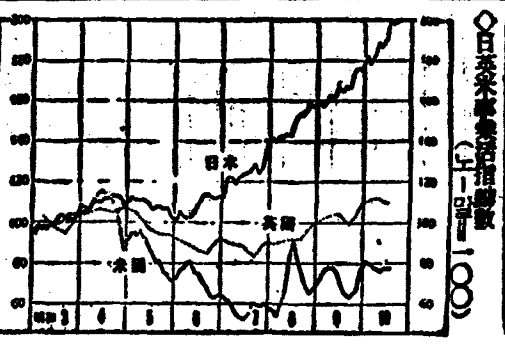
日本全國貿易物價出入價額 (昭和三年=一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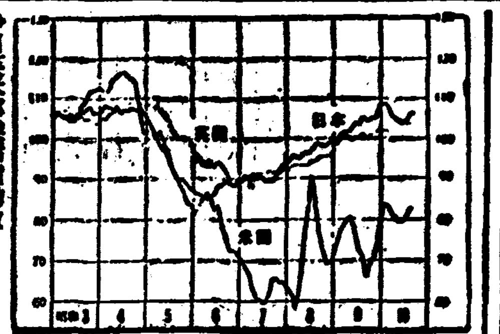
日英米都賣物價指數 (大正三年一月=一〇〇)



日英米佛物價指數 (大正三年一月=一〇〇)



日英米生産指數 (昭和三年=一〇〇)



日英米株式指數 (一九二八年=一〇〇)

世界經濟現情勢 (上)

國家對立激化、國際間不安深刻
大領域經濟進展、領土分割運動
前途는 戰爭? 恐慌?

申泰翊

世界經濟는 將次 어데로 가느냐고 함이 오늘에잇서서 世界諸國民의 가상을 죄이게하는 重要問題이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世界經濟會議가 失敗로 도라간뒤 資本主義諸國의 經濟戰은 더욱 激化를 보게되고 딸하서 世界經濟는 一種의 攻守同盟經濟 卽 所謂블럭經濟로 分裂되야 自足自給封鎖經濟가 强化하는 同時에 그對立의 激化로 自由主義國際經濟崩壞의 吊鐘은 우리의귀를 울린지도 이미 지나갓엇든 되고맙엇다 지금에잇서서는 그블럭經濟는 激化에서 激化로 닭아나는 深刻을 불러이다 그럼으로 國際協調의主義는 거림자조차 사라진感이 不無하려이다 그러면 世界經濟는 이블럭經濟로서 前途의難關을 打開케될것인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처럼結成된 블럭經濟를 平和的의것으로 보아야 올흘가 그러치안코 或은 이것을 鬪爭的으로 보아야 올흘가 함에잇서여러가지의 見解가 잇슬것이다 그러치만 오늘에잇서 우리가目睹하고잇는 現實에 비치여 본다고하면 블럭과 블럭對立의激化는 決코 平和的意結性을 띄인것으로 볼수가 업다 이것은 第二次 世界大戰의 危機로모라 닷는것이 아니냐는 不安의念을 가질수도잇게된 情勢이다 가령 世界經濟의블럭化가 戰爭에까지 안일곳게되다고 하드래도政治外交等의 國際關係가 더욱 錯雜化함이 昨年中 일어난諸事實을 通하야 잘알수잇고 또는 이블럭形成의 나라에잇서서 市場이 擴大되드래도 이것을 大局的立場에서 본다고하면 그와反對로 世界市場은 더욱 狹隘化하는結果가 되고맙엇다 그럼으로 世界經濟의動向을 살피라고함에잇서 블럭經濟가 그中心으로되고 딸허서 이에對한 認識이 그核心의點으로 될은 當然하다

獨點的資本主義
뿌럭經濟完全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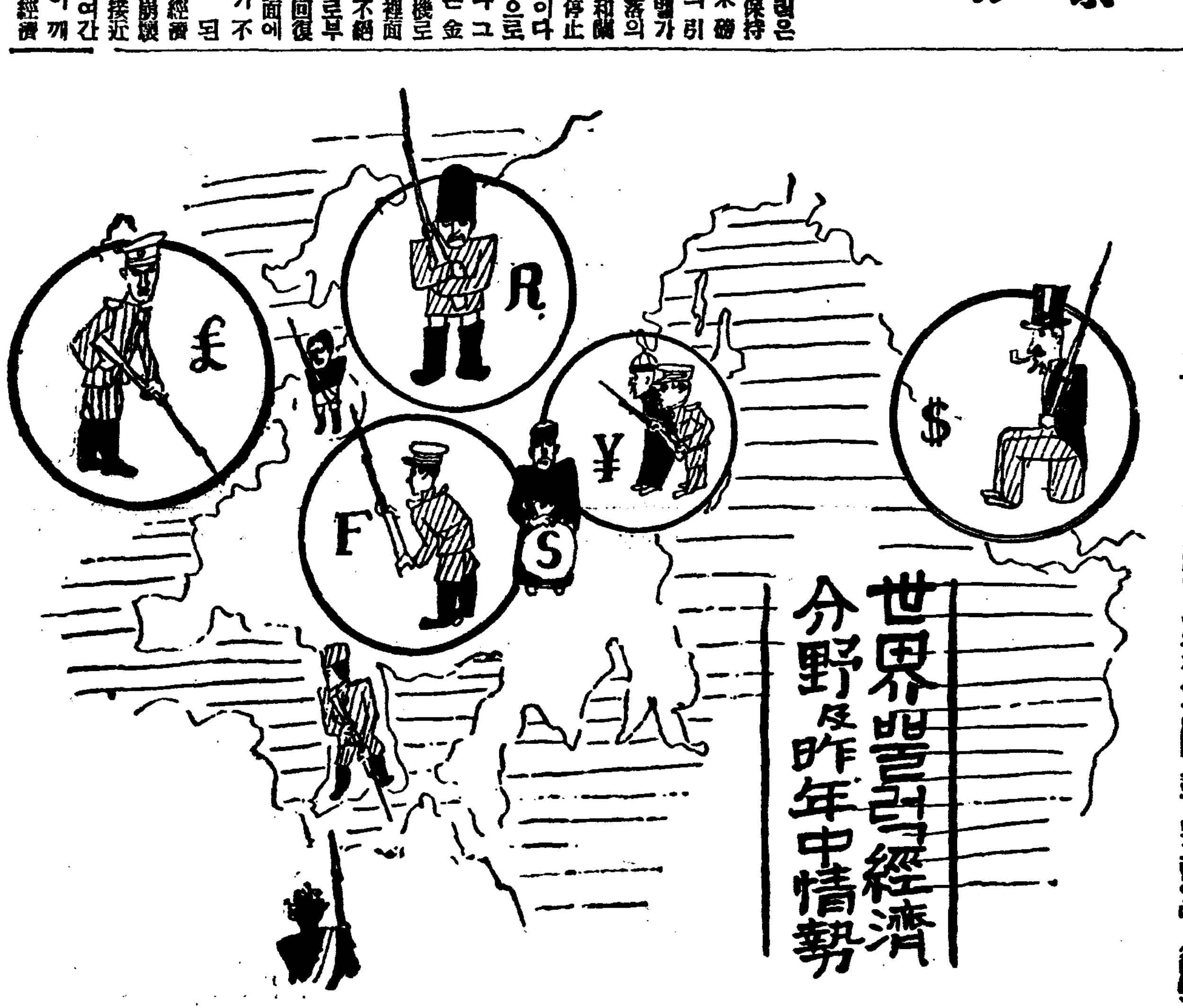
世界經濟會議가 失敗를 본뒤에 잇서도 그恢復과 再建運動외소리가 업지안헛다 그러나이것은 모두一時的 또는 局部的이엇슬뿐만 아니라 너무도 無力하엿든때문으로 우리의 鼓膜에 밋치는 反響이 조금도 업섯다고 말할수가 잇다 그래서 다만 國家對立의激化、國際間不安과 動搖가 뒤를 잇대여서 昨年中의 世界經濟에잇서는 一層國家的經濟主義 卽 封鎖經濟主義로 向하야 달음박질만 하엿슬뿐이다 그럼으로 오늘의 世界經濟는 資本主義諸國의 對立的狀態에 依하야 서로 그覇를다투는 同時에 서로 自國을 직히기爲하야 힘쓰는 獨占的資本主義形態는 더욱 露骨化케됨은 當然한趨勢로 볼수밧게업다。이와가티 國際協調主義는 完全히사러지고 國家的經濟主義가 날로써 더욱 그威勢를 떨침에 딸허서 世界經濟에잇서서 一種分裂的인 블럭經濟의 形成은 完成의고개를 너머서 이것을 基礎로하여가지고 블럭經濟의 本質的排斥他主義를 完全히 發揮하기 비롯한것이 곳昨年中의 世界經濟上總收穫이 아니엇든가 생각한다 卽 昨年을通하야 經濟上重大事件으로는 米國의 金約款破棄、벨가貨의 平價切下、中國의新幣制斷行等이며 또政治的 重大事件으로는 二次에 亘한獨逸의再軍備宣言 英獨海軍協定 英國總選擧宣言 伊에戰爭의 勃發等을 꼽게되다 그런데 以上과가튼 經濟上 또는政治的重大事件은 모다 經濟的國家主義 그럭치안코면 國際對立의 微化로因한軍備의 擴大等의 事實밧게는 아모意味가 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이곳에서 大體두가지의 큰潮流가 우리의眼前에 滔滔한勢로서 흘는고잇슴을 發見케된다 卽 첫재로 國際協調와 등을 지고 形成되어오는 블럭經濟의 完成狀態와 그의本格的 威勢의 展開이다 둘재로는 歐洲大戰後사여온 國際間反目과 그不滿은結局그對立 位置를 떠나서 正面衝突의 世界政局上 重大危機에 일으라는 切迫의 形勢임에잇는點이다。

二大潮流의過程
封鎖經濟境界劃然

以上과 가티 世界經濟를 차고도는 二大潮流의過程은 어떠한길을 밟어왓는가를 밝힐必要가 잇다、먼저 블럭經濟의 現情勢에 일르기까지의 最近過程을 보자 卽 世界協調運動이 失敗로 도라간뒤 블럭經濟의 形成은 先後를다토아 그의結成에 注力을 보게되야 그結果는 世界經濟는大體로 大英帝國블럭、歐洲의 金本位블럭、쏘베트聯邦블럭、汎米블럭、日滿블럭等으로 各各攻守同盟의 封鎖的 經濟라는 地域的境界가 劃然히 스고말엇다 그래서 블럭과 블럭의 對立은 더욱그激化를 促進하는 結果가 될뿐이며 딸허서 그와反對로國際經濟의 有機的連絡은 더욱希却化하는곳에 안일곳수가 업게되엇다 그럼으로 블럭經濟를基礎로하여가지고 保護貿易主義는 關稅障壁의 高築、또는 國際經濟取引의 支柱인 世界貨幣制度는 金本位를 離脫하야 어느때에나 舊態로 도라슬것이 茫然하고 一面으로 各國은 압흘다토아 赤字인플레에 加鞭을할뿐이엇다 以上은 블럭經濟의 完成에 일르기까지의 一階段으로 볼수가 잇다 그러나 昨年에들면서는 블럭經濟는 本格的 進展의初期에 발을 내여노흔感이 잇다 卽 元來블럭經濟의 出發이 國際協調의失敗에 잇다는것보다도 資本主義末期의 諸特徵으로因한 必然的結果인만큼 旣成된 블럭經濟間의 正面衝突은 結局에잇서서 世界政治危機까지 일호는것이 그의當然한 進路로 보는때문이다 그러면 昨年中블럭經濟의 本格的展開는 어떠하엿든가

金本位危機展開
米國景氣回復促進

먼저 金本位블럭의 [illegible]하야 貨幣引下의 競爭戰이 激게되다 모든나라가 金本位를 離脫되고 잇슴에 不拘하고 佛國을 盟主로한 中歐의 金블럭은 頗然히 金本位의 殘壘를 保持하여왓다 그러나 昨年二月末 磅貨의 暴落으로 金物價水準의 引下에 힘을 쓰든 金블럭도 벨가貨의 二八%平價切下로 그崩落의 危機가 展開되기시작하야 和蘭 佛蘭西 瑞西等諸國이 金本位停止의 不安性을 띄이게되엇든것이다 이와가튼 危機는그뒤 表面上으로는한때 安靜된것가티 보혓다 그러나 實狀은 이危機의 內訌은 金블럭諸國 國內의 政治的危機로 變하고 말헛다 그러므로 裡面에잇서 金블럭의 動搖는 不絶함뿐아니라 이金블럭諸國으로부터의 金流失은 米國의 景氣回復을 促케한다고 傳하는 反面에 잇서 佛國의 法貨平價切下가 不可避일것을 말하는 結果가 되다 그러므로 오늘의 世界經濟에잇서서、殘壘의 金블럭도 崩壞치 안흘수업게된 運命에 接近되는 傾向이 날로 顯著하여간다 그런데 만약에 金블럭이 깨여진다고하면 그때의 世界經濟는 어떠케 될것이나고함에 잇서서는 무엇보다도 첫재로 一層의 通貨混亂으로 貨幣引下의 競爭이 激化케될것이다 이때에 일호게되면 世界各國은 모두 金本位離脫의 地位에 잇게되는만큼 或은 金블럭의 崩壞로서 通貨安定의 曙光이 展開되지안흘가 하는 期待를 가질수도잇다 그러나 오늘에잇서 世界金物價水準의 平準化를 보게 할만한 客觀的條件을 차저낼道理가 업는터임으로 世界의各國이 步調를 一致한行動을 取치못하게 될것이다 딸허서 世界의 倂立抗爭은 各國이 서로 一定한限度가 업시 일호는곳까지 激化케 될수밧게업는形勢에 잇다 이結果 世界各國은 自國의 經濟擴大를 圖謀하야 어느곳에 自國經濟力의發展을 도라는傾向이 생기게될바 卽所謂大領域經濟運動으로서 이것은 블럭經濟의 强化를 意味하는것이다 오늘에잇서 大領域經濟로 볼것은 大英帝國을 中心으로한 大領域經濟 亞米利加合衆國이 資源이 豐富한本國을 中心으로한 大領域經濟 佛國이 그殖民地 全體를 包括해서 形成하라는 大領域經濟等으로 이에依하야各各 自國의 繁榮을 圖하라는곳에 그主眼點이 잇는것은 다시말할것도업다 그런데 이처럼大領域을 가자고잇는나라로서는 그大領域經濟化가 可能性이 잇슬는지 모르지만 그諸國과反對로 領域이 狹少한나라에잇서는 그大領域經濟化는 可能性이업슴뿐아니라 도리혀 他國의大領域經濟化로 그나라의 發展되는 生産力의 伸張은 阻止케되는 結果에 일으고말 不安이 多分으로잇다 그럼으로 大領域經濟力發展을 爲하야 世界의 再分割運動이 머리를 들게될은必然의 勢이며、이것은 結局에잇서 世界政治의 危機에 일호게하는 큰 原因으로 되고말엇다 (續)


世界블럭經濟分野及昨年中情勢

砂糖은轉換難

絹糸商況과 對中輸出商況活況으로活動的으로 好轉되엇砂糖은 瓜哇糖値上期待薄 國內消費市場도 整理 不充分으로 惟함이잇는데 出荷狀態가 豫想外의 不振이엇슴으로 中間與滿市勢도 出現치못하려이니 新春도 別로期待를가지지못하는모양이다。

幣制改革後의中國

果然所期의目的을達할가?
悲觀되는材料가만다 (上)

徐 椿

改革內容

去年 十一月三日에 中國은幣制改革을 斷行햇다。그以後에잇서서의 實績이 如何한가를 보는同時에 今後의 趨勢를보자는것이 本篇의 目的이다。그러기爲해서는 幣制改革의 內容이 무엇이엇든가를 알어야할 必要가 잇슬것이니까 여기 그要點을簡單히 드려보기로 한다。要點은

一、銀은全部 이것을 國有로한다。

二、國內通貨로는 法定紙幣만을 使用하게 한다。

三、元의 對外價値는 英貨一志二片半으로 安定시킨다。

四、前記對外爲替安定資金을엇기爲하야 對英借款一千萬磅을成立시킨다。

等等 四個項目이 그要點이다。

그러고 前記의 目的을 達하기爲하야

一、銀行이건 個人이건을 뭇지안코 民間所有의 모든 銀은 다 政府로 가저 오더랑 그러면 政府는 現銀一元에 對하야 紙幣一元을 주고 收容하겟다。

二、自今前後로 銀塊又는 銀貨를 國內通貨로 使用하는者가 잇스면 嚴罰하겟다

三、그대신 租稅의 納入、公私債務의 支拂 그他 모든 商取引의 支拂에는 法定紙幣만 使用해라。

四、元紙幣의 對外價値를 維持하기爲해서는 新設中央準備銀行又는 期限을 定하야 指定한 銀行等으로 하여곰、英貨一志二片半對 一元의 比率에 依하야 外國貨幣를 암만이고 賣買하기로 한다。

等等의 네가지 方法을 쓴다는것이다。

그런데、新規의 幣制改革을 中國政府인 南京政府側으로 보면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하면 곳、各各 一片의 紙片을 돌녀주고서 民間所有의 銀塊又는銀貨를 모아드리는 가장 有効한 方法이다。

他方、이것을 中國의 民間側으로보면 銀塊又는 銀貨는 全部、나라에 빼앗기고、그대신休紙同樣의 紙片을 돈으로 써야만 되도록 된것이다。

다만 對外價値維持의 一項에 잇서서 紙幣一元對英貨一志二片半의 比率에 依하야 無制限으로 바꾸어 준다는 約束이 擔保할수가 잇다고하면 元紙幣의 對內價値도 對外價値와의 連鎖關係에 依하야 그價値를 保有할수가 잇슬것이나 南京政府現在의 實力으로 能히 所定의 對外價値를 維持할수가 잇슬까는 大槪、疑問中의 最大疑問이라고 할수밧게 업다。그러고 보면中國紙幣의 休紙化는 決局、時間問題라는 疑惧가 濃厚할수밧게 업는것이다。이러한 理由가 잇는故로 幣制改革後에 잇서서의 中國紙幣는 조케 말하면 管理通貨요、나쁘게 말하면 不換紙幣라고하는것이다。

中國의新紙幣

改革理由

中國의爲政者도 이것을 몰랏슬 理致는 업다。그러면 알면서 무슨까닭으로 斷行햇는가가 問題가 될수박게 업다。그런데 이疑問에 對한 解答은 이러하다。卽、

▲經濟的理由

一、銀價騰貴=最近三年來의 米國의 銀價引上策의 影響을 바더서 中國의 在銀流出은 漸次 激甚하며、그때문에 中國流通貨는 缺乏하며、中國諸銀行의 兌換準備의 基礎는 危殆에 陷햇다。

二、産業恐慌=在銀缺乏、通貨不安때문에 金融이 逼迫하며、物價가 低落하야 金融業者商工業者가 共히 破綻의 危機에 瀕하게 되엇다。

三、天災頻發=數年間을 두고、屢屢한 天災地變은 中國經濟破綻의勢에 拍車를 加햇다。

四、財政窘乏=滿洲國獨立에 依한 國土의 狹少、共産軍討伐及反蔣派의 懷柔及反擊에 依한 政費의 增加와 및 前記諸原因에 依한 歲入減少는中國의 財政經濟를 極度로 窮乏케 하엿다。

以上 四個項目의 理由에 依하야 中國으로서는 成敗如何를 도라볼 사이가 업시 早晩間、某種의 財政經濟에 關한 打開策을 講究實施할수밧게 업는 危迫한 處地에 잇는데다가 다시 左記 四個의 政治的 理由가잇섯다。卽

▲政治的理由

一、蔣政權擁護=北中、南中兩方面으로부터 蔣介石 政權은 壓迫되고、特히 反蔣抗日派에 依하야 蔣介石의 地位는 脅威되고 잇는 事實에 鑑하야 內心、反蔣抗日派와 迎合하야 蔣政權의 安定을 保할 必要가 잇섯다。

二、反對派抑壓=現銀(銀塊又는銀貨)의 中央集中에 依하야 各地에 割據反抗하는 軍閥의實力을 大히 減殺시키는 同時에 紙幣流通에 依하야 經濟的으로 南京政府의 國內統一力을 增大시킬 必要가 잇섯다。

三、英國과握手=때마침 英國政府는 中國에 잇서서의 自己資本의 勢力恢復에 腐心하고 잇는 模樣을 보고、이機會를 타서此를 善히 利用하면 勞함이업시 宿望이든 幣制改革을 斷行할수가 잇슬뿐만 아니라、英國의 勢力을背景으로하야 南京政府의 政治的地位를 强化하며、다시 北中에 잇서서의日本의 進出을 牽制할수도잇다。

四、借款도可能=中國은 政府의 統治力이 全版圖內에 遍及치 못하는 關係로 財政收入이 적다。故로 自然히 對外借款을 必要로 하는나라인데、그러자면 自然、何等의 口實이 잇서야 할것이다。그런데、幣制改革을 斷行하면、口實도 생기고、또 이 口實을 밋고 주겟다는 나라 英國도 잇다。따라서 이機會를타서 借款을 成立시키면 이것은國內現銀收容과 함께 南京政府의 窮乏한 財政을 크게 緩和시키는데 效果가 잇슬것이다。

以上을 要컨대 中國이 今番幣制改革을 斷行하기에 至한것은 前記四個經濟的理由와 四個政治的理由에 依하야 不得已、또는 不可避的으로 斷行한것이오 반드시 그成功을 確信하고 斷行한것은 아니다。이러케 보는것이 가장 將來할 實事實과副合할것을 余는 밋는者이다(續)

京城府禮智洞
天一藥房
代表電話長光三五〇番

京城女子醫學講習所
附屬 漢城醫院
貫鐵洞一四〇
電光二八一一
金鐸遠
吉貞姬

京城府樂園洞九五
外科肛門科 X光線科 醫學博士 吳一承
電光二八五一

具小兒科醫院
トクドール 具永淑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七二
電話光化門一三七一番

醫學博士 任明宰
安國醫院 內科小兒科
京城府安國洞一六三(電光一五一番)

京城公平洞一番地
高永珣內科醫院
電光一六二六番

京城府鐘路二丁目二
民衆醫院
電光二五五七番
外科、皮膚科、花柳病科長 劉錫昶
內科、小兒科、神經科長 李忠夏
眼科、耳鼻咽喉科長 景祺鉉
齒科、口腔外科長 李東奕

活命水本舖
株式會社同和藥房
京城府和泉町一番地
電話光化門二七九番
振替京城三八一番
私書函西大門局一二五番

京城太平通二丁目
藥種販賣 賣藥製造 濟生堂藥房本舖
電話本局一七二八番
振替京城五一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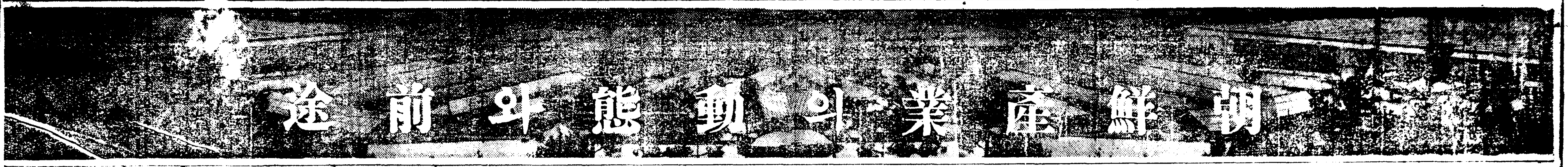
一般新藥製造發賣 金剛製藥所
(京城藥化學研究所改稱)
新築移轉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七番地
電話本局長一、三三五三番

眼科專門
安國醫院
京城安國洞一三八番地
電話光化門一八五五番

京城府鐘路二丁目一五番地
博愛堂藥局
電光一一七
振京一三六〇三番

京城府鐘路二丁目二
救命金丹 理經保胎丸 本舖 普仁堂藥房
電話光化門一二二六番
振替京城五一六一番

京城授恩洞三十三番地
補血强壯 參茸精 驚肝風氣 保兒丸 製造本舖 朝鮮商會
電話光化門一七八五番
振替京城一〇三八六番



統制經濟의全貌
急激한斷行은弊害莫大
咸尙勳

一、自由經濟와統制經濟

近來 經濟의 統制란 말은 到處에서 듯는다。電氣統制、自動車線路統制、鰮油肥統制、米穀輸出統制等 그 數爻를 거이 헤일수업다。그러면 統制經濟란 말은 무엇이며、統制經濟는 왜생기며 朝鮮에 現在 進行되고잇고 統制의 經濟部門은 어데어데 인가。

統制經濟라는것은 自由經濟의 反對다。企業의 自由、營業의自由로써 根本原理를 삼는 自由主義經濟、資本主義經濟에 統制를 加하는 經濟니 計劃經濟에 가는 過渡的 經濟現象이라 할 수잇다。

封建時代의 經濟制度는 깁드間의 契約에 依하야 企業의 自由가 업섯는데、資本主義制度가 採用됨에 이르러 모든 企業은 自由를 原則으로 삼게되엇다。그런데 大戰中 企業規模가 突然히 膨大해저서、全世界的으로 發展하얏는데、戰後의 反動的 恐慌은 若干의 操業短縮、若干企業의 破産으로 自由主義經濟가 恢得되지 못하얏다。이리하야 國家의 强制力과 企業者間의 協定으로 企業의合同、聯合 又는 協定이 되어企業의 自由는 업서젓다。이것이 統制經濟의 생겨난 根本理由다。

二、朝鮮統制經濟의特徵

朝鮮의 新經濟制度 樹立은 最近 數三十年間의 일이다。그러므로 幼稚한 經濟를 發達시킬에 國家的 幹旋力이 만어슬것은 勿論이오、따라 國家의 統制力이 强할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會社의 許可대신에 屆出制를 採用한 會社令의 發布가 大正八年에 되엇지만 보드래도 企業의 自由라는것이 얼마나 늣게 認定되엇는가를 알수잇다。이러하야 朝鮮의 經濟는 政府의 强制力、即 統制力에 依하야 發達되고 또 維持되고 잇다。以下 朝鮮의 統制經濟의 各部門을 詳考하기로하자。

三、技能의尨大國營事業及特殊銀行會社

朝鮮經濟에 잇서서 國家統制力의 强大한것은 國營事業、專賣、特殊銀行、會社의 機能의 尨大한것이다。

朝鮮의 國營事業은 鐵道、電信、電話、郵便、郵便貯金、營林署等 多方面에 亘하얏다。昭和十年度豫算面에 나타난 昭和十年度 官業收入은 鐵道 八千九百九十餘萬圓 郵便、電信、電話 一千七百九十餘萬圓 鹽、煙草、人蔘、麻藥等 專賣收入 四千八百餘萬圓으로 合計 一億六千九百餘萬圓을 算하야 十年度總督府 歲入總豫算 二億八千八百萬圓의 半分以上을 占하얏다。써 國營事業의 朝鮮經濟에 잇서서의 存在를 알수잇슬것이다。

特殊銀行으로서의 朝鮮銀行과 朝鮮殖産銀行이 前者는 一兌換券發行機를 가지고、後者는 不動産銀行으로서 各各 政府로부터 巨額의 補助金(引受株金 朝銀 百五十萬圓、殖銀三十二萬九千圓 貸下金朝銀七千萬圓、殖銀 一百四十五萬圓)을 밧아 가지고 朝鮮內 全銀行資本金의 七割以上(朝鮮內銀行總數 十七의 拂込資本金은 六千百萬圓 兩銀行의 拂込資本金은 四千五百萬圓)을 가젓스며 全預金 二億四千五百萬圓의 約五割과 全貸出高 六億圓의 約六割을 占한것은 朝鮮金融經濟에 政府가 如何한 統制力을 가젓는가를 알수잇슬것이다。

特히 東拓가튼 半官 半民의 會社가 移民과 金融과 土地經營事業을 目的으로 朝鮮에 進出하야 如何한 威力을 發揮하고 잇는가는 農村 農夫婦孺도 잘 아는바다。

四、庶民金融産業機關과國家統制力

金融機關에 關聯하야 國家統制力의 强大한 機關으로서 金融組合을 이저서는 안된다。金融組合은 政府로부터 三百六十萬圓의 下付金을 밧아 都市、村落에 組織된것인데그組合數는 七百餘、加入人員 六十萬、出資總額 一千萬圓、預金 七千萬圓 貸出額 一億圓으로 莫大한 勢力을 가젓다。그런데 이 金融組合의 理事及 이 組合을 監督하는 金組聯合會及 그支部의 理事長의 任免이 總督의 權限에 屬하고 組合定款의 改正 其他 온갓에 道知事의 監督을 밧게되엇스니 國家統制力이 얼마나 强한가를 알수잇다。

産業組合은 信用制度를 除한 協同組合인바 여기에도 政府의 統制力이 强大하야 小生産業者의 自由意思란 少許도 容納되지 못하고 그機能、權限은 産業組合에 잇서서의 金融組合이다。

殖産契令이 最近 發布되야 漸次 組織을 보게되엇는데 이것은 要컨대 小規模의 産業組合이오、金融組合의 直接 支配를 밧자는 國家權力 支配下의經濟的 細胞團體다。이리하야 政府의 經濟的 統制力은 村村谷谷 家家戶戶에 未及하랴한다。

五、共販制度와一手買受制度

政府가 直接 事業을 經營한다든가、補助金 又는 貸與金을 주는 同時에 官吏나 監督者를 派遣하야 事業에 當케는 안한다 할지라도 小生産者의 利益을 擁護한다는 名目下에 大財閥의 利益을 擁護하는 結果를 짓는 統制가 잇다。棉花、蠶繭의 共同販賣制度와 鰮肥油의 一手買受制度다。

棉花는 綿布의、蠶繭은 絹布의 原料로 各其現代 纖維工業原料中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는것이 事實이다。그런데 朝鮮서는 棉花、蠶繭을 販賣함에生産者의自由意思로 되지못하고 當局과 綿絲又는 蠶絲製造業者가 協議決定한 價額으로 當局이指定한 商人에게 當局이 査定한等級에 依하야 當局이 指定한 時日、場所에서 販賣케되다。萬一 이것을 違反하면 違令違反으로서 罰金에 處한다。棉花外 咸南北及 平北의 三道를 除하고 蠶繭은 全朝鮮은 數十萬生産者의 自由意思를 無視한 販賣統制는 實로 그 名目이 누구의 利益을 爲하야서라하던지 再考할 問題이다。

鰮肥油가 三菱合同油脂等 一二特殊財閥에게 一手買手權을주어 他商人의 競爭入札을 不許하는것도 棉花、蠶繭의 共同販賣와 가티 不公平하다。自由入札이면 北海道時勢대로 一纜四圓以上을 밧을것을 當局과 當局에서 指定한 水産組合聯合會가 모여 協定한 價格으로 팔기때문에 그 半밧에 못밧는 不利益을 보고잇스니 萬一 이것이 當局의 統制가 업다할것가트면 咸南北 江原 慶南北의 五道漁民은 現在의 年收入 一二千餘萬圓의 約倍인 四、五千萬圓의 收益이 잇슬것이다。

六、카텔과트라스트

政府의 統制업이 企業者間의 自由協定으로 統制하게 되것은 얼마 안된다。왜이러냐하면 朝鮮에는 大規模의 企業은 적고 잇다하드래도 朝鮮에 本店을 둔것은 적고 大槪 日本內地에本店을 두고 朝鮮에는 支店、又는 그 支工場을 둔때문이다。

이리하야 朝鮮에 支店 又는 支工場을 둔 會社는 이미 日本內地에서 카텔、트라스트에 드러스므로 朝鮮內에서도 協定이 된셈이다。例컨대 鐘淵紡績이 最近 仁川、光州에 工場을 設置함에 對하야 東洋紡績이 永登浦에 大日本紡績이 또 永登浦에 分工場을 設置하므로 一見 競爭가트나 이미 本社에서 生産數量、價格、販賣地域을 協定하얏스므로 競爭이 아니오 昭和麒麟과 大日本麥酒가 永登浦에 가티 工場을 지어 競爭하는것가태도 이미 朝鮮內의 麥酒消費는 朝鮮內의 것으로 하자고 兩本社間에 協定되엇스매 또 競爭이 아니다。窒素肥料는 大日本窒素系가 供給하니 獨占事業이오 세멘트는 勝湖里及 川內里의 小野田工場이 잇슴에 對하야 會寧에 淺野系의 工場이 생긴다하나 이또한 本社間의 協定에 依한것이다。王子製紙의 新義州工場이 잇고 吉州에 새로 工場이 서는것은 王子王國을 말함이오 光州、大邱、大田等地에 片倉、郡是、鐘紡의 三製絲工場이 設立、擴張되나 이 또한 競爭이 아니라 本社間의 協定에 依한 朝鮮進出임은 말할것도 업다。이밧게 日鐵製鐵、兼二浦工場이 鎭南浦工場과 競爭關係가 아님은 말할것도 업고、朝鮮製鐵、朝鮮皮革永登浦工場、朝鮮窒素會社와 마찬가지로 軍需工業及 國策上 重要産業이라하야 莫大한 保護下에 잇는것은 衆人周知의 일이다。朝鮮內의 企業合同으로서 代表的인것은 最近에 成立한 朝鮮無煙炭會社일것이다。

七、小商工業의同盟

大企業도 아니오、또 金融組合가티 政府의 强制力도 아닛고 統制되는것은 小商工業者의 組合으로된 重要物産同業組合과 輸出工業組合이다。大正四年에 重要物産同業組合令으로 되것인데 最近調査에 依하면 蠶業同業組合 二百六、同聯合會 十二、果物同業組合 六、同聯合會 一、織物同業組合 (一、毛物、酒造、紙物、木炭、穀物의 同業組合 各重要物産輸出組合은 昨年 同輸出規則에 依하야 組織되는것인데現在는 若干 中小工業에 限하야 琺瑯鐵器、고무製品輸出에도 適用하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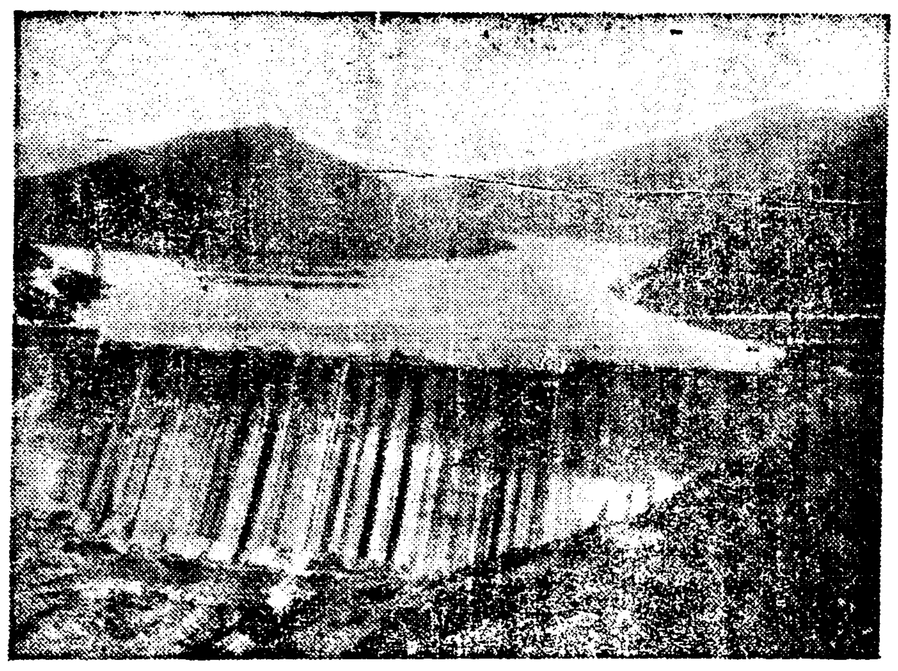
水産組合은 이미 組織된것도 잇고 組織되라는것도 잇는데當局의 干涉이 만코 小生産者(例컨대 漁夫)의 利益을 除去하는嫌疑가 잇다。

이밧게 製絲會 正租檢査規則에 依한 統制도 金組가지는안호나 名目은 生産者를 擁護한다는 理由下에서 中小産業者의 非難의的이되어잇다。

朝鮮産業全般을
近年躍進의裏面解剖
朴用來

이지음 朝鮮의 産業은 躍進하고잇다는 말을 흔히 듯는다 이는 朝鮮産業에 大資本의 躍進的進出과 그 生産額의 增大를 意味하는 듯하다 果然統計에 나타난 數字를보면 大資本의 進出은 特히 最近에 이르러 稍目할만한바가 잇스며 그生産額도 顯著히 增加되고잇다 이러한 意味의 躍進이라면 누구나 異議가업슬것이다 그러나 統計는 나날히 이러나고잇는 社會的 經濟的 모든現象을 計數的으로 表示는할지언정 그 內面에 잇서서의 錯雜한 事情을 直接 說明까지는하야주지못한다 그럼으로 統計數字를 아무런 解剖도업시 그대로 본다면 수박겉핥기만 할 무解剖도업시 코속을 맛보지 못하는 셈으로 數字뒤에 숨은 기픈 事實은 알수 업슬것이다 大資本의 進出反面에 中小資本乃至在來의 封建的形態의 經營은 沒落하고 生産額이 增大하얏다하야도 大部分의 民衆은 그恩澤에 均霑치 못하고 一部少數大資本家가 그利益을 獨占함을 볼수잇다 이제 여기에 日本內地大資本의 朝鮮産業進出狀況을 記述하야 보려 하거니와 資本勢力의 對照批判은될수록 避하고 單只羅列式으로 列擧하야 이만한 日本內地大資本이 朝鮮에 뿌리를 나리우고잇다는것만을 적어 參考에 供하려고한다

大資本이進出支配


◇朝窒經營의 長津江水力電氣 發電所의 大堤堰

農業
在來는投資旺盛 漸次로工業에轉換

朝鮮은 元來가 農業國이오 日韓合倂以後로 日本內地의 食糧供給地 또는 日本內地 工業의 原料供給地及그商品販賣市場으로 制約되어왓기때문에 獨自의 工業發展은 그리 보잘것이 업고 農業에 〈注力되어〉 投資의 大部分은 이 方面에 集中되어왓나니 日本內地人資本의 朝鮮農業投下는 日復日 그 地步를 鞏固히하야 昭和九年末現在 所有地三十町步以上의 大地主만을드러보면 九千八百九十戶中 日本內地人은 二千五百五戶요 朝鮮人은 七千三百四戶로 朝鮮人數가 훨신만흐나 이를 所有面積別各階段으로 나누어보면

▲三十町步以上	
日本內地人	四五三
朝鮮人	二、三二九
▲三十五町步以上	
日本內地人	三三六
朝鮮人	一、五〇一
▲四十町步以上	
日本內地人	三六九
朝鮮人	一、三六九
▲五十町步以上	
日本內地人	四二七
朝鮮人	二、一五五
▲七十町步以上	
日本內地人	三二八
朝鮮人	五八四
▲百町步以上	
日本內地人	二八八
朝鮮人	二九五
▲百五十町步以上	
日本內地人	一二四
朝鮮人	一二七
▲二百町步以上	
日本內地人	一九〇
朝鮮人	四四
計	
日本內地人	二、五〇五
朝鮮人	七、二〇四

로 所有面積이 커질수록 日本內地人이 차지하는 比例는 漸次로 만허저 七十町步까지는 朝鮮人이

〈斷然優勢〉

하나 七十町步以上부터는 그比例가 急低下하야 對等한 數로나가다가 二百町步以上所有의 巨大地主에 이르러서는 形勢가逆睹되어 日本內地人은 一百九十戶인데 朝鮮人은 四十四戶에不過하야 大規模 農業經營에잇서서 日本內地人의 勢力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잇스며 그들少數大資本家의 手中에 土地가 集中되어 잇슴을 推察할수잇다 이 土地集中狀況을 알려면 그 所有面積을 보아야 될터이나 이에 對한 最近數字를 엇지못함은 遺憾이다

工業
好條件의具備로 近年에急激히進出

上述한바와가티 朝鮮은 從來農業에 偏重되어왓스나 米穀을 中心으로한

〈數年以來〉

所謂外地米問題로 對日本內地關係에 잇서서 農業投資는 自然 制約되어 投資의 方向이 轉換되게 되엇스니 아즉 微微하든『朝鮮工業振興』의 必要를 느끼게 되엇다 朝鮮은 元來가(一)各種資源이 豊富하야 原料를 低廉하게 購得할수 잇는것(二)動力에잇서서 도豊富低廉한것 (三)産業統制法의 圈外에잇는 特殊地域임으로 販賣價格 或은 生産高에 아무拘束도 바듬 念慮가업는것 (四)工場法이 實施되지안허 一晝夜操業을 할수잇는것 (五)幼年保護에關한 法令도 實施되지안허 賃金이 極히 低廉한 年少한 兒童을 自由로 驅使할수잇는것(六)從來 자칫하면 能率이업다든 朝鮮職工의 能率도 相當한데다 賃金은 低廉한것 (七)勞働運動이 日本內地에比하면 微弱한것 等

〈工業經營〉

에 好條件이 具備되엇다든때 맛참 金輸出再禁止에依한 인풀레景氣와 滿洲國成立으로 그 廣大한 市場을 뒤에엇은 地理的優越性을 兼備하게되어 日本內地資本家의 觀線은 工業으로 쏠리게되엇스니 各種工業이 採算的으로 企業되게되엇다

昭和八年一月一日現在 朝鮮內에 本店을둔 工業會社數는 拂込資本金 五萬圓未滿의會社八百四 五萬圓以上의 會社二百十五 合計一千十九社인데 이를 組織別社長別로보면

▲株式會社

	日本內地人社長	朝鮮人社長	外國人社長
五萬圓未滿	[illegible]	[illegible]	一
五萬圓以上	[illegible]	[illegible]	二
計	[illegible]	[illegible]	二

五萬圓未滿의 會社에 잇서서는 日本內地人會社는 五百七社인데 朝鮮人會社는 二百九十七社요 五萬圓以上의 會社에잇서서는 日本內地人會社는 一百六十七社인데 朝鮮人會社는 四十六社로 比較的 日本內地人 會社는 大規模의것이 만흐며 朝鮮人會社는 小規模의것이 만흠을 알수 잇다 다시 이를

〈資本高別〉

로 細分하야보면

	日本內地人社長	朝鮮人社長	外國人社長
一萬圓未滿	二七〇	一六二	一
一萬圓以上	一一五	七七	—
二萬圓以上	六七	三六	—
三萬圓以上	四二	二二	—
四萬圓以上	一三	一一	—
五萬圓以上	五六	二三	一
七萬圓以上	二六	五	—
十萬圓以上	二七	一〇	—
十五萬圓以上	九	二	—
二十萬圓以上	一五	三	—
三十萬圓以上	一一	一	—
五十萬圓以上	一三	三	—
百萬圓以上	七	—	—
三萬萬圓以上	二	—	—
一千萬圓以上	二	—	—

로 資本金이 만흔 大會社일수록 朝鮮人의 資本勢力과는 距離가 머러저 資本金 百萬圓以上의

〈巨大會社〉

에는 이러한 因緣이 업는 狀態이다 다음에 이 工業會社의 拂込資本金額을 보면 資本金 五萬圓未滿의 會社 九百十六萬五千六百七十五圓 五萬圓以上의 會社 一億三千六十八萬五千二百十七圓 合計 一億三千九百八十五萬八百九十二圓인데 이를 組織別 社長別로 보면

〈工業會社〉

總數中 日本內地人資本支配下에잇다고볼수잇는 日本內地人社長의 會社(以下單只日本內地人會社라함)는 六百七十四社로 六割六分一厘를 占領하고잇고 朝鮮人資本支配下에 잇다고볼수잇는 朝鮮人社長의 會社(以下單只朝鮮人會社라함)는 三百四十三社로 三割三分七厘인바 資本金五萬圓을 標準으로 未滿과 以上으로 나눈 會社數를 보면

	日本內地人社長	朝鮮人社長	外國人社長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資會社			
五萬圓未滿	三六五	一九九	一
五萬圓以上	二九	四	一
計	三九四	二〇三	一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一
▲合名會社			
五萬圓未滿	五四	四三	—
五萬圓以上	九	一	—
計	五九	四四	—
計에依한千分比	五七三	四二七	—
▲右合計			
五萬圓未滿	五〇七	二九七	一
五萬圓以上	一六七	四六	二
計	[illegible]	[illegible]	二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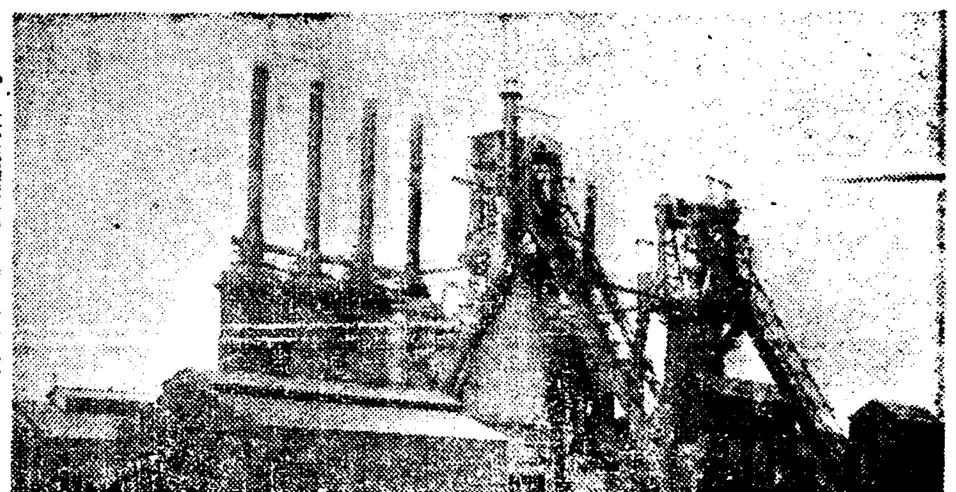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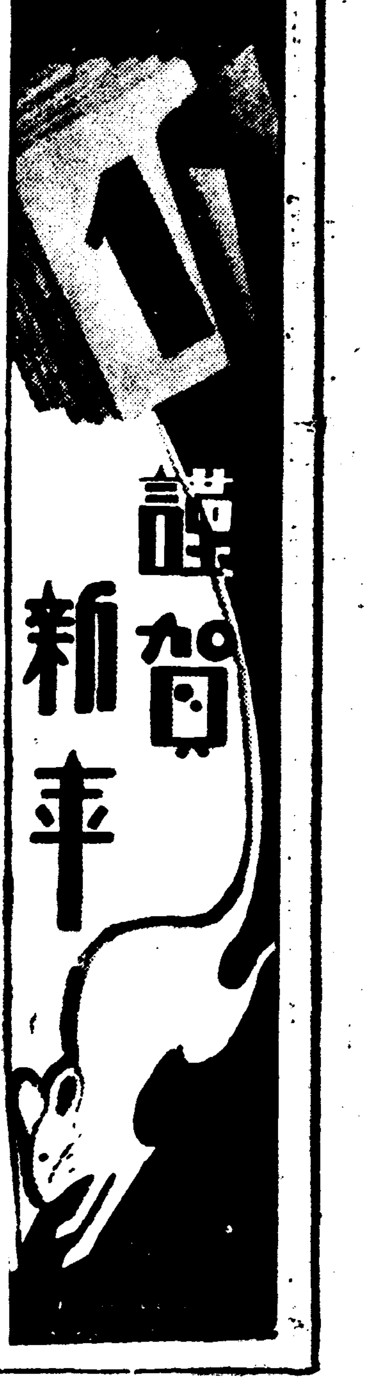
	日本內地人社長 圓	朝鮮人社長 圓	外國人社長 圓
五萬圓未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萬圓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資會社			
五萬圓未滿	[illegible]	[illegible]	—
五萬圓以上	[illegible]	[illegible]	—
計	[illegible]	[illegible]	—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
▲合名會社			
五萬圓未滿	[illegible]	[illegible]	—
五萬圓以上	[illegible]	[illegible]	—
計	[illegible]	[illegible]	—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
▲右合計			
五萬圓未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萬圓以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에依한千分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로 日本內地人 會社의 資本金은 一億二千六十九萬八千三百四十七圓으로 總拂込資本金의 八割六分三厘를 차지하고잇는데 朝鮮人會社의 資本金은 九百十萬二千五百四十五圓으로 겨우 그 六分五厘밧게 안되어 會社數에잇서서 보다도 實質的

〈資本勢力〉

의 差異에 엄청난 놀래지 안흘수업스며 日本內地人 會社에 잇서서 五萬圓未滿의 會社의 拂込資本金은 五百九十五萬九千六百三十圓에 不過한데 五萬圓以上의 會社의 拂込資本金은 實로 一億一千四百七十三萬八千七百十七圓에 達하야 이를 朝鮮工業에 잇서서 日本內地人會社의 會社數와 對照하야볼때 그 會社中에서도 一部少數의 巨大會社가 얼마나 尨大한 資本勢力을 갓고잇는가를 알수잇다 [illegible]


◇日本製鐵經營의 兼二浦製鐵所鎔鑛爐



京城府鍾路
朝鮮料理 太西館
電光 一〇三四番 二〇五六番
別莊 漢江鐵橋越便龍鳳亭內 電話(龍)一三四一番

京城府公平洞二番地
朝鮮飮食界覇王 大連館
電話光化門(二)三四三四 三四三〇

京城府武橋町九二番地
漢城券番
電話本局 三五五五番 四五六五番 五二八四番

京城府堅志洞四六
中華料理 東海樓
電話光化門六九四

京城府淸進洞一二九
中華料理 元興樓
電話光化門二六〇一番

京城府公平洞二十五番地
東旅館
主 孫 義 日
電話光化門長六九九番

京城府貫鐵洞二二八(鍾路四街邊電留場直後側)
高麗旅館
主 高 珩 權
電話光化門一二二七番

京城府孝悌洞一〇九番地
不老商會 朴疇明
電話光化門二一八七番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二番地(永保ビルヂング內)
朝鮮麪子株式會社
社長 金思演
電話光化門 一一三五番 二六六二番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二番地(永保ビルヂング內)
朝鮮麪子株式會社
專務 安田慶淳
電話光化門 一一三五番 二六六二番

クリーニング界大王
三洋舍クリーニング部
安田榮
京城府廣珠洞二二番地 電話 光化門三〇六番

京城鍾路
里門食堂
洪鍾煥
代表電話光一一五〇

土地改良事業의 中止와 實績一瞥

(1)……洪鍾仁

一、起筆의 要旨

지금 筆者가 論述하려는 土地改良事業은、日本의食糧問題解決을 前提로한 朝鮮總督府의 最大産業政策인 産米增殖計畫下에 遂行된 土地改良事業임은勿論이다。따라서 土地改良事業을 말함에는 當然히 産米增殖計畫이란것을 全面的으로 論함이 必要할것이나、여기에

土地改良事業이라는論題를 取한것은、土地改良事業의 直接的工作에 要한資金의 運用關係를 主로한 土地資本의 活動 如何를 部分的이나마 그片鱗을 알아보고저 함이다。産米增殖政策이 가지는 政治的意味가 重大함은 더말할것도 업거니와、이를 爲한土地改良事業이 農業國인 朝鮮의農土、農民、農業全般乃至全産業과 全經濟界에 變革을이르킴이、全面的으로 가장 深刻하고 重大하엿슴은 다시 더말할것업다 그런데 本事業은昭和八年에 들어서 事實上 中止를 不得已하엿고、當局으로서도 昭和九年 五月 三十日 政務總監으로부터 「一時中止」를 正式으로 聲明까지하게되고 오늘까지 그 整理란것이 重要한 課題가되여잇는데 昨年의 日本內地의 凶作과 米價高에 依하여 一部 拓務省方面에는 産米增

增殖計畫의 復活論이 잇다고 傳하는 한편에 朝鮮內에서는 水利組合의 組合費引上이 論議되며 部分的으로는 그 實施를 보는듯도하여 世上의 物論을 喚起하고잇다。이에 이事業은 어떤 方面으로 遂行되든것이며 또 그 整理란 어떤것이냐 하는것을 論究하여 今後 當局의 政策을 靜觀키로하고 本稿를 起草하려는바이다。

在來式灌漑의實況

二、計畫의 一般

本事業의 中止와 그 實績을 보게하여서는 于先그 計畫의 一般을 말하지안을수가업다 그計畫의 當初는 大正九年 朝鮮內의 米穀需要增加의 傾向과 全日本의 食糧問題解決을 目標로 畓八十萬町步의 改良擴張을 三十個年에 完成키로하고、第一期에는 十五個年에 四十二萬七千餘町步의土地改良을 完成하여 約九百二十萬石의 産米를 增收하려든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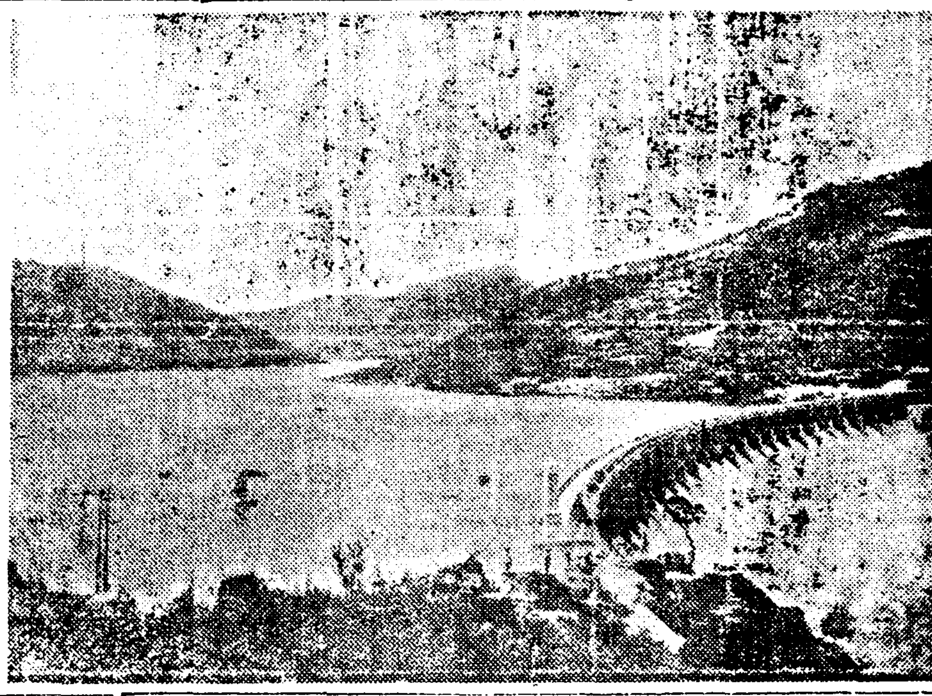
事業着手未久에 財界의 變動과 金利高로 不得已事業計畫을 變更하여 大正十五年부터 十二個年에 旣成畓十九萬五千町步의 灌漑改良、田을 畓으로하는 地目變換九萬餘町步、開墾及干拓六萬五千町步、合計三十五萬町步의 土地改良을 施行하여 約二百八十萬石、또土地改良施行區域內에 施肥의增加等으로 約百九十二萬石 合計四百七十二萬石의 增收를보고 다시 土地改良區域外의百三十九萬町步에 對한 農事改良으로 約三百四十四萬石을總合하여 約八百十六萬石의增收를 目標로한것이다 그리고所要資金은 總額三億八千五百三十三萬圓으로 그中

國庫補助六千百七萬圓과 企業者調達(水利組合아닌것) 資金二千二百六萬七千圓을 除한外의 殘額一億九千八百十九萬七千圓은 低利資金을 供給키로 되엿다

三、中止와 實績

以上의豫定計畫에依하면 明昭和十二年까지가 施行期인데(그完成은 十四年까지) 事實上의 中止를 보게된 昭和八年까지는 七個年으로 事業期間의半以上을 經過하여온것이다 其間의 經過를 보건대 當初부터 無理가 업지안엇스나 當局으로서는 計畫施行後 三、四年間은 大體로 順調로왓다고 보고잇다 그러든것이 昭和五年 一千九百萬石이라는 空前의 大豐을보게되며「豐年饑饉」의怪現象을 現出하자、當時收益採算의 基礎가되든 正租가 石當十圓乃至十二圓以上으로 豫想하엿든것이 八圓未滿으로暴落을 보게되니 農家經濟는完全히

破綻을 보게되며 水利組合區域內의 農民들은 組合費延納、組合債償還期間 延長組合讓入缺陷의 國庫補助等의 運動을 이르켜 거이 民衆化하엿다이에 當局으로서도 採算上 不得已한바를 如何히 할수업서마츰내 土地改良事業은 事實上中止를 보게되엿든것이다 그리고 이事業의 中止聲明까지 보게된 重要한 契機로는 多



東津水組雲岩貯水池

年計劃中이든 平南의 大明和水利、合의案이 地主들의 反對를만나 昭和九年 中央政界에까지 陳情을하게되자 때는 議會開會中이요 參하여 米穀問題가 國內問題로 極히重大化하엿든때라 總督府方面의 強硬反對에도 不拘하고 그陳情은 効果를어더 議會席上에서 當時의 永井拓相은 昭和水組案의 施行中止를 言明하게 되엿다 이에 斷然中 産米增殖計劃은 政治的으로 一針을 바든것이되고、또 採算不利와 各水利組合의 難局 그狀態가 事業의 積極的進行을

斷然不許하는 情勢에 잇서 昭和九年五月末에는 今井田政務總監으로부터 事業의 一時中止를 正式聲明케까지 되엿다 當局으로서는 오늘까지 土地改良事業의 「一時中斷」을 말하엿스되 産米增殖計劃의 中止는否認하여왓다。그러나 이에이르러 産米增殖計劃의 積極策도 自然中斷된것은 言外에 說明되는것이다。그러면 그間의

地面에나타난 實績은 豫定總面積三十五萬町步에對하여 어떠한것이엇든가(昭和八年七月末現在)

	豫定面積	實績	步合
元年	二六、三〇〇町步	四、五三三	一七%
二年	一九、三〇〇	一四、三六六	七四
三年	二七、五〇〇	二〇、三五三	七四
四年	二三、三〇〇	一八、九〇八	八一
五年	二八、四〇〇	一五、五九九	五五
六年	二九、〇〇〇	一三、六一四	四七
七年	二六、〇〇〇	七、七六八	三〇
八年	二八、〇〇〇	二、九三三	一〇
計	一八八、六〇〇	一二五、一四八	六六

以上은 着手部分의 實績이나 竣工의 實績을보면 더不振하엿스니、即

豫定面積 十八萬八千六百町步에 對하여 實績은 不過十二萬五千百四十八町步로 豫定面積에對한 六割六分에 不過하며 昭和八年에는 單七分의 竣工밧게 못보앗다。이로써 事業中止의 事實이 一目瞭然한것이다。

——계속——

昨年中에 發布된 重要經濟關係法令

—(一)— 張元俊

過去 一年間에 公布、發布를본 朝鮮의經濟에關한 法令과規則은 勿論 十數件으로 其外 一部改正을 要한것까지 合하면 近卄件에 達하는데 그中에制令으로는 『朝鮮臨時利得稅令』『朝鮮麻藥取締令』『朝鮮製絲業令』『朝鮮船舶安全令』『殖産契令』『朝鮮登錄稅令中改正』『朝鮮營業稅令中改正』等이잇고 總督府令으로 發布된것으로는『朝鮮簡易生命保險積立金의 預入에 依한 預金部資本金融通規則』『朝鮮外國船舶安全規則』『朝鮮船舶設備規程』『朝鮮船舶滿載吃水線規程』『朝鮮木船構造規程』『朝鮮船舶用品取締規則』『朝鮮船舶用品檢查試驗規則』『朝鮮漁船特殊規則』『朝鮮穀物檢查令施行規則中改正』『朝鮮危險物船舶運送及貯藏規則』『朝鮮重要輸出品檢查規則』等이잇다。

以上 列擧한 法令과規則에 對하야 내가여긔서 말하려는것은 그에對하야 分析批判을 試한다기보다 차라리 그內容의紹介와 그가 實施行使에잇서 社會에미치는影響에對하야 一言하려고한다 그러나 紙面上 關係로 그全部에亘하야 言及하기는 困難하므로 그中에서 가장 普遍的이오 民衆生活과 密接한 關係에잇는重要한 法令과規則을 멧가지 드러서 略記하려한다

朝鮮臨時利得稅令

이法令은 昨年四月三十日 制令第五號로公布、實施를본 全文四十四條 施行規則十四條로된바 同令에依하야 臨時利得稅를 賦課함은 昭和十二年十二月三十一日을包含한

事業年度까지라고하엿다 이제 그內容을略記하면 第一條에「朝鮮에 本店又는 主要한 事務所를 두는 法人은 本令에 依하야 臨時利得稅를 納入할義務가有함」第二條「前條의規定에 該當하지안는法人이 朝鮮에 資産又는 營業을 所有할時 그利得에 對하야서만 臨時利得稅를 納入할義務가有함」이라고한바와가티 法人에對하야 臨時利得稅를 賦課하기로되엇다 그러나 第四條의 規定에依하야 臨時利得稅는 年利得額千圓以上부터 賦課하는데 第十二條의 稅率決定規定에잇서서 稅率은 利得額의百分之十으로하엿고 이規定에依하야算出한 稅額이 利得金額中 年千圓을控除한 金額을

超過할時는 그超過額에 相當한 臨時利得稅를 免除하기로되엇다 이法令에 잇서서 利得稅賦課最低額을 千圓으로한것은 中小法人에對한 考慮에잇서서 百分之十으로만 定하고 累進率이 適用되지안흔것은 大資本에對한擁護를意味하는同時에 負擔均等의 重大한意義를 喪失한것이라고할것이다

朝鮮重要輸出品檢查規則

이規則은 昨年四月二十六日附 總督府令 第六十五號로發布 同五月十一日부터 實施를본 全文五條의規則인바 이規則의重要內容은 第一條初項에「重要輸出品은 本令에依하야 組合又는 그의聯合會公益法人 또는 道에서 行하는 檢查에 合格되지아니면 營利의目的으로서 此를

輸出함을不得함 但特別한事由에 依하야 朝鮮總督의 認可를受한것은 此限에不在함」이라고 한것과가티 이는 大企業、大工場의 生産物이 그의目標라기보다 中小企業共同作業乃至 家內工業의 生産品이 그의重要한 對象이라고 보는것이 妥當한見解일것이다。現在는 第一條後項「重要輸出品은 朝鮮總督이 此를指定함」이라는規定에依하야 輸出[illegible]에만 適用되고잇는程度이나 今年中으로 그適用範圍를 擴張하야 玻璃製品、고무製品 自轉車 양말等에도 此를適用하리라고傳한다 그리고 第三條의「第一條 第一項의 檢查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檢查標準에 依하야 此를 行함」이라고

規定한바와가티 이에依하야 朝鮮輸出生産品의 品質을 向上하며 그 不統一을 整齊하야 對外的信用을確保한다는 意味로 보아서는 吾人도 贊成안하는바가 아니나 特히 資本의 發達이 微弱하야 그大部分이 中小形態를 버서나지못하고잇는 朝鮮의 特殊事情에 잇서서 그가 好影響을 주리라고는 期待키가 어려운 일이다 웨 그러나고하면 그들의 經營이 小資本에 依存되어잇스니만치 精密한 現代的 技術을 充分히 利用할수업는것 그 結果 生産品이 粗雜하여지기가 쉬운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不完全한 商品에 아모 準備工作도 업시 突發的으로 檢査制를 採用하게되는것은 業者에게 가장 打擊인 不合格品을 만히 내는 結果를 나타낼것이다 이러한 關係로 昨秋에

平壤의 고무業者와洋襪業者가 本規則이 自己네의 生産部門에도 適用될것을 念慮하야 그를 未然에 防止코저 한동안 反對運動을 이르키기까지 잇섯다。더욱히 이檢查制가 朝鮮의 細窮民을 本位로 하는 家內工業品에까지 適用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가 設令 輸出品에 局限한것이라고 하드래도 밋치는바 影響이 決코 적다고는 볼수업슬것이다。하며 第五條에 本規則에 違反하야 重要輸出品을 輸出하거나 또는 檢查를受한者는 百圓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하엿고 未遂罪도 此를 罰함이라는 峻烈한 規定이 서잇는것이다。

朝鮮製絲業令

이法令은 昨年八月二十八日附 制令 第十一號로 公布되야 同一月一日 實施를본 全文十條施行規則(同十月二十一日附 總督府令 第百二十七號)十四條로된바

本法令의 重要한 內容은 다음과 갓다 一、本令의 適用하는 製絲業者의 範圍에 關한 規定에 잇서서 第一條에「本令에서 製絲業者라稱함은 朝鮮總督이 定하는者를 除外한

生絲製造業者를 云함 生絲의 製造場을가진 産業組合은 朝鮮總督이 定한外에는 本令의 適用에 잇서 此를 製絲業者로 看做함」이라 하엿고 施行規則 第一條에「左의 各號中 하나에 該當하는者는 同令에서 製絲業者로 看做지안흠」이라고 하야

가、五釜未滿의 設備로서 生絲를 製造하는者

나、「揚返」又는 束裝以後의 工程만을 行하는業者

다、他의 委託에 依하야 生絲製造만을 하는業者

라、産業組合所有의 製絲機를 利用하거나 또는 産業組合에 委託製絲만을 하는業者

마、五釜未滿設備의 製絲機를 가진 産業組合

바、「揚返」又는 束裝以後의 工程만을 行하는 産業組合

以上 六項의 一에 該當한者는 製絲業者로보지 안는同時에 取締치안는다고하엿다 그래서 本令의 適用範圍內에 잇는 五釜以上의 朝鮮內製絲業者에 對하야 總督府農林局에서 調查한데依하면

	戶	釜
機械製絲	七八	九、三六六
足踏機製絲	一一一	一、四五四
座繰器製絲	九	八四
計	一九八	一〇、九〇四

現在 朝鮮內에 製絲業令의 適用을 바들 製絲業者는 大小企業을 合하야 計가 百九十八戶로 日本內地의 製絲業法에 잇서서는 機械生絲의 製造業者만을 取締하기로 되엇스나 前記六項의 業者를 除外하고는 生絲製造業者 全部를 同令의 適用範圍에 너헛다 이러고 보면

從來 僅僅히 小資本으로 製絲業을 經營하든 朝鮮人製絲家도 同令의 適用을 박게되는것이다 그 苦痛이 尤甚하여질것이 事實이다 그러치 아니하여도 大資本의 壓迫을 밧고잇든 그들이어든 人的淘汰를 當하는 例가 적지안흘것도 豫想치안흘수업다。(續)

新春景氣展望 (1)

堅實投資時代
株界의大勢觀

雨聽生

新春의株界는 어떠할가? 이것을 打診함에 잇서서 이저서는 안될두가지 큰 材料가、잇스니 하나는 金融緩慢、低金利란것과 國勢伸展이란것이다。이두가지가 根本材料로서 優良株의 投資買의大思惑이 主流가 될것이나 投機株의 所謂大市勢란것이 果然 잇슬는지는 疑問에 屬한다。

×

우선觀點을 世界經濟로 돌리어보면 軍縮問題、英伊問題等의 歸趨를 簡單히 斷言할수업스나 結局에잇서서는 世界經濟는『景氣』의 一點에 緊張될것이며 米國의 繼續性이 果然잇슨것인 注目되기는하나 일즉 少反動程度이오 國內經濟를보면 貿易은 空前의好調이오 金融通貨의 順調와相俟하야 財界活動은 一層樂觀이 期待된다。諸物價도 整理一巡後 再活躍途程으로서 大局에 重點을 두는限

・物色投資時代
・一般的投資時代
・一般的投機時代

의三時代로 난우어봄이 조타는 말이다。

重工業株는 依然히 膨脹豫算에 變化업고 北中問題의 好轉에 依하야 더욱 昂騰을 示할것이며 人絹株는 首腦部會議의期待의 前途難渺이나 現在에 이미 增産念慮의 壓迫을 受하야 過度悲觀모양인즉 事業의將來性도 잇서 決코 悲觀할것이 업는터로 株界全體를通하야 初立會와 一月에는 或是 鈍會不戒가 嚴重하야 目前的悲觀論이 常識論인데 嚴選物色時代로서 賢首肯되면서도 大局樂觀을 期하는것은 무슨까닭일가?

×

財界는 金解禁以來 極端의 不況을 經過하야 再禁止時代에入하자 一時 크게 期待되던 인푸레景氣가 그後 大反動이잇고나서 다시 上向之勢를 取케되엿으로 東新市勢로말하면 九年春百八十圓臺에서 九年末百二十圓臺이던것이 百三、四十圓에서 十五、六個月을 揉合하고 올는뒤 百六十圓中心으로 二個月、百七十圓에서 一個月以上 揉合한터로 이市勢의形態는 決코 적은것이 아닌듯한바 或者는 大整理가 必現하리라하나 果然暴落이되느냐? 深押이업시 萬人待望의 큰市勢가 展開되느냐는 新春의內外材料如何에 依할수밧게업다。

×

結局에잇서서 今年의市勢는 投機株의 熱狂的큰市勢의 有無는 미리말할수업스나 何如間 堅實株의嚴選的買思惑은 失手가업슬것으로 보아두고저한다。

生絲는 春高期待

人氣明朗化

生絲는 春高氣分으로 顯著好化되엇는데 이는 世界的物價高傾向에다가 金利低下、米財界好轉機續形勢인것 米國人絹의値上發表에이어서 絹育絹洋機製品市價引上說、絹育各機關이 크리스마스後의 春用物準備로 價位低下에伴하야 原料生絲買氣促進인것、國內는 季節的減産期를압두고 輸出商의買氣가 增大하야 現實의入荷減으로減産再認識等을 反映한것이다。

×

高價飛付買는 警戒되며 高價에는 實彈與도잇겟스니 一本調子의上市勢는疑問이지만 生絲自體의 實勢로보는限 人氣는明朗性을 帶케되고 新春高가 期待된다

◇……東洲 沈寅燮氏 試毫

京城府敦義洞

明月館

電話光化門(3) [illegible]

三國商會

冷麵界의霸王

냉면 장국밥 대구탕 비빔밥 해국 만두 온면 어복쟁반 어복국 주효

京城府武橋町六十一番地

又春館

電本 四七三二番 四六七四番

新年宴會は是非別館

三階御宴會場 御利用下さい

御定食御一人前 五品付 一圓より御用承ります

座談會・コンパ會・お茶會

樂園會館 電光 二七一番 一七〇八番 二六〇七番

樂園別館 電光一四五六番

樂園本町支店 電本(2)一四〇二番

京城府淸進洞一六四番地

株式會社 鍾路券番

電光一九・二〇五五・一一二九

取締役 申[illegible]
同 金[illegible]
同 李[illegible]
同 李[illegible](明月館)
同 朴[illegible](國一館)
同 金[illegible](天香園)
監査役 李[illegible](春景園)
同 金[illegible](朝鮮館)
同 高[illegible](太西館)
同 金文成
支配人 金德成